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4



■ ■ 역사와 지리로 본
울릉도·독도

윤유숙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발간사

동북아시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영토 문제가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그러한 역사·영토 문제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와 상생을 위한 역사 대화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8월에 출범한 저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설립 이래 독도 문제에 장기적·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술적인 연구·조사와 대외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왔습니다. 독도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미진 연구 분야에 관한 도전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쟁점화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성찰하고, 재고하여 우리의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독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들을 종래의 문헌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지명(地名) 조사 내지는 일본 지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본 것입니다. 각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구축한 역사학, 지리학 연구자 네 명이 주축이 되어 근대 이전 울릉도와 독도를 주제로 다룬 논문을 모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 연구결과가 학계에서 독도와 울릉도 연구 지평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집필을 수락하시고 옥고를 제출하여 주신 김기혁, 최은석, 윤유숙, 임학성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1년 10월 15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책머리에 9

•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搜討) 기록에 나타난
부속 도서의 표상 연구 김기혁

I. 머리말 15

1 _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5

2 _연구 자료 20

II. 수토 기록 일지와 지명 28

1 『울릉도사적』 28

2 김창윤의 「수토기」 28

3 한창국의 「수토기」 30

4 이규원의 『검찰일기』 32

III. 지명의 위치 비정 36

1 _울릉읍 일대 37

2 _서면 일대 38

3 _북면 일대 39

IV. 수토 이동 경로와 부속 도서 지명 41

1 _이동 경로 41

2 _부속 도서의 표상 50

V. 맺음말과 논의 52

• 안용복 사건의 무대 최은석
- 17세기 돛토리번과 오키국

I. 머리말 57

II. 돛토리번의 행정체제	58
1 _'구니카에' - 돛토리번과 오카야마번의 영지 교체	58
2 _돛토리번의 영지 구조	61
3 _돛토리번의 행정체제	62
III. 돛토리번 요나고-아라오 가문의 독자적 지배	64
1 _아라오 가문에 대해	64
2 _요나고조와 구라요시조	66
3 _아라오 가문의 '자분수 정치'	69
IV. 오키의 행정체제	72
V. 동해의 고도(孤島)와 17세기 일본	79
1 _전후 혼란과 동해의 고도	79
2 _17세기의 일본과 오야, 무라카와 가문	82
VI. 맺음말	90

• 조선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사 검토 소고 윤유숙

I. 머리말	95
II. 조선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사	97
III. 조선 문헌 비판에 대한 재검토	104
IV. 맺음말	108

• 조선시대 지리서·지도에 내재된 '독도' 영유 인식 임학성

I. 머리말	113
II. 조선시대 지리서에 기재된 '독도'	115
1 _조선 전기 편찬 지리서의 '독도' 기재	116

2_조선 후기 편찬 지리서의 '독도' 기재	121
Ⅲ.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독도'	125
1_A유형: 좌측-우산도, 우측-울릉도	128
2_B유형: 좌측-울릉도, 우측-우산도	131
3_C유형: 상단-우산도, 하단-울릉도	135
4_D유형: 상단-울릉도, 하단-우산도	138
Ⅳ.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領有) 인식: 맺음말을 대신하여	139



이 연구서는 현재 독도 문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들을 종래의 문헌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지명조사 또는 일본 지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축적되면서 독도 연구 저변이 확대되고, 그 속에서 객관성과 설득력을 지닌 참신한 논리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서에서는 역사학과 지리학 연구자가 주축이 되어 근대 이전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사와 일본사의 필터를 통해 조망하여 보았다.

김기혁의 논문(「조선 후기 울릉도의 수토(搜討) 기록에 나타난 부속 도서의 표상 연구」)은 조선 후기 울릉도에서 수토관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각 장소에서 경험한 내용과 수록 지명을 통해 부속 도서에 대해 형성한 표상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18세기부터 실시한 정기적인 수토 범위는 해안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1882년 이규원이 한 검찰은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육로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내륙 중심에 대한 지역조사를 수행하였다. 수토 기록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울릉도 연안에 있는 지금의 죽도는 조선시대에 '죽도(竹島)' 혹은 '대도(大島)'로 불렸음을 확인하였다. 우산도 지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토 기록의 지명과 섬에 대해 서술한 내용 및 수토 지도를 볼 때, 20리 방안지도를 바탕으로 그려진 지도에서 울릉도 동남쪽에 가장 크게 묘사된 섬이 지금의 죽도이다. 동쪽에 멀리 떨어져 '우산' 지명과 함께 묘사된 섬은 죽도와는 별개의 섬으로 지금의 독도를 그린 것이다.

최은석의 논문(「안용복 사건의 무대 - 17세기의 돛토리번과 오키국」)은 17세기 일본에서 안용복 사건 그리고 울릉도·독도에 직접 연관있는 지방 세력을 하나씩 개괄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적어도 한국에서 논의가 미진했던 부분을 들자면 당시 일본의 국내 상황과 ‘죽도도해면허’의 사료적 정당성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17세기의 돛토리번(鳥取藩), 요나고(米子), 오키(隱岐), 그리고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가문의 실재와 그들 간의 착종된 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였는가는 하나의 문제가 빚어낸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돛토리번의 역사(구니카에)와 그 행정체제·격식에 관해 개관하고, 돛토리번 안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부여받고 있던 요나고의 아라오(荒尾) 가문을 살펴보고 있으며, 울릉도·독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인 오키의 17세기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용복 등 조선 어민과 직접 대립했고 당시에 울릉도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현대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 주장에서도 최대의 근거로 제시되는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을 살펴보았다.

윤유숙의 논문(「조선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사 검토 소고(小考)」)은 현재 한일 양국이 의견 대립하고 있는 논점 중 하나인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의 문헌 속에 ‘울릉도’와 함께 기재된 ‘우산도’를 독도에 비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한국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의 기술을 근거로 하여, 한국이 예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독도다’라는 입장에서 서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한국 문헌이 지니는 사료로서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주요한 근거로 거론하고 있는 조선 문헌의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에 관해 일본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고 그 입론이 과연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임학성의 논문(「조선시대 지리지·지도의 편찬과 '독도' 영유 인식」)은 현재 독도 영유권 논쟁의 학문적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조선시대 자료, 즉 조선 정부 또는 조선의 지식인이 기록하여 편찬한 여러 지리지(地理志)와 지도(地圖)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의 독도 인식, 즉 영유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2011년 10월 7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윤 유 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搜討)
기록에 나타난 부속 도서의
표상 연구

부산대학교 김기혁



- I. 머리말
- II. 수토 기록 일지와 지명
- III. 지명의 위치 비정
- IV. 수토 이동 경로와 부속 도서 지명
- V. 맺음말과 논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기혁

역사지리학 전공,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대표논저로는 『부산고지도』(2008, 부산광역시), 「조선-일제강점기 지명의 생성과 변화」(2006,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 18), 「우리나라 도서관 박물관 소장 고지도의 유형 및 관리실태연구」(2006, 『대한지리학회지』 41) 등이 있다.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搜討) 기록에 나타난 부속 도서의 표상 연구*

부산대학교 김기혁

I. 머리말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7세기부터 조선에서 실시되었던 수토(搜討) 정책은¹⁾ 조선 사회가 울릉도 일대의 지리 표상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울릉도는 신라시대에 우산국이 토의(土宜)를 바침으로써 한반도의 영역 공간에 속하게 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울진현이 되면서 하위 행정 영역으로서 존재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이곳에 읍을 설치하자는 논의도 있었다.²⁾

* 이 논문은 『문화역사지리』 제23(2)권(2011. 8)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1) 조선시대 관원들의 울릉도 파견은 ‘審察’, ‘搜討’, ‘檢察’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의 ‘수토’ 용어는 이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2) 1412년(태종 12) 4월 流山國(于山國의 誤記)의 白加勿 등의 보고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1416년(태종 16년)과 金麟雨를 안무사로 파견하였고 이듬해인 1417년부터 주민쇄환정책이 실시되었다. 1424년에 김인우가 다시 안무사로 파견되기도 하였음.

1417년(태종 17)부터 육지에서 도피해 간 주민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고, 왜 구 출몰로 피해가 잦으면서 주민의 쇠퇴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울릉도에 대한 지리 지식은 정확하지 않았으며(김기혁, 2009), 특히 울릉도 외에 다른 섬이 존재한다는 이도설(二島說)이 유입되면서 지명과 관련하여 지리적인 정체성이 혼돈을 빚게 되었다. 당시 사료에서 ‘鬱陵’, ‘蔚陵’, ‘武陵’, ‘于山’ 등의 여러 지명을 사용한 것은 울릉도와 부속 섬들의 지리적인 실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동해상의 변방(frontiers) 공간으로만 존재하였던 울릉도가 조선에게 강역의 세계로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이다. 17세기 들어 동해상에 일본인들의 잦은 출몰과 1693년(숙종 19) 안용복 1차 사건을 계기로 인해, 울릉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영토 정책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실시되었던 주민 쇠퇴정책을 재검토하고, 1694년에는 장한상(張漢相, 1656~1724)으로 하여금 울릉도를 심찰(審察)하게 하였다. 이후 1697년(숙종 23)부터 2~3년 주기로 수토를 실시하였고, 이는 1895년까지 지속되었다.

수토가 반복되어 울릉도의 지리 정보(information)가 정확해지면서 위치, 자연과 인문, 강역과 관련된 지식(knowledge)이 형성되면서 울릉도의 공간 표상(spatial representation)³⁾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조선 전기와 후기에 제작된 고지

며, 세조대에는 조정에서 設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세조실록』 3년 4월 16일 기유.

- 3) 공간 표상은 개인이 공간에 대한 느낌, 견해 등을 바탕으로 場所(place)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며, 내적으로 형성한 ‘객관으로서의 세계(model of the world)’이다. 즉 공간 표상이란 특특정 대상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구별된 장소에 대해 떠오른 내적인 생각, 그리고 생각이 반영된 외적인 표현물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Schopenhauer, A., 1788~1860)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인간의 인식에 의해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세계는 주관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객관에 불과하며, 직관하는 자의 직관, 한마디로 말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본질적이고 필연적이며 불가분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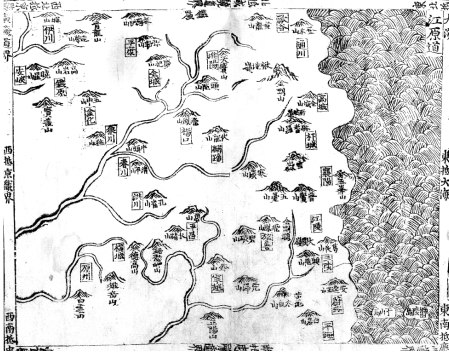


그림 1_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16세기, 규장각)



그림 2_ 「강원도지도」 (18세기, 혜정박물관)

도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림 1과 그림 2는 조선 전기와 후기에 그려진 울릉도와 부속도서의 모습이다. 조선 전기 「강원도지도」(그림 1)에는 해파묘로 표현된 동해에 우산도와 함께 동쪽에 울릉도가 묘사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는 동해에 2개 섬(우산도-울릉도)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육지는 울진현이라는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18세기에 그려진 「강원도지도」(그림 2)에서 울릉도 일대의 지리 정보는 매우 다르다. 위치는 강원도 울진에 가깝게 그려진 것은 동일하나, '우산(于山)' 지명⁴⁾ 기재된 섬은 조선 전기와는 달리 울릉도의 동쪽에 2곳의 봉우리와 함께 묘사되어 있다. 또한 울릉도 내의 산지와 하천 등의 지리 정보가 상세할 뿐만 아니라 동남쪽 연안에 3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그림 15 부분도 참조).

은 객관(Objekt)이며, 형식은 공간과 시간이다. 다른 측면인 주관은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 저, 권기철 역(2008),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 4) 이 지명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지명으로, 조선시대에 제작된 전국 지도와 강원도 도별도에서 기재되어 있다. 조선 지도의 영향을 받은 중국 및 일본 지도와 서양 지도에서도 이 지명이 기재되기도 한다. 일부 지도에서 '千山', '干山' '亏山'으로 수록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우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두 시기의 울릉도 지도가 현저하게 다른 것은 이들 섬에 대한 지리 지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묘사되는 것은 18세기 이후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러 차례의 수토를 통해 유입된 지리 정보가 체계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고지도는 현대 지도와는 달리 경험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주관적으로 표상화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도에 묘사된 지리 정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수 있다.⁵⁾ 일본이 독도에 대해 귀속성을 주장하면서, '우산도' 지명은 역사지리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에 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 이 지명에 대한 한·일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울릉도 부속도서로 묘사된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를 묘사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한국 측은 고지도 발달과(국토지리정보원, 2009) 사료에서의 맥락을 바탕으로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를 지칭한다는 주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우산도'가 울릉도 해안에서 약 2km 떨어진 지금의 죽도를 지칭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측 주장이 계속되는 것은 울릉도 부속도서에 '죽도' 지명이 기재되어 있는 고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금의 죽도를 조선시대에 어떻게 명명하였

5) 지도는 공간의 표상(spatial representation)을 지명을 비롯한 지리 정보를 통해 표현한 결과물이라 정의될 수 있다. 지식정보론의 관점에서 보면 지도는 언어화, 형태화하기 곤란한 지리 지식과 관련한 暗黙知(tacit knowledge)가 언어 또는 형태로 결정된 形式知(explicit knowledge)로 전환된 결과이다. 형식지와 암묵지는 지명과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면서 知(knowledge)를 창출하며, 知의 흐름(flow)인 정보(information)가 된다. 따라서 지도는 지리 지식의 흐름(=지리정보)을 위한 형식지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노나카 이쿠지로 저, 나상역 역(2009), 『노나카의 지식경영』, 21세 기록스

는가를 밝히는 것이 양국간의 논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 시대의 지도는 대부분 탐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울릉도 고지도에 수록된 지리 정보는 조선시대 수토관들이 울릉도에서 탐험한 내용을 통해 그 맥락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형성한 공간 표상은 고지도에 지리 정보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울릉도 수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수토관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기억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토’라는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도 있지만, 수토관들이 울릉도 현장에서 획득한 지리 정보와 지명에 대한 역사·지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토관들이 울릉도의 여러 장소에서 경험한 기억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동한 경로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수토 기록에 여러 지명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고지명들이다. 우리나라가 겪은 복잡한 지명 변화로 인해 당시의 지명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 비정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수토관들이 그린 지도와 함께 울릉도를 자세히 묘사한 고지도들이 확인되면서 수토관들의 경로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수토 기록에 기재된 지명을 이용하여 수토관들이 이동한 경로를 파악하여, 그들이 장소에서 경험한 기억을 재현함으로써 부속도서에 대해 형성한 공간 표상의 내용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지도에서 표현된 부속 도서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울릉도 지도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수토기의 지명을 기본 자료로 하였으며, 이의 위치 비정은 조선시대 제작된 울릉도 고지도 중 수토관들이 조정에 올린 수토 및 검찰지도와 군현 지도책에 포함된 지도를 주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들 지명은 1917년에 제작된 「조선지형도」(1: 50,000)와 비교하여 확인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울릉도 현지답사(2006년 7월, 2009년 4월)를 통해 보완하였다.

1) 수토 기록

〈표 1〉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기와 검찰일기

사료	수토관	연도	수록 자료와 소장처	수록지명
『울릉도사적』	張漢相	1694년(숙종 20)	국사편찬위원회소장(사본)	1
「수토기」	金昌胤	1786년(정조 10)	『일성록』(1786, 정조 10)	17
「수토기」	韓昌國	1794년(정조 18)	『정조실록』(1794, 정조 18)	17
『울릉도검찰일기』	李奎遠	1882년(고종 19)	국립제주박물관	36

조선시대 수토 기록 중 지명과 경로가 구체적으로 수록된 자료는 표 1과 같다.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은 장한상이 1694년(숙종 20) 9월 19일~10월 3일 동안 심찰한 후 조정에 올린 내용을 담고 있다. 기록의 일부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울릉도」에 수록되어 있으며, 『숙종실록』(1694, 숙종 27)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울릉도에 대한 가장 초기의 조사 기록이다.

김창윤의 「수토기」는 1786년(정조 10) 당시 월송 만호 김창윤이 4월 19일~5월 5일 동안의 수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일성록』에 수록되어 있다. 4월 27일 강원도 평해 구미진(丘尾津)에서 4척의 배로 출발하여 28일 울릉도에 도

착하여 5월 4일까지 체류하고 5월 5일 삼척 원덕면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날짜별로 상세히 수록하였다. 도착 후 지도를 비변사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나 남아 있지 않다.

한창국의 수토기는 1794년(정조 18) 4월에 울릉도를 수토하여 남긴 기록이다. 울릉도의 도형(圖形)을 작성하여 비변사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으나 남아 있지 않다.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울릉도 일정을 담고 있다.

이규원의 『검찰일기』는 당시 부호군(副護軍)⁶⁾이었던 이규원(1833~1901)이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되어 1882년에 행한 검찰 활동을 기록한 자료이다.⁷⁾ 그는 검찰 후 5월 27일 귀경하여 서계·별단·지도(「울릉도외도」·「울릉도내도」)를 올리고, 6월 5일 복명하였다.⁸⁾

2) 울릉도 고지도

조선시대 울릉도를 상세하게 그린 고지도는 수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⁹⁾ 군현지도책에 삽입된 지도, 『대동여지도』 등 대축척 조선전도에 묘사된

6) 조선시대 五衛에 속해 있던 종4품의 무관직이다.

7) 1881년 울릉도에 일본인이 침입한 사건으로 조선 조정은 일본 정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이전부터 실시되었던 주민쇄환정책을 재고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위한 검찰사를 파견기로 하였다. 울릉도로 출발하기 전인 4월에 고종은 일본인들의 무상왕래를 검찰하고, 울릉도 옆에 있는 송죽도와 우산도 혹은 송도와 죽도라 부르는 섬들의 지리를 자세히 살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전의 수토가 정확하지 못하였음도 지적하면서 울릉도에 설읍할 계획이므로 耕食處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지도와 별단을 작성하여 올리라는 것이었다. 『고종실록』 19년 4월 7일 임술.

8) 그는 이 자리에서 “진을 두든 읍을 두든 그 적지는 나리동이며 개척을 할 경우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바에 따르면 백성들이 즐겨 쫓을 것이나 먼저 입주를 허락하여 그 모이는 것을 보아가며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였다. 국왕은 이를 받아들여 개척을 서두를 것을 지시하였다(『고종실록』 19년 6월 5일 기미). 같은 해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이 반포되었고, 1900년 울릉도에 울도군이 설치되었다.

9) 한편 수토 지도로 추정되는 지도는 인터넷상에 있으나 소장처가 불확실하다. 지도 이

지도 등 30여 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지도를 선정하여 지명의 위치 비정에 이용하였다. 사용된 지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울릉도 고지도

유형	고지도	편찬연대	크기	소장처	지명
수토 및 검찰 지도	「울릉도도형」	1711년	71.4×62.2cm	규장각	3
	「울릉도외도」	1882년	134.0×97.5cm	규장각	36
	「울릉도내도」	1882년	110.1×65.7cm	규장각	16
	「울릉도도형」	미상	96.0×93.8cm	국립중앙도서관	19
군현지도	『해동지도』 「울릉도」	18세기 중엽	47.0×30.5cm	규장각	16
	『조선지도』 「울릉도」	18세기 중엽	49.8×38.5cm	규장각	6

① 「울릉도도형」(규장각)

이 지도(그림 3)는 현재 남아 있는 울릉도 수토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 뒷면에 ‘營將朴錫昌所作 鬱陵島地圖’라고 기재되어 있다. 박석창은 1710년(숙종 36) 9월에 삼척영장으로 임명된 후 다음 해인 1711년에 울릉도를 수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⁰⁾ 지도에서 울릉도는 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으로 묘사되었다. 서쪽을 위로 하였고, 방위는 동서남북과 24방위를 함께 사용하였다. 지도의 우측 상단에 울릉도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위 200

름은 ‘울릉도도’로 가운데 나라동을 중심으로 평지를 그리고, 산지는 해안을 향하여 거칠게 표현되어 있다. 수록된 지명이 매우 상세한 것으로 보아 수토지도로 간주된다. 한편 간송미술관에도 한질의 지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에 미룬다.

- 10) 조선시대 수토 지도와 관련하여 1699년(숙종 25) 월송 만호 전희일이, 1702년(숙종 28) 삼척 영장 이준명이, 1711년(숙종 37) 박석창이 지도를 제작하여 조정에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여 리, 동서 80여 리, 남북 50여 리가 기재되어 있다.

지도에는 중앙에 중봉을 중심으로 세 봉우리가 중봉을 향하여 독립된 산지로 묘사되어 있다. 중앙의 산지 표현에서 중봉과 마주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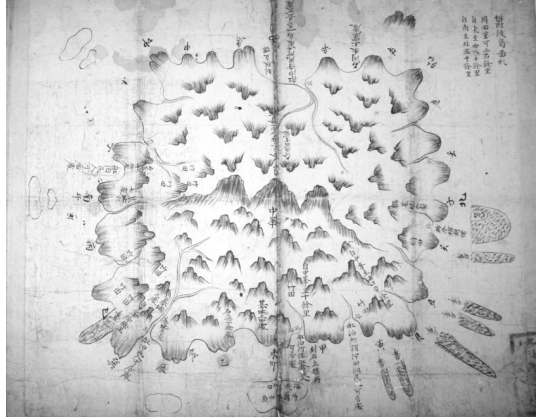


그림 3_「울릉도도형」(1711, 규장각)

산지는 비교적 작게 그려져 있고, 하천이 이곳에서 유출되고 있다는 주기 내용으로 보아 지금의 나리분지 일대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에서 발원하여 해안으로 유입하는 하천 중 세 곳이 비교적 큰 규모로 그려져 있고, 아홉 개의 작은 물길이 해안 일대에 묘사되어 있다. 동쪽과 남쪽의 해안에 여섯 개의 섬이 있으며, 북동쪽의 해안에는 기암절벽들이 그려져 있다. 지금의 공암(‘코끼리 바위’)에는 ‘穴岩’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30여 곳에 수록된 대부분이 글씨는 지명이라기보다는 주기 내용이다. 지명은 ‘中峰’과 ‘芋田洞’과 함께 동쪽 바다에 묘사된 ‘于山島’ 등 세 곳뿐이다.

② 「울릉도도형」(국립중앙도서관)

이 지도는(그림 4) 박석창의 지도와 동일한 제목으로 되어 있으나 형태와 내용은 매우 다르다. 작자와 제작 시기는 미상이나 내용의 상세함으로 비추어 볼 때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도는 4각형으로 그려져 있으며, 지도의 위를 북쪽으로 정치하여 방위 표현은 12간지를 이용하였다. 섬의 중앙에 산지가 그려져 있고, 두 산지 모두 분지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나리분지



그림 4 「울릉도도형」(국립중앙도서관)

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산지가 내륙으로 향하는 독립된 산지로 표현되어 있어 박석창의 지도와 유사하다. 하천은 11곳에 묘사되어 있으며, 대부분 산지에서 발원하여 해안으로 유입하고 있다. 해안에는 기암절벽들이 실경으로 거칠게 그려져 있다.

수록 지명은 내륙보다 해안 쪽 지명이 상세하다. 북쪽 해안에 기재된 '孔巖', '錐峯' 등은 지금의 공암, 추산을 묘사한 것이며, '候竹巖', '龍巖' 등은 일선암, 삼선암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의 동남쪽과 남서쪽에도 해안 지형이 묘사되어 있으나 지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해안의 동쪽에 '倭船倉龜尾', 남쪽에 '長沙龜尾', '桶龜尾', '都藏龜尾', '萍卓龜尾'가 기재되어 있다. 서쪽 해안에는 '小黃土龜尾', '沙汰龜尾', '大黃土龜尾', '待風龜尾'가 있다. 북쪽에는 '玄店龜尾', '天底龜尾'가 있다. '-龜尾'인 지명이 기재된 해안에서 포구가 발달한 곳으로 보아, 이 용어는 만입부를 의미하는 지명임을 보여준다.

내륙에는 지명이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다. '竹田'이 두 곳, '芋田'이 한 곳, '楮田'이 한 곳이 있으나 이는 지명보다는 주기에 가깝다. 서쪽의 내륙에 '待風所'가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로 '대풍구미'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주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섬은 동쪽에 다른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大于島’와 ‘小于島’가 두 곳만 묘사되어 있다.¹¹⁾ 서쪽의 ‘黃土窟’ 지명에 붉은 색이 칠해져 있다. 이는 울릉도 곳곳에 나타나는 황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앙의 산지에 표현된 붉은색의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③ 「울릉도외도」와 「울릉도내도」

1882년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 후 그린 지도로, 고지도 중 지명이 가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울릉도외도」(그림 5)에서 섬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표현하였다. 방위는 북쪽을 위로 하였고, 12간지를 이용하였다. 중앙에 나리분지를 과장하여 묘사하고, 주변에 산지를 폐화식(閉花式)으로 표현하였다. 회화 수준은 다른 수도 지도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해안 일대의 수록 지명도 매우 자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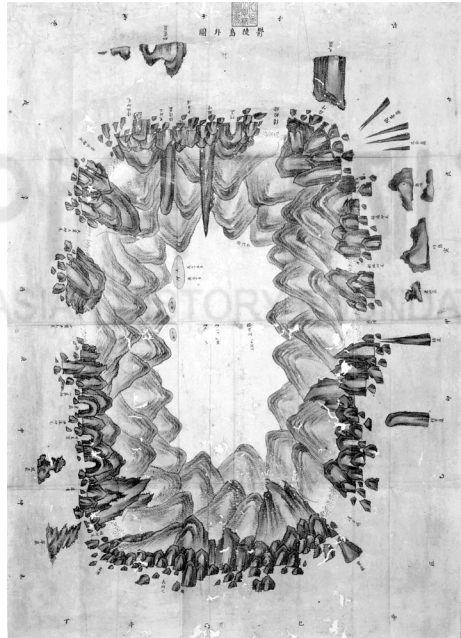


그림 5_ 「울릉도외도」(규장각)

중앙의 나리분지에는 마을 지명으로 ‘羅里洞’이 기재되어 있으며, 두 곳에(「울릉도내도」의 경우 세 곳) 연못을 그리고, 그 옆에 ‘길이 75보, 폭 50보’라 하여 크기를 기재하였다. 이는 이규원이 개척이 이루어질 경우 울릉

11) 이 지명에 대하여 이를 大于島, 小干島로 읽어 이를 수도기에서 나타나는 ‘防牌島’의 이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독도관련자료해제집』, 97쪽

도의 중심 공간은 나리분지가 될 것임을 예상하고, 농경지로 이용이 가능함을 보고하기 위해 이와 같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 내용은 해안을 중심으로 마을과 도서 등 해안 지명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다. 만입부 지명의 후부 요소는 '邱尾'로 기재하였다. 지도의 동쪽에는 지금의 도동과 저동의 지명 기원이 된 '道方廳'과 '苧浦'가 기재되고 있다. 이외에 '船板邱尾', '雄通邱尾'가 있다. 해안에는 '將軍巖', '錐巖', '老姑巖', '竹島', '島項' 등의 지명이 있다. 남쪽에는 '長斫之', '玄浦'와 함께 '靑巖', '華巖' 등이 있다. 서쪽에는 '桶邱尾', '谷浦', '沙汰邱尾', '山幕洞', '小黃土邱尾', '大黃土邱尾', '香木邱尾'가 있다. 섬 지명으로 '鳳巖'과 '可支窟', '窟巖'이 묘사되어 있다. 북쪽 해안의 만입부 지명으로 '待風邱尾', '黑斫之', '千年浦', '倭船艙'가 있다. 해안 지형으로 '虹霓巖', '倡優巖', '錐峰', '門巖', '蒜峰', '大巖', '燭臺巖', '兄弟巖' 등이 묘사되어 있다.

「울릉도내도」는 나리분지를 중심으로 그린 지도로 중앙에 못과 '紅門街'(홍문등)로부터 이어지는 도로가 묘사되어 있다.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이 개화식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동쪽의 산지로 '聖人峰', '道德峰', '活人峰', '將軍峰', '祝融峰', '神倦峰', 서쪽 산지에는 '錐峰', '恒峰', '衡峰', '嵩峰', '泰峰', '麒麟峰', '玉女峰', '華峰' 등이 있다.

④ 『해동지도』와 『조선지도』 중 「울릉도」

앞의 세 지도가 수토와 검찰을 통해 그려진 지도인 반면, 근현지도책에 울릉도 지도가 삽입된 경우가 있다. 이들 지도는 수토에서 얻어진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다. 『해동지도』(그림 6)의 울릉도 지도는 원형으로 그려져 있다. 중봉을 중앙에 배치하고 독립적으로 묘사된 산지들이 이곳을 향해 폐화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중봉 일대에서 발원한 여섯 줄기의 하천들이 해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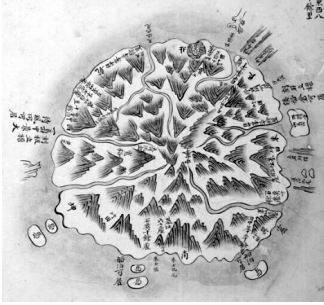


그림 6_ 『해동지도』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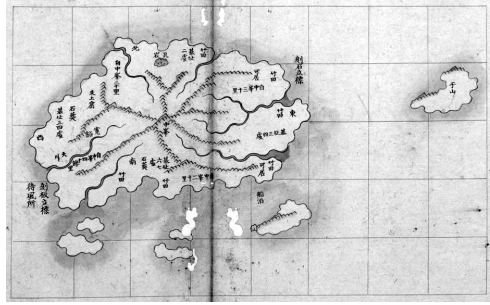


그림 7_ 『조선지도』 중 「울릉도」 (규장각)

로 유입하는 모습이 직선으로 과장되어 있다. 지도의 구도와 묘사 방법, 방위 표현 방법, 섬의 개수와 묘사 방법 등은 박석창의 「울릉도도형」과 거의 유사하다.

지명은 박석창의 지도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다. 성인봉은 ‘중봉’으로 표현하였으며, 해안 일대의 지명이 비교적 상세하다. 만 입부 지명의 후부 요소는 ‘仇尾’로 기재되어 있다. 남쪽에 ‘朱土仇尾’, 북쪽에 ‘天底仇尾’, 동쪽에 ‘道庄仇尾’가 있다. 해안 지명으로 북쪽에 ‘孔岩’, ‘大岩’, ‘大錐岩’, ‘小錐岩’, ‘仙遊臺’, ‘候布岩’, ‘牛角岩’ 등이 있으며, 동쪽에는 ‘芋田洞’과 ‘沙工浦’, ‘于山島’ 등이 있다. 다른 글씨들은 대부분 장소를 설명하는 주기이다.

『조선지도』에 삽입된 울릉도 지도는(그림 7) 20리 방안 위에 그려진 지도로 지명이 여섯 곳에 수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 비해 울릉도 형태가 실제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려지고, 지명의 위치가 보다 정확해져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해동지도』에서 우산도를 ‘所謂于山島’로 기재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이 지도에서는 동쪽 약 40리 떨어진 곳에 지명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

II. 수토 기록 일지와 지명

1. 『울릉도사적』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 수록된 지명은 중봉 외에는 한 곳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심찰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그는 섬 주위를 이틀 만에 본 후 둘레는 150~160리로 추정하였다. “동쪽으로 5리쯤 되는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리 높고 크지는 않으나 해장죽(海長竹)이 한쪽에 무더기로 자란다”는 기록은 지금의 죽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쪽에 대관령의 구불구불한 모습이 보이며, 동쪽을 바라보니 바다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아득히 동남방에 위치하며, 섬의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현재의 독도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 가옥의 흔적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살았던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왜인들의 울릉도 점거를 막기 위한 방비책을 논의하고 있다. 울릉도의 ‘산천과 도리’를 그려서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나 남아 있지 않다.

2. 김창윤의 「수토기」

〈표 3〉 김창윤의 「수토기」 중 지명 관련 묘사 기록

날짜	관련 수록 내용
4월 28일	28일 卯時에 배의 곁꾼들이 가리키며 이르기를, “저 먹구름 아래가 바로 섬 가운데 <u>上峰</u> 입니다” 하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가장 높은 세 봉우리가 뚜렷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도착장소 미상)
4월 29일	29일에 배가 출항하여 <u>芋田洞</u> 에 이르자 [...] 看審하니, 洞口에서 <u>中峰</u> 까지 20여 리에 산 봉우리들이 겹쳐서 안팎으로 서로 연이어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세 봉우리가 가장 빼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섬 전체의 主鎮으로 마을 안에 둘레가 2, 3리는 뒹직한 石城의 흔적이

4월 29일	뚜렷하게 아직 남아 있었고, 성안에 있는 <u>大錐巖·小錐巖·石礎·芋田</u> 등은 토지가 평탄하고 넓어서 논밭 8, 9십지기를 개간할 만하였습니다. <u>앞쪽으로 可支島仇昧</u> 에 나아가니, 산허리에 석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웠고, <u>可支魚</u> 가 놀라 뛰쳐나왔다가 물로 뛰어드는 사이에 포수가 일제히 총을 쏘아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5월 1일	5월 1일 묘시에 남쪽 <u>倭船滄(의선창의 오기)</u> 으로 방향을 바꾸니, 동구에서 중봉까지 30여 리가 모두 전란을 겪고 남은 산으로, 석성· <u>石塔·石葬</u> 등의 유적지가 뚜렷하였습니다. <u>앞쪽으로</u> 돌아가니 암벽이 물가에 깎아지른 듯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u>長作地</u> 의 대숲이 있는 곳에 이르자, 대숲이 듥성듬성하고 원래 큰 대나무는 없었으며 북쪽으로 <u>天磨仇昧</u> 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5월 2일	2일 해뜰 때에 간삼하니, 어떤 바위가 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어서 그 모양이 마치 쇠뿔 같았는데 이름이 <u>幪竹巖</u> 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쪽에는 <u>防牌島</u> 가 있는데 <u>大島</u> 와의 거리가 3리쯤 됩니다.
5월 3일	3일에 <u>玄作地</u> 에 다다르니 돌산이 겹쳐 있고 바닷가에는 바윗돌뿐이었습니다. <u>錐山</u> 은 산의 형태가 기이하고 돌이 괴이한 검은색이며, <u>竹巖</u> 은 양쪽 바위가 우뚝 서서 모양이 마치 <u>幪竹</u> 과 같았습니다. 곁에는 <u>孔巖</u> 이 있는데 가운데로 작은 <u>桶船</u> 이 통과하였습니다. <u>黃土仇昧</u> 에 이르자, 산이 중첩되어 있었고 계곡 물이 내를 이루어 30여 석의 논농사를 지을 만하고 수십여 석의 밭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중봉까지 30여 리에는 좌우로 토굴의 바위 위에 예전 수토관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5월 4일	4일에 <u>香木亭</u> 으로 향하니, 섬 전체의 둘레가 120여 리는 뒹직하였고 남북으로 7, 80리, 동서로 6, 70리가 되었습니다. 사면이 모두 절벽으로, 산의 형태가 하나하나 험준하고 큰 시내와 작은 산골물이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여 천 척의 은빛 무지개가 만斗의 옥을 토해 내는 듯하였습니다. <u>待風所</u> 에서 바라다보니 수목으로는 동백나무 등이 있었으며 [...].
5월 5일	申時 출발-(5월 5일) 酉時 삼척 원덕면 장오리 정박-대풍소

김창윤의 수토기에서 경로의 지명을 중심으로 요약된 내용은 표 3과 같다. 4월 28일 도착 후 '4척의 배가 모이니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극에 달하여 각자 위험하거나 두려웠던 상황을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항로가 매우 험난하였음을 보여준다. 상봉을 보았다는 내용이 있으나 도착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튿날인 4월 29일에 저전동에 도착하여 산제를 지낸 후 중봉이 세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봉에 대한 기록은 『울릉도사적』과 일치하다. 이후 대추암·소추암·석초·저전 일대를 수토하고, 가지도구미에

서 가지어 두 마리를 포획하였다. 사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숙박은 저전동에 서 한 것으로 추정된다.

5월 1일에 왜강창 동구에서 중봉까지 수토를 한 후 장작지·천마구미에서 대나무밭을 확인하고 이곳에서 2박하였다. 3일째인 5월 2일에 일어나 보니 바다 가운데 바위가 우뚝 서 있어서 이를 후죽암이라 하였다. 동쪽에 있는 방패도를 보았다. 4일째인 5월 3일에 현작지, 추산, 죽암, 공암, 황토구미 일대를 수토하였으며, 황토구미에서는 논농사가 가능할 것이라 하였고, 예전의 수토관들이 새겨 놓은 석각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5일째인 5월 4일에는 향목정과 대풍소를 거쳐 이 일대를 수토하였다. 당일 신시에 출발하여 이튿날인 5월 5일에 삼척 원덕면 장오리에 도착하였다.

3. 한창국의 「수토기」

한창국의 「수토기」 경로는 표 4에 정리하였다. 수토 일행은 4월 21일 미시(未時)에 강원도 평해에서 출발하여 이튿날 22일 새벽인 인시에 황토구미진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중봉으로 향하는 골짜기를 수토하고 60여 마지의 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좌측에 있는 황토구미굴을 확인하고 병풍석, 향목정 일대를 답사하였다. 23일에는 일정이 없어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한창국의 「수토기」 중 지명 관련 묘사 기록

날짜	관련 수록 내용
4월 21일	未時 出發-4월 22일 寅時 도착
4월 22일	섬의 서쪽 黃土丘尾津에 정박하여 산으로 올라가서 살펴보니, 계곡에서 中峰까지의 30여 리에는 산세가 중첩되면서 계곡의 물이 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논 60여 섬

4월 22일	지기의 땅이 있고, 골짜기는 아주 좁고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 왼편은 <u>黃土丘尾窟</u> 이 있고 오른편은 <u>屏風石</u> 이 있으며 또 그 위에는 <u>香木亭</u> 이 있는데, 예전에 한 해 걸러씩 향나무를 베어 갔던 까닭에 향나무가 점차 등성등성해지고 있습니다.
4월 24일	4월 24일에 <u>桶丘尾津</u> 에 도착하니 계곡의 모양새가 마치 나무통과 같고 그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다 속에 있는 그 바위는 섬과의 거리가 50步쯤 되고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며, 주위는 사면이 모두 절벽이었습니다. [...]
4월 25일	4월 25일에 <u>長作地浦</u> 의 계곡 어귀에 도착해 보니 과연 대밭이 있는데, 대나무가 등성등성할 뿐만 아니라 거위가 작달막하였습니다. [...] 이어 동남쪽 <u>楸田洞</u> 으로 가 보니 골짜기 어귀에서 중봉에 이르기까지 수십 리 사이에 세 곳의 널찍한 터전이 있어 수십 섬지기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 앞에 세 개의 섬이 있는데, 북쪽의 것은 <u>防牌島</u> , 가운데의 것은 <u>竹島</u> , 동쪽의 것은 <u>瓮島</u> 이며, 세 섬 사이의 거리는 1백여 步에 불과하고 섬의 들레는 각각 수십 把씩 되는데, 험한 바위들이 하도 쭈뼛쭈뼛하여 올라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4월 26일	거기서 자고 26일에 <u>可支島</u> 로 가니, 네댓 마리의 <u>可支魚</u> 가 놀라서 뛰쳐나오는데, [...] <u>丘尾津</u> 의 산세가 가장 기이한데, 계곡으로 십여 리를 들어가니 옛날 인가의 터전이 여태까지 완연히 남아 있고, 좌우의 산꼭이 매우 깊숙하여 올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어 <u>竹巖</u> · <u>幪布巖</u> · <u>孔巖</u> · <u>錐山</u> 등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나서 <u>桶丘尾</u> 로 가서 산과 바다에 고사를 지낸 다음, 바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4월 30일	출발 -5월 8일 본진 도착

24일에 배로 통구미진으로 이동하여 내륙을 수토힌하면서 지형이 험한 곳임을 확인하였다. 저녁에 이곳에서 숙박하였으며 25일에는 장작지포로 이동하여 대밭을 확인하고 일부 베어 내었다. 이어 저전동으로 이동하여 내륙을 수토힌하면서 평지가 적지 않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해안의 방패도, 죽도, 옹도 일대를 답사하였으나, “지형이 매우 험준하여 올라가 보지는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4월 26일에는 저전동에서 자고, 가지도로 이동하여 가지어를 포획하였다. 이후 구미진으로 이동하여 계곡으로 들어가 옛 인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죽암·후포암·공암·추산을 둘러보고 통구미로 가서 바다에 고사를 지내는 등 출항 준비를 하였다. 바람이 자기를 기다려 4월 30일에 출발하여 5월 8일 본진(강원도 평해)에 도착하였다.

4. 이규원의 『검찰일기』

〈표 5〉 이규원의 「검찰일기」 중 지명 관련 묘사 기록

날짜	관련 수록 내용
4월 30일	4월 29일 평해 구산포에서 출발하여 <u>小黃土邱尾</u> 에 도착
5월 1일	산신당에 제사 지냄.
5월 2일	오후에 산길을 오르고 고개를 넘어 <u>大黃土邱尾</u> 에 이른다. 돌무덤을 발견하다. 이곳 초막에 머물러 하룻밤을 보냈다.
5월 3일	한 고개를 넘어 숲을 뚫고 가보니 <u>黑斫支</u> 도착(너비는 십 리가 되고 길이는 육칠리가 된다. 간간이 돌무덤 고분, 수십 가구 거주 가능을 확인함). 바닷가로 내려가서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서서히 나아가서 포구의 형태를 살펴보니 산자락 동쪽에 <u>倡優岩</u> 이 있는데 높이가 수천 장이고 형태가 기괴하며 머리 뒤에 아래위로 크고 작은 구멍이 있다. 그 곁에 또 <u>燭台</u> 석이 나란히 서 있는데 높이가 수백 장이 된다.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옛 흔적을 물으니 <u>三陟</u> 사람 <u>鄭氏</u> 가 <u>壬辰</u> 8년의 피난지로서 8형제가 함께 진사 급제한 명당자리라고 하며 지명은 <u>千年浦</u> 라. 물이 흘러나오는 입구가 기묘하고 전방에 <u>錐峰</u> 이 있는데 높이가 수천 장이다. 그 모양이 송곳 같아서 이름지은 것이다. 그 아래 바닷가 길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성문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작은 하천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어서 <u>천년포</u> 를 지나 <u>倭船</u> 에 이른다. 차차 전진하여 <u>五大嶺</u> 을 넘고 <u>紅門街</u> 라는 고개를 넘어 들어가니 여기가 울릉도의 중심지인 <u>羅里洞</u> 이라. [...] 이곳에 큰 못이 있다. 기에 가 보았더니 큰 못은 길이가 칠십여 보이고 너비가 오십 보이며 작은 못은 너비가 삼십여 보인데 두 개의 못이라는 것이 모두 물은 없고 풀만 나 있다. [...] 차차 <u>中峰</u> 으로 가니 산신당이 있어 [...] 초막을 택하여 밤을 보냈다.
5월 4일	동쪽의 최고봉에 오르니 일컫되 <u>聖人峰</u> 이라. 사면을 바라보니 바다와 산이 망망하며 한 점 섬도 보이는 것이 없이 열네 개의 모든 봉우리가 홀연히 나란히 서서 나리등을 둘러 싸고 있으니 하늘이 빛어낸 별세계라. [...] 다시 출발하여 산등을 따라 차차 내려가니 <u>葎草</u> 가 무성하여 수십 호의 경작지를 이루고 있다. <u>포구</u> (※ <u>葎浦</u>)에 도착하니 해가 저물어 나무숲속에 움막을 치고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 밤에 동풍이 불어 닥쳐 파도가 해안에 부딪치니 찬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5월 5일	대령(大嶺)을 넘어 험준한 계곡을 지나 내려가서 바닷가에 당도하니 포구 이름이 <u>長斫支浦</u> 다. 포구의 길이가 십 리나 되고 가는 길이 미미하다. [...] 북쪽 움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5월 6일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바다 쪽으로 향해 내려가니 <u>桶邱尾</u> 산록이라. 바닷가에 도착하니 허기가 심하고 몸을 가눌 수 없어 광경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바위 앞에서 노숙하였다.
5월 7일	이곳을 출발하여 서쪽을 향해 <u>三大嶺</u> 과 <u>三流川</u> 을 건너가니 산악의 높음과 바위와 수목이 얽힌 것을 글로 적기가 어렵다. 해가 저물어 처음에 묵었던 <u>小黃土邱尾</u> 에 돌아오다.

5월 8일	<u>소황도구미</u> 에서 휴식하며 석수를 시켜 섬 이름과 성명을 <u>황도구미</u> 와 <u>통구미</u> 의 바위에 새기게 했다
5월 9일	배를 타고 출발하여 노를 저어 동쪽을 향해 약간 지나 십여 리를 가니 <u>香木邱尾浦</u> 라 하는데, 바람과 파도가 심하여 바닷가의 바위 모양이 기괴한 것이 많고 그 위에 <u>紫丹香木</u> 이 가장 많다. 차츰 항진하여 한 포구에 이르니 전일 산행 시에 일박한 곳인 <u>대황도구미</u> 라. 다시 살필 필요가 없어 곧 출발 항진하니 <u>待風浦</u> 라. [...] 다시 노를 저어 진행하여 <u>玄斫支</u> 를 지나 <u>왜선창</u> 에 이르니 이 두 포구는 이전 날 나리동으로 가는 길에 점심을 먹던 곳이라. [...]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다. 곧 배를 띄워 내려가니 높이가 수백 장 되는 마늘 모양으로 생긴 봉이 있어 <u>蒜峰</u> 이라 이름하였다. [...] 그 아래 산형이 바위벽들이 층층으로 쌓인 모습이고 바다 가운데 <u>竹峯</u> 이 있다. [...] 그 곁에 또 하나의 바위가 서 있어 수백 장이 되는데 이를 <u>燭台峯</u> 이라 했다. 그 아래에 작은 포구가 있는데 <u>船板邱尾</u> 라 한다. 남쪽 바다 가운데에 두 섬이 있는데 소가 누운 모양이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았는데 각각 한편에는 <u>椎竹</u> 이 나 있고 한편으로는 잡초가 나서 썩어 있다. 사람들이 <u>島項</u> 이라 하고 또 한 섬은 <u>竹島</u> 라 한다. 돌레가 십 리쯤 되는데 위험해서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 안으로 포구의 이름이 <u>臥達雄通邱尾</u> 인데 물살이 강해서 배가 동요하기를 표주박을 띄운 것 같아서 극히 조심해야 할 곳이다. [...] <u>죽암</u> 으로 되돌아와 물로 내려 움막을 치고 잠을 잤다.
5월 10일	5월 10일 배를 타고 <u>道方廳浦口</u> 에 도착하니 양쪽 산등성이가 튀어나와 그 안으로 4~5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데 [...] 배 안에 사람이 없기에 물을 두루 살펴보니 <u>竹浦</u> 연변에 판재 18매가 둘러 세워져 있다(일본인들과 조우함). 두동실 떠서 <u>長斫之所</u> 를 지나노라니 해변의 바위산 등성이에 왜인의 표목을 발견하였다. 왜인을 꾸짖은 후 조선인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어서 <u>玄圃</u> 에 이르니 바다 가까이 서 있는 바위가 전부 검은색인데 수면에 비치니 물빛이 모두 검은 색이라. [...] <u>桶邱尾</u> 에 당도하니 [...] 한 작은 섬이 있는데 <u>화암(華岩)</u> 이라 하고 물에 연결되어 바다에 서 있다. 그 안에 두세 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이다. 포구 뒤는 골이 깊고 멀며 물이 흐르고 있고 가기가 극히 곤란한 곳이다. 약간 지나니 <u>谷浦</u> 와 <u>沙汰邱尾</u> 라. 이 두 포구의 <u>基址</u> 는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다. <u>蔘幕洞浦口</u> 에 이르니 포구는 얕고 파도가 닥쳐 배 닿을 가망이 없다. 배를 재촉하여 <u>소황도구미</u> 에 돌아와 하선하다.
5월 11일	출항 - (5월 13일)평해 구산포 도착

이규원의 검찰은 이전의 수토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음)4월 30일~5월 10일까지 11일간 체류하면서 육로와 해로를 거쳐 상세하게 검찰 활동을 하면서 취락과 지명, 가경지, 일본인 체류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지명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한양에서 육로로 원주·평해를 경유하여 구산포에 도착한 것은 4월 27일 이었고, 울릉도로 출항한 것은 29일이었다. 울릉도 서안에 위치한 소항토구미포에 도착한(음)4월 30일부터 5월10일까지 11일 동안 체류하였다. 그중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육로를 통해, 5월 9~10일 양일간은 해로를 이용하여 검찰활동을 수행하였다. 5월 2일 소항토구미에서 출발하여 대항토구미에 이르러 돌무덤을 발견한 후 하룻밤으로 보내고, 다음 날 흑작지에 가서 고분군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배를 이용하여 창우암과 측대암을 보았으며 이곳 일대의 지명이 천년포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인근의 추봉을 본 후 성문과 같은 모양의 바위를 보고 천년포를 지나 왜선창을 거쳐 오대령과 흥문가를 지나 나리동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크고 작은 못을 확인하였고, 중봉 부근에서 밤을 보냈다.

5월 4일에는 성인봉을 거쳐 저포에 다다라 노숙을 하였으며, 5일에는 큰 고개를 지나 장작지포에 이르렀다. 움막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6일에는 준령



그림 8_ 학포 마을, 이규원 판각(2006. 7)

을 넘어 통구미에 다다랐고 이곳에서 노숙하였다. 통구미에서 삼대령과 삼류천을 건너 처음에 도착하였던 소항토구미에 도착하였다. 5월 8일에 황토구미와 통구미에 판각을 새기게 하였다 (그림 8 참조).

5월 9일부터 해로를 이용한 검찰은 향목구미포에서 시작되어 대풍포를 거쳐 현작지를 지나 왜선창에 도착하였다. 계속

이동하여 마늘 모양으로 생긴 봉을 산봉이라 이름하였고, 죽암과 축대암을 확인하였다. 선판구미와 함께 남쪽 바다에 있는 두 개의 섬을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았다. 이 섬 이름이 도항과 죽도임을 확인하였다. 인근에 있는 와달옹통구미를 본 후 죽암으로 되돌아와 숙박하였다.

다음 날 도방청 포구에 도착하여 보니 4~5척의 배가 정박하여 있었고, 죽포 일대에서 일본인들을 만났다. 이후 장작지소를 지나 왜인들의 표목을 발견하였다. 이어 현포·통구미를 거쳐 곡포와 사태구미를 지났다. 삼막동 포구를 거쳐 소황토구미에 돌아와 하선하였다. 다음 날인 5월 11일 출항하여 13일에 구산포에 도착하였다.

〈표 6〉 『검찰일기』(1882)에 나타난 울릉도 거주민 관련 기록

현재 지명	당시 지명과 수록 내용
학포	• 소황토구미: 전라도 홍양 삼도에 거주하는 金載權과 格牽 13명
태하	• 대황토구미: 평해 난파 선주 崔聖瑞와 격졸13명, 경주 출신 7명, 연일 출신 2명
천부	• 왜선창: 전라도 낙안 거주 李敬七과 격졸 20명, 홍양 초도 출신 金謹瑞와 격졸 19명
나리동	• 대구 출신 朴基秀 외 40~50명, 파주 출신 鄭二祐, 함양 출신 金瑞日
사동	• 장작지포: 전라도 홍양 초도 출신 金乃彦 외 격졸 12명
도동	• 도방청 포구: 일본인 일꾼 78명 • 전라도 홍양 삼도 출신 卞敬化 외 격졸 13명
통구미	• 통구미: 전라도 홍양 삼도 출신 金乃允 외 격졸 20명

자료: 김기혁(2006)을 바탕으로 수정.

이규원의 검찰 일기에서는 기존의 수토기와는 다르게 본토 주민들이 들어와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것을 서술하고 있으며, 취락의 규모와 지명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표 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울릉도에 와 있는 조선인이 대략 140명에 달하고 있었으며¹²⁾ 대부분 하호 출신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인들이 78인이 들어와 무단 벌목하고 있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었다.

III. 지명의 위치 비정

수토 기록에 수록된 고지명은 총 51개로 그중 성인봉, 공암, 나리동, 대풍소, 향목정, 저동, 현포 등 10곳 이외의 지명만이 현재 사용되고 있을 뿐 다른 지명은 거의 없어졌다. 수록 지명에 대해 고지도에서 표현된 위치와 현재 지명과의 관계, 수토 경로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비정한 결과는 그림 9와 표 7~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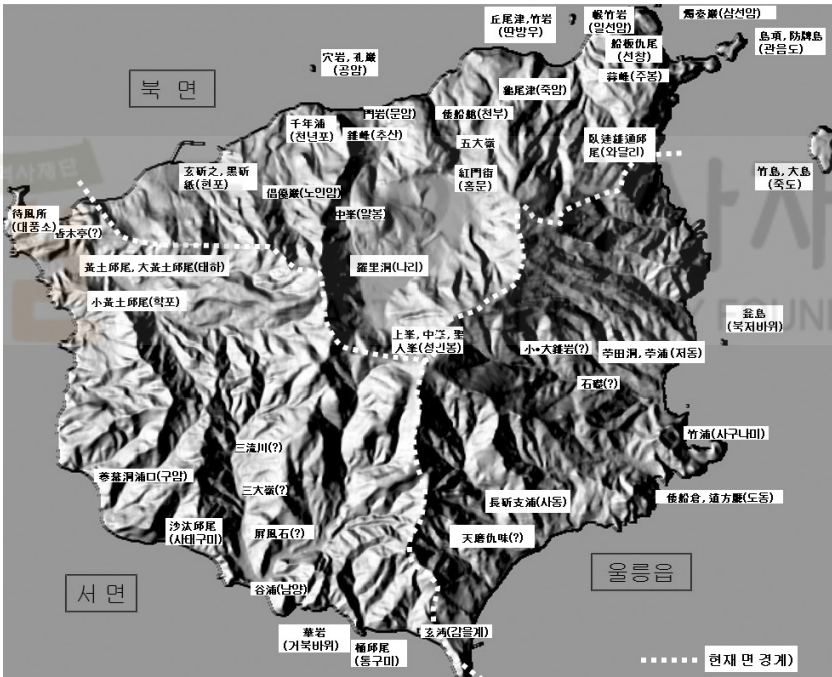


그림 9_ 지명의 위치 비정(괄호 안은 현재 지명)

12) 당시 울릉도 인구 수 추계에 대한 내용은 『울릉도 검찰일기』와 『계초본』에 10호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연구논문마다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울릉읍 일대

울릉읍 일대의 고지명은 표 7과 같다. 취락 지명으로 기록된 ‘도방청’, ‘왜강창’은 도동 일대의 옛지명이다. 사동은 ‘장작지’로, 저동은 ‘저전동’과 ‘저포’로 수토기에 수록되어 있다. 산 지명으로 성인봉은 ‘성인봉’, ‘중봉’으로 기재된다. 상봉은 지도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성인봉 일대의 산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와달옹통구미’는 지금의 와달리 일대로 추정되며, 이곳에서 해구인 가지어가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김창윤과 한창국의 수토기에서 전후 맥락을 볼 때 와달리 일대로 추정되나 「울릉도외도」에 ‘가지도’는 지도의 서쪽 해안에

〈표 7〉 울릉읍 일대 고지명 위치 비정

수토기*	수록 지명	고지도	기재 위치	현재 위치와 지명
(李)	道方廳	「울릉도외도」	동남쪽 해안	울릉읍 도동
(金)	倭舡滄	「해동지도」	동쪽 해안	울릉읍 도동(추정)
(金)·(韓)·(李)	長作之	「울릉도외도」	남쪽 해안	울릉읍 사동
(金)·(韓)	苧田洞	「해동지도」	동쪽 내륙	울릉읍 저동
(李)	苧浦	「울릉도외도」	동쪽 해안	울릉읍 저동
(李)	聖人峰	「울릉도내도」	내륙	울릉읍 성인봉
(韓)·(李)	中峰	「해동지도」	내륙	울릉읍 성인봉
(李)	臥達雄達邱尾	「울릉도외도」	동쪽 해안	울릉읍 와달리
(金)·(韓)	可支島	「울릉도외도」	서쪽 해안(?)	서면 해안 일대(?)
(韓)·(李)	竹島	「울릉도외도」	동쪽 해안	울릉읍 죽도
(金)	上峰	「울릉도외도」	미수록	울릉읍 성인봉
(韓)	瓮島	「울릉도외도」	미수록	울릉읍 북저바위
(李)	竹浦	「울릉도외도」	미수록	울릉읍 사구나미
(金)	天磨仇味	「해동지도」	미수록	울릉읍 간령 부근(추정)
(金)	石礎	「울릉도외도」	미수록	울릉읍 저동 내륙 산지(추정)

* (金) - 김창윤의 「수토기」; (韓) - 한창국의 「수토기」; (李) - 이규원의 『검찰일기』(이하 표 동일)

그러져, 다른 지명으로 추정된다.

‘죽도’는 지금의 죽도이다. ‘옹도’, ‘죽포’, ‘천마구미’, ‘석초’는 고지도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수도 경로의 전후 맥락을 볼 때 각각 지금의 북저바위, 사구나미, 간령 일대, 저동 내륙 일대로 보인다.

2. 서면 일대



그림 10_ 태하동 주토굴의 황토(2006. 7)

서면 일대의 고지명의 현재 위치는 표 8과 같다. 포구 지명으로 『검찰일기』의 ‘곡포’와 ‘현포’ 등은 지금의 남양 골개와 감을계로 보인다. 황토구미는 지금의 태하동 일대로, ‘대황토구미’ 지명이다. 황토구미는

이곳에 형성된 철분이 산화, 형성되어 토양이 붉은 빛을 띠는 황토가 있는 굴에서 기인한 지명이다(그림 10 참조). ‘통구미’는 지금도 사용하는 지명이다.

‘사태구미’는 남양에서 구암으로 넘어가는 해안에 있는 지명으로 지금은 사태감으로 부른다. ‘삼막동포구’는 구암 수층동에서 학포로 넘어가는 곳의 지명으로 지금은 산막 혹은 삼막으로 지칭한다. ‘대풍소’와 ‘향목정’은 섬의 북서쪽에 해안으로 돌출된 지형으로 지금도 사용하는 지명이다.

『검찰일기』에 수록된 ‘화암’은 서면 통구미에 있는 거북바위로 추정된다. 『수도기』에 수록된 ‘병풍석’, ‘삼대령’, ‘삼류천’은 고지도에 수록되어 있지 않

으나 기록의 전후 맥락으로 볼 때 각각 서면 태하 내륙 일대, 주상절리가 발달한 곳과 남양천 일대로 생각된다.

〈표 8〉 서면 일대 고지명 위치 비정

수토기	수록 지명	고지도	기재 위치	현재 위치와 지명
(李)	谷浦	「울릉도외도」	서쪽 해안	서면 남양(골계)
(李)	玄圃	「울릉도외도」	남서쪽 해안	서면 감을계
(金)·(韓)	黃土仇味	「울릉도외도」	북서쪽해안	서면 태하
(李)	大黃土邱尾	「울릉도외도」	북서쪽 해안	서면 태하리
(李)	小黃土邱尾	「울릉도외도」	북서쪽 해안	서면 학포리
(韓)·(李)	桶邱尾	「울릉도외도」	남서쪽 해안	서면 통구미
(李)	沙汰邱尾	「울릉도외도」	서쪽 해안	서면 사태갑
(李)	蓼幕洞浦口	「울릉도외도」	울릉도 서쪽(山幕洞)	서면 구암(추정)
(金)·(李)	待風所	「울릉도외도」	북서쪽 해안	서면 대풍소
(金)·(韓)·(李)	香木亭	「울릉도외도」	북서쪽 해안	서면(학포 - 태하 사이)
(李)	華岩	「울릉도외도」	남서쪽 해안	서면 통구미 거북바위
(韓)	屏風石	「울릉도외도」	미수록	서면 태하
(李)	三大嶺	「울릉도외도」	미수록	서면 비파산 일대 고개
(李)	三流川	「울릉도외도」	미수록	서면 남양천·남서천

3. 북면 일대

〈표 9〉 북면 일대 고지명 위치 비정

수토기	수록 지명	고지도	기재 위치	현재 위치와 지명
(李)	羅里洞	「울릉도외도」	내륙	북면 나리분지
(李)	倭船塢	「울릉도외도」	북쪽 해안	북면 천부리
(金)·(李)	玄斫之	「울릉도도형」	북쪽(玄○龜尾)	북면 현포리
(李)	黑斫之	「울릉도외도」	북쪽 해안	북면 현포리
(李)	船板邱尾	「울릉도외도」	동쪽 해안	북면 천부리 섬목
(李)	蒜峰	「울릉도외도」	북쪽 해안	북면 천부리 두루봉

(金)·(韓)·(李)	錐山	「울릉도외도」	북측 해안(錐峰)	북면 추산
(李)	千年浦	「울릉도외도」	북쪽 해안	북면 천년포
(金)·(韓)	孔巖	「해동지도」	북쪽 내륙	북면 공암
(金)·(韓)	帳竹巖	「울릉도도형」	북동쪽	북면 일선암·삼선암
(李)	燭台岩	「울릉도외도」	북동쪽 해안	북면 일선암
(李)	倡優岩	「울릉도외도」	북쪽 해안	북면 노인봉
(李)	門岩	「울릉도외도」	북쪽 해안	북면 문암(울릉도외도)
(金)	小錐巖	「해동지도」	북쪽 내륙	북면 내륙 산지명
(金)	大錐巖	「해동지도」	북쪽 내륙	북면 내륙 산지명
(李)	島項	「울릉도외도」	북동쪽 해안	북면 섬목(관음도를 착오)
(李)	紅門街	「울릉도외도」	내륙	북면 홍문동
(李)	大池·小池	「울릉도외도」	내륙	북면(주기)
(韓)	丘尾津	「울릉도외도」	미수륙	북면 죽암(추정)
(金)·(韓)	防牌島	「울릉도외도」	미수륙	북면 관음도
(李)	五大嶺	「울릉도외도」	미수륙	북면 천부-나리동 길목
(金)·(韓)·(李)	竹巖	「울릉도외도」	미수륙	북면 탄방위

북면 일대의 고지명은 표 9와 같다. '나리동'은 지금의 나리분지 일대의 지명이다. '왜선창'은 천부, '현작지'는 현포리 일대로 『검찰일기』에서는 '흑작지'로 수록되어 있다. '선판구미'는 지금의 섬목 일대를 일컫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울릉도 현지에서 이 지명은 지금의 내수전의 해안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산봉은 천부리 일대의 두루봉(周峰)을 지칭한다. '추산'은 지금의 추산 일대이다. '천년포'는 지금의 북면 해안의 천부 서쪽에 위치한 깎기등 일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지명이다. 공암은 지금의 코끼리 바위로, 주상절리가 발달하고, 바위에 큰 구멍이 있어 유래된 지명이다. '후죽암'은 지금의 일선암, 삼선암 일대로 시스택(seastack)을 대나무 형상으로 표현한 것에서 기인한다. '축대암'은 일선암을 일컫는다.

'창우암'은 현포리의 노인봉 일대를 지칭한다. 문암은 천년포 부근에서 동

굴 사이로 도로가 뚫려 있는 곳을 지칭한 지명이다(그림 11). 김창윤의 「수토기」에 수록된 ‘대추암’과 ‘소추암’은 『해동지도』에 표현된 것으로 보아 북면 일대의 내륙 산지로 추정된다. ‘조항’은 지금의 섬목 일대



그림 11_ 북면 문암(門岩) 일대(2006. 7)

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당시에는 관음도에 명명된 지명으로 보인다. 고지도에 수록되지 않은 ‘구미진’과 ‘죽암’은 지금의 북면 천부리의 죽암 마을 일대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토기」에 수록된 ‘방패도’는 전후 맥락으로 보았을 때 관음도로 생각된다. 『검찰일기』의 ‘오대령’은 천부에서 나리동으로 올라가는 고개를 일컫는 것이다.

IV. 수토 이동 경로와 부속 도서 지명

1. 이동 경로

수토관들의 경로를 현재 지명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은 표 10~표 12와 같으며 이를 지도화한 것은 그림 11~그림 13이다.

1) 김창윤의 수도 경로

〈표 10〉 김창윤 수도 경로 구성

날짜	경로상의 지명(현재 위치)
4월 29일	(鬱陵島) 上峰(성인봉) → 苧田洞(울릉읍 저동) → 大錐巖(울릉읍 저동 내륙) → 小錐巖(울릉읍 저동 내륙) → 石礎(울릉읍 저동 내륙) → 苧田(註記) → 可支島仇味(울릉읍 와달리 일대)
5월 1일	倭艇滄(울릉읍 도동) → 長作地(울릉읍 사동) → 天磨仇味(현재 간령 부근)
5월 2일	幟竹巖(일선암·삼선암) → 防牌島(관음도)
5월 3일	玄作地(북면 현포리) → 錐山(북면 추산) → 竹巖(북면 천부리 죽암) → 孔巖(북면 공암) → 黃土仇味(서면 태하)
5월 4일	香木亭(서면 향목정) → 待風所(서면 대풍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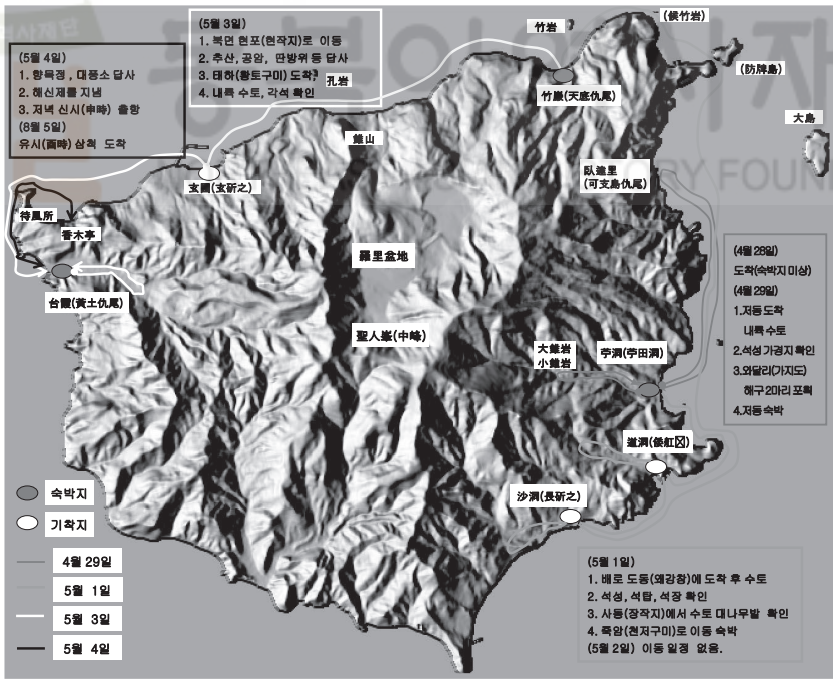


그림 12_ 김창윤의 수도 경로(1786)

김창윤의 수토(1786)는 1697년 수토가 처음 시작된 이래 약 90년이 지난 것으로, 「수토기」 수록 지명은 『해동지도』에 기재된 지명보다 상세하다. 그의 경로는 그림 12와 같다. 4박 5일 중에서 숙박지는 첫날(미상)에는 저동, 북면의 죽암마을[천저구미], 태하동[황토구미]을 택하고 있으며, 경로는 저동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의 수토 경로에서 태하에서 사동에 이르는 지금의 서면 일대인 남서 해안은 대부분 제외되었다. 내륙 수토는 저동, 도동과 태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토 경로를 보면 4월 29일 저동[字田洞]에 도착한 후 일차적으로 한 것이 내륙 수토이다. 기록에서 저동을 ‘主鎮’이라 표현한 것은 이 일대에 주민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거론한 것은 주민이 실제 거주한 것인지, 과거의 흔적을 묘사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같은 날 저동의 북쪽 바다인 와달리 일대에서 해구[可支魚] 두 마리를 총으로 잡았다는 기록은 진상품으로서 해구 가족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와달리 일대에서 해구나 해우(海牛)를 잡았다는 기록은 이후의 한창국 「수토기」나 이규원의 『김찰일기』에서 나타난다.

5월 1일 도동[倭船洞]과 사동에서 수토가 진행되었다. 두 곳에서 모두 배에서 내려 내륙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당시 주민의 거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짧은 일정에서 이틀을 저동과, 도동, 사동에서 지낸 것은 그의 기록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일대가 섬의 중심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날 기록에서 “5월 2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어떤 바위가 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어서 그 모양이 마치 쇠뿔 같았다. 이름이 후죽암(지금의 삼선암)이라 하였다. 그 동쪽에 방패도(防牌島)가 있는데 큰섬[大島]과 거리가 3리쯤 떨어져 있었다”는 기록은, 지금의 일선암, 삼선암, 관음암과 죽도 일대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5월 3일에는 북쪽 해안을 따라 수토가 진행되었다. 공암, 추산에 대해 “추산(錐山)은 산의 형태가 기이하였으며, 일선암(竹巖)은 양쪽 바위가 우뚝 서서 모양이 마치 대나무 같았다. 가까이에 코끼리바위(乳巖)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작은 배가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여 해안 가까이에 있는 기암괴석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고분군이 있었던 현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현포에 가는 길’이라 하여 이곳에서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항토구미에 도착하여 내륙을 조사하여 농경지를 확인하고, 이튿날 가까이에 있는 대풍소와 향목정을 수토하였다는 기록은 지금의 태하 일대가 섬의 중심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계곡에 있는 수토관들의 판각은 이곳이 수토 경로에서 필수 코스였음을 보여준다.

2) 한창국의 이등 경로

〈표 11〉 한창국 수토 경로 구성

날짜	지명(현재 지명)
4월 22일	黃土丘尾津(서면 태하) → 中峰(성인봉) → 黃土丘尾窟(서면 태하) → 屏風石(서면 태하 내륙) → 杳木亭(서면 향목정)
4월 23일	일정 없음
4월 24일	桶丘尾津(서면 통구미)
4월 25일	長作地浦(울릉읍 사동) → 楮田洞(울릉읍 저동) → 防牌島(울릉읍 관음도) → 竹島(울릉읍 죽도) → 瓮島(울릉읍 북저바위)
4월 26일	可支島(울릉읍 와달리 부근) → 丘尾津(죽암) → 竹巖(북면 판바위) → 幘布巖(북면 일선암 · 삼선암) → 孔巖(북면 공암) → 錐山(북면 추산) → 桶丘尾(울릉읍 통구미)

한창국의 수토(1794)는 기간은 4박 5일로 김창윤과 동일하나 경로가 다르게 진행되었다. 즉 김창윤이 서면 일대를 제외한 반면 한창국은 전 해안을 일주

하면서 수토를 진행하였다. 그의 수토는 지금의 태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저동과 통구미에서 각 1박을 하였으며 출항지는 통구미이다. 내륙을 수토한 곳은 태하 일대, 통구미, 저동, 죽암 일대이며, 도동 내륙의 수토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표 11 및 그림 13 참조).

경로를 보면 태하(黃土丘尾津)에서 성인봉을 따라 올라가면서 60여 마지기의 논농사가 가능한 곳을 확인하였고, 이어 황토굴과 병풍석, 향목정 일대를 답사하였다. 그날 밤 태하에서 숙박한 후 23일은 별 이동 경로 없이 휴식을 취한 듯하다. 24일 배를 이용하여 통구미(桶丘尾)로 이동한 후 내륙을 수토한 후 숙박하였고, 25일 사동(長作地浦)에서 조정에 진상할 대나무를 확보하였다. 이어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저동(茅田洞)으로 이동하여 내륙을 수토한 후 수 마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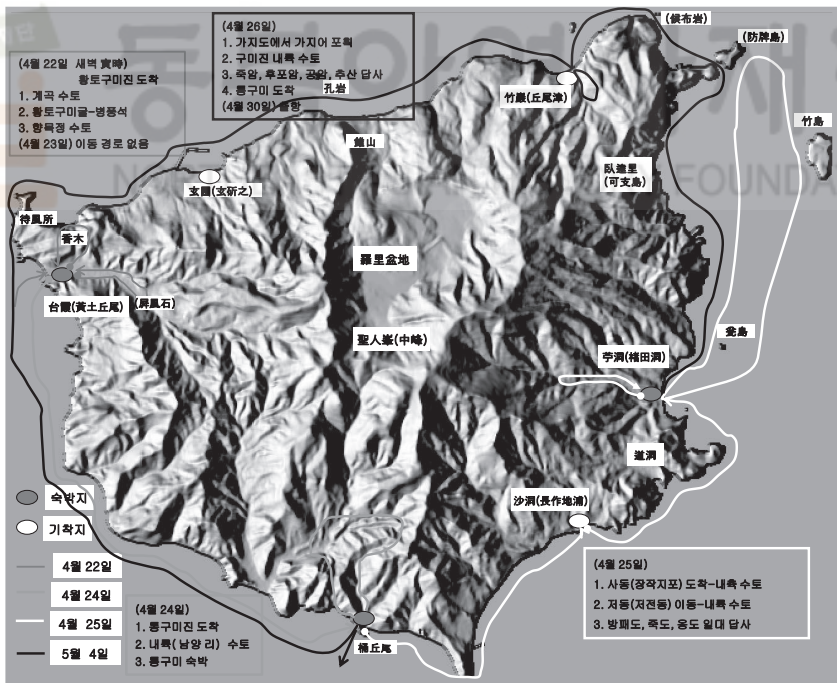


그림 13_ 한창국 수토 경로(1794)

의 평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동의 앞바다에 있는 관음도[防牌島], 죽도(竹島), 북저바위(瓮島)를 확인하였고, 섬 간의 거리가 100여 보에 불과함을 확인하였다.

저동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인 26일에 와달리 부근[可支島]에서 해구[可支魚] 두 마리를 포획하고, 죽암 마을[구미진]에서 내륙을 수토하였다. 북쪽 해안을 돌면서 인근의 일선암, 삼선암[候布巖], 코끼리바위, 추산을 둘러보고 섬을 돌아서 통구미로 돌아온 여정을 보인다.

그는 기록의 마무리에서 “섬의 규모를 둘러보니 대략 남북이 70~80리, 동서 50~60리가 되었다. 사면이 층암절벽으로 골짜기에 집터가 남아 있었고, 수백 마지기의 밭의 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라 하여 섬의 크기를 기록하였다. 한창국의 일정은 섬을 일주하고, 지명에서 ‘죽도’, ‘옹도’, ‘병풍석’, ‘통구미’ 지명이 추가된 것 외에는 김창윤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수토기에서 가장 큰 평지인 내륙의 나리분지 일대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3) 이규원의 검찰 경로

이규원의 울릉도에서의 검찰활동(1882)은 이전의 수토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즉 이전의 수토가 주민쇄환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에 비하면, 이규원의 검찰은 울릉도 개척령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전의 조사와는 달리 내륙에서 비교적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전의 「수토기」에서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데 반해 『검찰일기』에서는 조선인 거주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전의 수토가 4박 5일의 짧은 일정에서 진행된 반면, 이규원의 검찰 기간

은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12일간이다. 그중 5월 2일부터 7일까지의 6일간은 육로를 통해, 9~10일은 해로를 통해 검찰활동을 수행하였고 경로의 중심은 지금의 서면 학포[小大黃土邱尾]이다.

이규원 검찰사 일행의 경로와 이를 지도로 표현한 것은 표 12, 그림 14와 같다. 4월 29일 울진 기성면 구산동에서 출항한 검찰 일행은 4월 30일 오후 6시경에 서면 학포리 포구[小黃土邱尾]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이곳에 조선인 23명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튿날인 5월 1일에는 산신당에 제사를 지내고 배를 정비하였다.

〈표 12〉 이규원의 검찰 경로 구성

	날짜	지명(현재 위치)
육로	4월 30일	小黃土邱尾(서면 학포리)
	5월 1일	(이동 경로 없음)
	5월 2일	大黃土邱尾(서면 태하리)
	5월 3일	黑斫支(북면 현포리) → 倡優岩(북면 노인봉) → 燭台岩(북면 현포리 촛대봉) → 千年浦(북면 천년포) → 錐峰(북면 추산) → 門岩(북면 문암) → 倭船艙(북면 천부리) → 五大嶺(천부 → 나리동 가는 길목) → 紅門街(북면 홍문동) → 羅里洞(북면 나리분지) → 大池·小池(註記) → 中峰(성인봉)
	5월 4일	聖人峰(성인봉) → 苧浦(울릉읍 저동)
	5월 5일	長斫支浦(울릉읍 사동)
	5월 6일	桶邱尾(서면 통구미)
	5월 7일	三大嶺(서면 비파산 일대 고개) → 三流川(남양천·남서천)
	5월 8일	(이동경로 없음)
해로	5월 9일	香木邱尾浦(서면 학포 → 태하) → 待風邱尾(서면 향목정일대 대풍감) → 玄斫支(북면 현포리) → 倭船艙(북면 천부리) → 蒜峰(북면 두루봉) → 竹岩(북면 탄바위) → 燭台岩(북면 일선암) → 船板邱尾(북면 선창) → 島項(북면 관음도) → 竹島(울릉읍 죽도) → 臥達雄達邱尾(울릉읍 와달리)
	5월 10일	道方廳(울릉읍 도동) → 長斫之浦(울릉읍 사동) → 玄圃(서면 감을계) → 桶邱尾(서면 통구미) → 華岩(서면 통구미 거북바위) → 谷浦(서면 남양골개) → 沙汰邱尾(서면 사태감) → 蔘幕洞浦口(서면 산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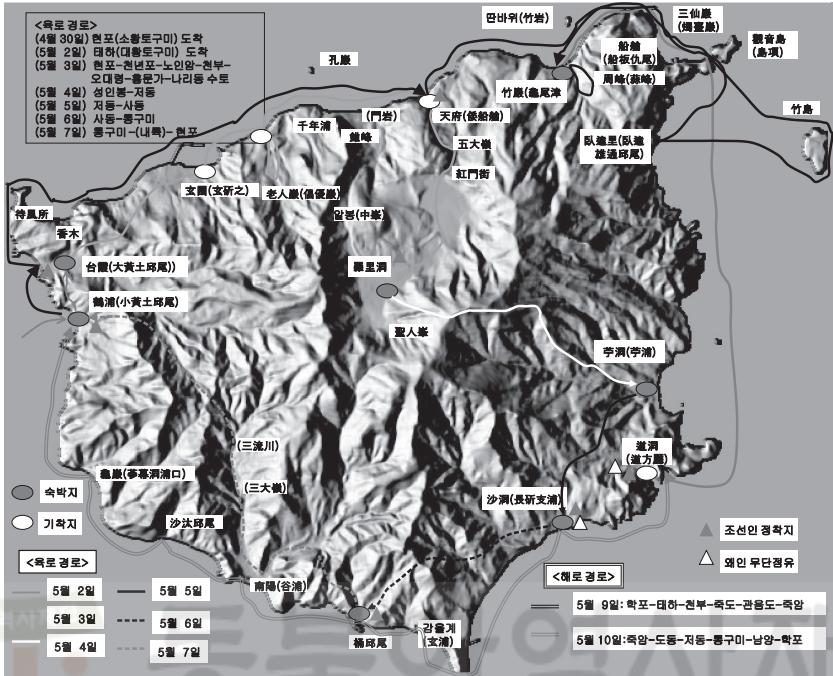


그림 14_ 이규원의 검찰 경로(1882)

육로를 이용한 이규원은 이곳에서 출발하여 태하(大黃土邱尾)를 거쳐 하룻밤을 자고 현포(黑新支)로 이동하여 고분과 개간할 수 있는 평지를 확인하였다. 북쪽 해안을 거치면서 노인봉(倡優巖), 촉대암(燭台巖), 천년포(千年浦), 추봉(錐山), 문암(門巖)을 설명하고 있다.

천부(倭船館)에서 내륙으로 향하여 오르막 고개길(五大嶺)을 지나 홍문등(紅門街)을 거쳐 나리동(羅里洞)으로 이동하였다. 계속 산지를 거쳐 알봉(中峰) 쪽으로 이동한 후 이곳에서 숙박을 하였다. 지금의 알봉은 중봉이라 표현하여 이전과는 다른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성인봉(聖人峰)을 지나 저동(淨洞)으로 이동하여, 대저포(大淨浦), 소저포(小淨浦) 두 곳에 마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인봉' 지명이 처음 등장한다. 그의 육로 일정에서 태하→성인봉→저동으로 이어지는 것

은 이 경로가 당시 태하와 저동을 잇는 통로였음을 보여준다.

저동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5일 도동을 거치지 않고 남쪽 해안의 사동[長硯
洞]으로 이동하였고, 6일에는 사동에서 통구미로 이동하여 노숙을 하면서 고
생을 하였다. 다음 날 7일에 남양동을 거쳐 처음 출발 지점인 학포[小黃土邱尾]에
도착하여 6일 동안의 육로 여정을 기록하였다. 기록에서 “소황토구미로부터
중심인 나리동을 지나 동쪽 저포에 이르기까지 대략 60여 리이고, 북쪽 왜선
창에서 나리동을 지나 남쪽 통구미까지 대략 50리였다. 사람이 사는 곳은 나
리동 하나뿐이었으나 수천 호(戶)가 살 만하다”라는 내용은 그가 중간에 주민
을 만나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록으로, 이는 개척령 반포를 염두
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루를 쉬고 5월 9일에는 배를 이용하여 학포를 출항하여 태하[大黃土邱尾]에
잠시 정박한 후 대풍포(待風浦), 현포[玄斫支]로 이동하였다. 천부[倭船舖]를 거쳐 현
재의 두루봉이 마늘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蒜峰’이라 명명하였고 탄바위[竹岩]
를 수도하였다. 일선암, 삼선암을 보고 형제 같다 하였고 인근 선창 마을[船板邱
尾]에서 취락과 벌목 흔적을 확인하였다. 배로 관음도와 죽도에 접근하였으나
오르지 못하였다. 그 남쪽의 와달리 일대[臥達雄通邱尾]에서 해구 서식지를 확인
하였다. 기상이 좋지 않아 죽암(竹巖)으로 돌아와 움막을 치고 숙박하였다.

이튿날 10일 도동(道方廳)으로 이동하여 일본인 78명이 체류하고 있음을 알
게 되었고,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시켰다. 포구에서 조선인 13명이 거
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동(長硯支浦)을 지나면서 잠시 정박하여 일본인들
이 세운 표목을 보았고 감을계(玄浦) 부근에도 해구가 서식하고 있음을 보았
다.¹³⁾ 통구미를 검찰하면서 해안에 있는 거북바위(華岩) 일대에 배 2~3척의 접

13) 『울릉도외도』의 이곳 일대에 ‘可支島’ 지명이 기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남양 포구[谷浦¹⁴]와 구암 마을[沙汰邱尾]은 포구 마을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산막동 마을[山幕洞浦口]에 이르렀으나 물이 얇고 파도가 심해 배가 편안히 정박할 곳이 못되었다. 학포[小黃土邱尾]로 이동하여 마지막 밤을 보냈다.

2. 부속 도서의 표상

그림 15는 앞서 소개된 「강원도 지도」 중 울릉도를 확대한 부분도이다. 이 지도에서 부속 도서로서 남쪽에 세 개의 섬이 그려져 있고 그중 우측의 섬은 산줄기가 그려져 있어 다른 섬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큰 섬임을 보여준다. 울릉도 동쪽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이 묘사되어 있고, ‘우산’ 지명이 기



그림 15_ 「강원도지도」 중 울릉도 부분도(해정박물관)

14) 『검찰일기』에는 ‘洞浦’로 「울릉도외도」에는 ‘谷浦’로 수록되어 있다.

재되어 있다. 이 지도가 20리 방안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울릉도에서 우산도까지의 거리는 약 40리로 앞의 『조선지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조선지도』와 『해동지도』, 수도 지도에서 섬이 우산도 외에 다섯 개의 섬이 그려진 것과는 달리 이 지도에서는 우산도를 제외하고 세 개의 섬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울릉도 부속 도서의 지리 정보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지금의 ‘죽도’에 대해 형성한 당시의 표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도 기록에서 김창윤은 이 섬에 대해 ‘大島’라 지칭하면서 “防牌島(지금의 관음도)와 3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록에서의 ‘대도(大島)’ 용어가 ‘섬이 크다’는 의미의 주기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대섬’ 지명을 한자로 ‘大島’로 표기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당시 이 섬이 ‘대섬’ 혹은 ‘댓섬’으로 불렸고, 이를 음(音)을 빌려 ‘大島’로 표현하였고, 다른 기록에서는 훈(訓)을 빌려 ‘죽도(竹島)’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한창국의 수도 경로에서는 ‘저동 앞에 세 곳의 섬이 있는데, 북쪽의 것은 방패도, 가운데의 것은 죽도, 동쪽의 것은 옹도’라 하여 지금의 관음도, 죽도, 주도(胄島)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울릉도 섬의 숫자는 「강원도지도」에서 표현된 내용과 일치한다. 이 기록은 당시에 이 섬의 지명을 ‘죽도’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두 기록의 시기 차이가 8년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동일한 섬에 대해 대도, 혹은 죽도로 표현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우리나라의 언어 환경 때문이다. 이규원의 『검찰일기』에서도 이 섬에 대해 관음도(島項)와 비교 설명하면서 죽도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 기록의 내용을 볼 때 지금의 죽도는 당시에 지금과 동일하게 ‘죽도’(혹은 ‘대도’)로 불렸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지도에서 울릉도 연안에 있는 가장 큰 섬인 죽도를 섬의 동남쪽에 가장 크게 묘사한 것이다.

V. 맺음말과 논의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울릉도에서 이루어진 수토 기록의 고지명(古地名)을 통해 고지도에 표현된 지리 정보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토 경로에서 확인하였고, 각 장소에 대한 수토관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부속 도서에 대한 인식 내용과 지명을 확인하였다. 고지명의 현재 위치는 고지도, 현대 지도와 함께 현지답사를 통해 비정하였다.

조선 후기에 2~3년 간격으로 실시된 수토의 경로는 내륙보다는 해안 위주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동, 사동, 도동 등의 동쪽 해안 일대 포구의 내륙과 태하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북면 천부리의 일선암, 관음도 일대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규원의 검찰활동은 개척령 반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로나, 조사 내용 등이 이전의 정기적인 수토보다 세밀한 지역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전의 수토와는 달리 육로를 이용한 내륙 조사가 중심이 되었다. 조사 초기에 나리분지를 탐험한 것은 이곳의 개척 가능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활동 후 별도로 나리분지를 상세하게 그린 지도를 제작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해로를 통한 검찰 중 도동에서 조우한 일본인과의 상세한 문답 내용은 당시 조선 강역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각 포구마다 당시 취락의 호구 수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고, 선박의 접안 가능 여부를 기술한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반복된 수토와 검찰 등의 탐험을 통해 「수토기」와 고지도에 수록되는 지명은 시기가 지날수록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다. 「수토기」의 기록에서 볼 때 지금의 죽도는 당시에 ‘죽도’ 혹은 ‘대도’로 불렸음이 확인되었다. 고지도에서 부속도서의 내용을 보면 박석창의 지도와 『해동지도』는 동일하게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여섯 곳의 섬을 그리면서, 그중 동쪽의 섬에 ‘소위우산

도로 지명을 기재하고 있다. 20리 방안 군현지도인 『조선지도』에서는 섬의 숫자는 앞의 지도와 동일하나 동쪽 30~40리 떨어진 곳에 우산도를 두 개의 봉우리와 함께 표현하고 있다. 『조선지도』를 바탕으로 그려진 「강원도지도」에서는 섬의 숫자가 이전의 지도와는 달리 다섯 곳에서 세 곳에 묘사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 섬의 숫자는 수토 기록과 일치하며, 실제의 지리 정보와도 거의 동일하다. 수토를 통해 울릉도 부속 도서에 대한 표상이 점차 정확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선시대 수토관들은 우산도가 그들이 경험한 죽도와는 별개의 섬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우산도’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토기」에 지명을 수록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지도에서는 ‘所謂于山島’라고 묘사한 것이다. 이후 반복되는 수토로 우산도의 지리적인 정체성이 확인되면서 울릉도 동쪽의 30~40리 되는 지점에 묘사한 것이다. 이는 고지도에서 ‘우산도’ 지명이 지칭하는 섬은 지금의 죽도가 아니라 별개의 섬인 지금 독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울릉도 주민들이 돌섬 혹은 독섬으로 부르던 이 섬의 존재를 중앙 조정에서 실체로서 인정하기 위해 지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의 울릉도에 ‘울릉’ 지명을 고착시키고, 지리적인 정체성이 확인된 이 섬을 ‘于山’으로 명명하고 이를 지도에 묘사한 것이다.

‘우산’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 강역의 동단을 상징하는 역사 지명이었다. 지리적인 실체가 확인된 독도를 지도에 묘사하고, 조정에서 이 지명을 사용한 것은, 장소에 대한 명명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조선 강역의 범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규장각소장)「울릉도도형」, 『해동지도』, 『조선지도』, 「울릉도내도」, 「울릉도외도」
(국립중앙도서관소장)「울릉도도형」
『조선왕조실록』, 『울릉도사적』, 『울릉도검찰일기』, 『울릉군지』

국토지리정보원(2009), 『한국지도학발달사』

김기혁(2005), 『영남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김기혁 외(2005), 『대구·경상북도 시군별 고지도; 1권-8권 중 울릉도·독도편』,
부산지리연구소

김기혁(2006), 「조선-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김기혁·윤용출(2006),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기혁(2009), 「조선 후기 고지도에 나타난 '우산도(于山島)' 지명 연구」, 『독도관련
자료해제집』, 국립중앙도서관

김호동(2004), 「개항기 울릉도 개척정책과 이주실태」, 『대구사학』, 77

노나카 이쿠지로 저, 나상역 역(2009), 『노나카의 지식경영』, 21세기북스

송병기(1985), 「고종조의 울릉도·독도 경영」, 『독도연구』

송병기(1999), 「조선후기의 울릉도 경영: 수토제도의 확립」, 『진단학보』 86

쇼펜하우어 저, 권기철 역(2008),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동서문화사

유미림(2007), 『「울릉도」와 「울릉도사적」 역주 및 관련 기록의 비교연구』,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이선근(1963), 「근세 울릉도문제와 검찰사 이규원의 탐험성과」, 『대동문화연구』 1

이현종(1985), 「조선시대 울릉도·독도 경영」, 『독도연구』

이혜은·이형근(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용복 사건의 무대

17세기 돛토리번과 오키국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최은석



I. 머리말

II. 돛토리번의 행정체제

III. 돛토리번 요나고-아라오 가문의 독자적 지배

IV. 오키의 행정체제

V. 동해의 고도(孤島)와 17세기 일본

V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은석

일본사 전공,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연구원

대표논저로는 「근세 후기 관동 지역 소도시의 사회 집단에 관하여-무사시노 쿠니 코시가야(武藏國越谷)의 본백성(本百姓)을 중심으로」(2008, 『日本歴史研究』 27), 「재해와 도시사회-1855년 대지진과 에도」(2010, 『일본공간』 7) 등이 있다.

안용복 사건의 무대

17세기 돛토리번과 오키국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최은석

I. 머리말

한국의 독도 영유권 확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1693년과 1696년, 안용복의 두 차례 도일이 있다. 이에 관한 진술은 이미 대중적으로도 널리 유포되어 있어 도해 사실과 안용복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안용복이 마주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생각 이상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을까?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된다. 안용복은 처음에 오키섬에 닿아 현지 주민들과 행정 역인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막부 직할지인 이와미국에 전해지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문제가 됨으로써 돛토리와 오키, 쓰시마를 오가는 복잡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죽도도해금지령으로 귀결되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지만, 이와 같은 금령을 낳은 당시 일본의 국내 상황과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

는 문제다.

본고에서는 안용복 사건에 관계된 각 행위자, 즉 돛토리번, 돛토리번 내 요나고, 그리고 오키국의 17세기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맥락 안에서 안용복 사건, 그중에서도 제2차 도일 당시의 일본 내부의 논의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돛토리번과 번 내 요나고의 행정체제를 살피고, 그다음으로 17세기 오키의 복잡한 변천과정과 행정체제를 살핀 다음 마지막으로 당시 여러 행위자 간에 복잡하게 오간 서신의 모음인 『죽도지서부』를 살피기로 한다. 이를 통해 외로이 바다를 건너 이국 땅에 들어간 안용복을 둘러싸고 있던 그네들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한다.

II. 돛토리번의 행정체제

1. ‘구니카에’ – 돛토리번과 오키야마번의 영지 교체

돛토리번의 역사에서는 ‘구니카에(國替)’가 주요한 전환점이 된다 ‘구니’란 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 경우에는 물론 돛토리번을 가리킨다. ‘카에’라는 것은 교체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서는 교환의 의미에 가깝다. 즉, ‘구니카에’란 것은 번을 바꾼다, 교환한다는 뜻이다. 돛토리번의 역사에서 ‘구니카에’란 간단히 말하자면 1632년에 돛토리 성주 이케다 미쓰마사(池田光政)가 비젠 오키야마(備前岡山)를 통치할 것을 막부로부터 명받은 사건이다. 돛토리번에서 오키야마번으로 통치 영역을 교체했다는 뜻이다. 그 뒤, 미쓰마사를 대신해서 돛토리를 다스리게 된 이는 오키야마번의 이케다 미쓰나카(池田光仲)이다. 이렇게 해서 돛토리로 오게 된 미쓰나카 때부터의 돛토리번 영주를 ‘돛토리 이케

다 가문[鳥取池田家]이라 부른다.

1632년 4월 30일에 마쓰다이라 다다카쓰[松平忠雄, 1602~1632]가 불과 서른 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면서 돗토리번과 오카야마번의 '구니카에'가 시작되었다. 다다카쓰의 후계자 가쓰고로[勝五郎], 즉 이케다 미쓰나카는 당시 겨우 세 살에 지나지 않았다. 가신들은 새 주인이 될 미쓰나카가 너무 어려서 오카야마번의 후계가 막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막부에 가독의 상속을 인정해 줄 것을 탄원했다. 하지만 막부는 가독의 상속을 인정하는 대신에 다른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이 곧, 미쓰나카를 돗토리 영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즉 6월 18일에 막부는, “비젠은 ‘선봉에 선 구니[手先の國]’이므로 어린 나이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쓰나카 즉 가쓰고로를 이나바와 호키 두 ‘구니’의 영주로 명했다.¹⁾ “선봉에 선 ‘구니’”는 다른 사료에는 “서국(西國)의 요충지[要樞之地]”라는 표현으로도 묘사된다.²⁾ 도쿠가와 막부에게, 오카야마번이 서일본 지역의 통치에 군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땅이라는 뜻이다.

1632년이란 시점은 도쿠가와막부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이 해에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가 숨을 거두고 1623년에 쇼군으로 즉위한 제3대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 제3대 쇼군의 통치 시기는 흔히 개역(改易), 즉 여러 다이묘의 영지 교체와 심지어는 폐문으로 특징지어진다. 달리 말하자면 도쿠가와와 권력이 비로소 굳혀지기 시작한 시기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도쿠가와와 권력이 여전히 일본 각지의 도전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라는

1) 『池田家履歷略記』

2) 『因府錄』

말이 된다. 실제로 5년 뒤인 1637년에는 이른바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亂)이 규슈에서 일어나 에도에서 군사가 현지로 출동하여 2년에 걸친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서, 겨우 세 살밖에 안 된 이케다 미쓰나카를, 서일본의 요충지이자 교토, 오사카에 근접한 오카야마의 영주로 앉힌다는 것은 막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이었을 것이다. 가신들이 가독 상속의 불인정을 우려한 것은 당연했다 할 수 있다.

7월 2일부터는 돗토리과 오카야마의 두 이케다 가문의 가신들에게 영지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석고(石高) 1석당 말 1필, 인부 1명씩을 내어 이를 예정으로 운송에 임하게 할 것과 번 내의 기존의 체무 관계를 청산하고 영지 교체에 임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단,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돗토리의 이케다 미쓰마사에게는 이를, 오카야마의 이케다 미쓰나카에게는 사흘이 주어졌다. 이는, 돗토리 측에 이번의 영지 교체 결정이 이미 5월에 전해졌던 데 연유한다. 돗토리의 이케다 미쓰마사 측으로서는 그간 영지 교체에 임할 준비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으로, 가신들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모두 거주를 옮길 것을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돗토리로 옮겨간 가신들은 영내의 사원과 민가에까지 머물며 이전 작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돗토리번의 지배가 돗토리 이케다 가문, 특히 그 초대 번주인 이케다 미쓰나카를 중심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후술하듯이 아라오 등 주요 가로(家老) 가문의 역할이 다이묘 가독 상속에서 공을 올렸으며, 이들의 권위와 권한을 강화시켜서 번 내의 각 영지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 즉 자분정치(自分政治)를 낳게 되었다. 안용복 사건과 관련이 깊은 요나고 또한 이러한 자분정치의 중심 핵 중 하나였는데, 그 전에 돗토리번의 중앙 직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2. 돗토리번의 영지 구조

에도시대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돗토리번 또한 영국 내를 크게 정방(町方)과 재방(在方)으로 구분했다.³⁾ 정은 일본어로 '마치'라고 읽으며 도시적인 공간을 가리킨다. 보통은 길을 따라 가옥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다. 한편 재는 '자이'라고 읽으며 '자이카타' 즉 농촌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정방은 대체로 도시부로, 재방은 농촌부로 이해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 중 정방에는 정봉행(町奉行)를 두어 다스리게 하는 것이 에도시대의 일반적인 예이며 돗토리번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정봉행이 다스리는 관할 지역, 즉 돗토리번의 주요 도시로는 돗토리[鳥取], 요나고[米子], 구라요시[倉吉], 마쓰자키[松崎], 아하시[八橋]의 다섯 군데를 들 수 있으며, 1842년에는 여기에 우라토미[浦富]가 추가되었다.⁴⁾ 이들 지역 외는 모두 농촌부, 즉 재방으로 파악된 것이다. 물론 에도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농촌부 속에서 처음에 번이 위로부터 설정한 도시부 이외의 자율적으로 생성된 도시들이 생겨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부에서 아래로부터 생겨난 도시적인 공간을 보통은 재정(在町) 혹은 재향정(在郷町)이라 한다.

재방의 행정체제를 살펴보자. 먼저 재방을 담당하는 번의 직제로는 군대, 군봉행, 대관, 소물성봉행, 산봉행 등이 있으며 이들을 재방역인(在方役人)이라 했다. 이에 대해 각 촌(村)에는 장옥(庄屋), 연기(年寄), 조두(組頭)가 촌의 통치를 담당했으며 이들을 촌역인(村役人)이라 불렀다. 번의 무사들로 구성된 재방역인과

3) 町에는 '쵸'와 '마치'의 두 가지 발음이 있다. '쵸'라고 읽을 때는 현대의 블록에 상당하는, 거주지의 작은 구획을 가리키며 현대 일본의 丁目에 해당된다. 반면 '마치'라 읽을 때는 이러한 '쵸'의 집단을 가리킨다. 현대의 도시 개념에 상응한다 할 수 있다.

4) 『鳥取縣史』 제3권 225쪽

각 촌의 백성들로 구성된 촌역인 사이에는, 이 또한 백성으로 구성된 군(郡)의 역인들이 있었다. 이들을 군역인(郡役人)이라 불렀는데, 대장옥(大庄屋), 종지장옥(宗旨庄屋), 조두장옥(組頭庄屋)이 있었다.⁵⁾

3. 돛토리번의 행정체제

다른 여러 번과 마찬가지로 돛토리번에서도 번의 정치, 행정의 중심은 번주이고 이를 보좌하는 중신들, 즉 가로가 있어서 정치의 중추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정(軍政)을 기반으로 한 번의 정치가 점차 일반 행정조직으로 옮겨 가면서 다른 번과는 다른 양상을 노정하기도 했다.

먼저 초기의 번정 조직은, 번주 미쓰나카가 어렸던 까닭에 가로 네 명 중 한 명이 에도에서 번주를 섬기고 나머지 세 명은 돛토리에 머물며 정사를 돌보았다. 그 밑으로, 정봉행(町奉行)이 두 명, 사치중(仕置衆)이 열 명, 군봉행(郡奉行)이 약간 명, 그리고 대관 32명이 행정을 맡아 보았다. 그 외에 따라 횡목중(横目衆=目付)이 번주의 눈과 귀가 되어 치안경찰 업무를 맡았다. 초기 번정에 관한 한, 이와 같은 번주 직속의 역목이나 여타 감정봉행 등에 관해서는 그 상세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 각각의 역직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로
- 용인(用人)
- 목부(目付)
- 군대(郡代)=사치중(仕置衆)
- 군봉행(郡奉行)

5) 『鳥取縣史』 제3권 224~225쪽

- 대관(代官)
- 대관두(代官頭)
- 소물성봉행(小物成奉行)
- 재음미역(在吟味役)
- 산봉행(山奉行)
- 정봉행(町奉行)
- 사사봉행(寺社奉行)
- 원체역(元締役)
- 감정두(勘定頭)
- 이판역(裏判役)
- 보청봉행(普請奉行)
- 어선수(御船手)
- 어선두(御船頭)

그런데 에도시대에는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의 역직이 사법과 행정 모두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돛토리번 또한 여기서 예외는 아니어서, 가로와 목부가 다이묘 가문 내의 문제를, 군대와 군봉행이 재방의 문제를, 그리고 정봉행 등이 정방의 문제를 통괄해서 처리했다. 다만 몇 가지 구분이 있긴 했는데, 먼저 처리 대상이 무사일 경우 그 격식의 고하에 따라 사분(士分) 이상은 목부, 도사(徒士) 이하는 정목부(町目付)의 관할이었으며, 일반인에 연관된 문제일 경우 민사 관련 사항은 재방과 정방 각각의 역인이 담당하되 형사 관련 사항은 목부 측의 역인이 맡아보았다.

III. 돗토리번 요나고-아라오 가문의 독자적 지배

1. 아라오 가문에 대해

아라오 가문은 오다 노부나가 시대로부터 그 연혁이 확인되며, 전국시대 말기에 기다성[木田城, 현재의 아이치현 도카이시 소재] 성주로 있던 아라오 요시쓰구[荒尾善次]의 두 명의 손자, 나리토시[成利]와 다카나리[嵩就]가 이케다 가문의 영지 교체와 더불어 각각 요나고와 구라요시에 근거지를 마련함으로써 훗날의 요나고 아라오 가문과 구라요시 아라오 가문의 터를 닦게 된다. 이때까지의 연혁을, 1749년에 막부 순견사의 질문에 대해 아라오 가문 스스로가 대답한 내용을 빌려 서술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케다 가문을 대대로 모셔온 가신은 아닙니다. 선조 아라오 이즈모 노카미 아키요시[荒尾出雲守空善], 선조 미마사카노카미[美作守] 요시쓰구, 선조 미마사카노카미 요시히사[善久], 선조 다지마노카미 나리후사[但馬守成房]는 대대로 오와리국[尾張國] 기다성의 성주였습니다. 이케다 가문의 선조 기이노카미 노부테루[紀伊守信輝]의 부인은 저희 선조 요시쓰구의 딸이었습니다. 가쓰이리[勝入=池田恒興]의 적자 이케다 산자에몬노조 참의 데루마사[池田三左衛門尉參議輝政]는 저희 조상 나리후사의 조카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그 뒤 데루마사의 객분(客分)이 되어 1만 석 하리마[番州] 다쓰노[龍野] 성주가 되었습니다. 그 뒤 5천 석을 더 받아, 로세이인[良正院]께서 돌아가신 뒤에 사에몬노조 다다쓰구[左衛門尉忠繼]께서 더한층 의견을 청함에, 갖가지 일에 의견을 아뢰라고 권현님[權現様]께서 내밀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니 삼가 받들었습니다. 정무를 대신하고 있던바, 얼마 안 가 사에몬노조가 요절하시었고 궁내소보(宮內少輔) 이레 대대로 장신(長臣)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영지는 사가미노카미 미쓰나카[相模守光伸]께서 주신 것입니다.⁶⁾

아라오 가문의 선조가 전국시대에 기다성 성주로 있었다는 내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전국시대 말기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아라오 가문이 이케다 가문의 외척이었음을 말해 준다. 본문 중의 기이노카미 이케다 노부테루, 가쓰이리는 모두 이케다 쓰네오키(1536~1584)의 다른 이름인데 그 처는 아라오 요시쓰구의 딸이었고, 이케다 쓰네오키의 적자 이케다 테루마사(1565~1613)는 아라오 요시후사의 여식과 쓰네오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이 테루마사 때에 아라오 가문은 객분 취급을 받아 1만 석 규모의 성주가 되었고 이는 나중에 1만 5천 석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료세이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둘째 딸이자 1599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매로 테루마사와 결혼한 도쿠히메(督姫, 1565~1615, 2, 4)를 가리킨다. 아라오 가문이 객분 취급을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이 결혼으로 인해 외척의 지위를 상실했음을 언급한 것일 것이다. 도쿠히메가 낳은 자식 중 둘째가 사에몬노조 다다쓰구 즉 이케다 다다쓰구(池田忠繼, 1599~1615)인데, 그는 히메지성의 영주로 있다가 테루마사가 사망한 뒤에 비로소 오카야마로 와서 번주가 되었다. 본문에서는 아라오 가문이 정무에 의견을 말하고 이를 대신하기까지 한 시기로 도쿠히메의 사망 이후를 들고 있는데, 그녀는 1615년 2월 4일에 세상을 떠났다. 다다쓰구도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23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다다쓰구의 동생이 곧 영지 교체에 따라 돗토리 번주가 된 이케다 미쓰나카의 아버지 다다카쓰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다다쓰구 때부터 아라오 가문이 대대로 장신 즉 신하 중에서도 주요한 지위를 맡아서 세습했다는 점과, 이런 양상의 시발점에 외척으로서의 존재 이외에도 권현님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내밀한 뜻이 있

6) 「寛延2年巡見使へ返答書之寫」

었다는 점이다. 즉, 아라오 가문은 이케다 가문에 대해, 돗토리번에 대해 단지 무력과 능력에 그치지 않는 권위의 후광을 입은 채 에도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1632년, 즉 돗토리번과 오카야마번의 영지 교체가 있던 해에 아라오 가문은 요나고성을 위임받았고, 이후 아라오 가문은 요나고를 독자적으로 지배하면서 후계 상속 때마다 에도의 노중에게 인사를 올리는 관습을 정착시켰다. 한편으로 이보다 앞선 1630년에는 막부가 마쓰다이라 테루즈미[松平輝澄], 마쓰다이라 데루오키[松平輝興], 아라오 나리토시, 아라오 다카나리, 이누이 나오이쿠[乾直幾] 등을 불러 어린 미쓰나카의 보필을 명하기도 했다. 아직 다다카쓰가 살아 있던 때이긴 하지만 다다카쓰는 이 해에 가신인 가와이 마타고로[河合又五郎]의 치정살인 사건으로 인해 막부 직할의 하타모토[旗本]들과 대립을 불러일으킨 상태여서 막부로서는 오카야마번의 앞날에 대해 그리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만일의 경우 다다카쓰의 뒤를 잇게 될 미쓰나카는 아직 너무 어린 번의 유지와 관련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이에 아라오 가문의 두 명을 포함한 다섯 명의 가로에게 그 보필을 명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든 모든 사실들, 즉 외척으로서의 존재,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내밀한 뜻, 영지 교체 당시의 권위 등등이 모두 돗토리번 내에서 아라오 가문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것이었으며 아라오 가문의 독자적인 영지 지배는 그 주요한 결과물이었다.

2. 요나고조와 구라요시조

돗토리번의 성립[國替]과 더불어 요나고는 아라오 다쿠미[荒尾内匠]에게, 구라

요시는 아라오 시마[荒尾志摩]에게 위탁되었다. 이들 아라오씨는 각각 자기 휘하의 무사들을 요나고 및 구라요시에 거주하게끔 했는데, 이를 각각 요나고조[米子組], 구라요시조[倉吉組]라 부른다. 때에 따라 수의 증감은 있지만 요나고조는 약 55명, 구라요시조는 약 45명이었으며 그 외에 도사[御徒士]부터 족경(足輕)에 이르는 무사들이 이 두 곳에 거주했다.

그런데 이들의 직무는 요나고와 구라요시의 지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돗토리번 전체의 행정구역은 정과 재로 나뉘고, 이 중 재는 다시 군으로 나뉘는데 여러 군을 하나로 합쳐서 구로 통괄한다고 했다. 돗토리번 중에서도 호키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아이미[會見], 아세이리[汗見], 히노[日野]의 세 군(郡)으로 이들을 합쳐서 서삼군(西三郡)이라 부르고 야하시[八橋], 구메[久米], 가와무라[河村]를 합쳐 중서삼군(中西三郡)이라 했는데, 서삼군을 요나고구라 하고 중서삼군을 구라요시구라 해서 각각 요나고조와 구라요시조가 해당 지역의 치안과 해안 경비에 임했다. 간세이 연간 이후 해방(海防)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돗토리번의 해안을 여러 무사들이 촘촘히 경비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들 두 조가 돗토리번 해안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었다.

1643년에 이들에게 해안 경비를 명한 문서가 남아 있다. 그 문언에 따르면 요나고조와 구라요시조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시되었다. ① 한 조당 15일씩 교대 근무할 것, ② 먼바다에 배가 보이면 요나고, 구라요시에 이를 알리고 돗토리에도 알릴 것, ③ 이 배가 해안에 닿으면 당황하지 말고 육지로 올려서 배에 실린 장비(道具)를 확보할 것, ④ 사전에 대장옥(大庄屋)과 이야기를 해 두어서, 언제든 [배에 탄]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지방에서 이들에 대처하도록 할 것, ⑤ 조를 두 개 번(番)으로 나눠서 당번이 해안가(浜目)로 달려갈 것. 이 외에도 백성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이어지지만, 해안 경비의 원칙은 이상의 네 항목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⁷⁾

한편으로 이들 두 조는 요나고와 구라요시에 거주하면서 일년에 한 번씩 변의 중심부인 돗토리에 갈 것이 요구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다가 1785년에 이르면 이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조의 대표 한 명이 새해 벽두에 돗토리에 출두할 것이 지시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이들 2개 조와 돗토리의 관계가 그다지 일상적이고 빈번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들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안세이 연간(1854~59)에 돗토리의 번교가 점차 규모를 확대하면서 요나고조와 구라요시조 무사의 자제들이 돗토리로 가서 기속하면서 수업을 듣게 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에도시대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요나고조와 구라요시조는 돗토리의 변정으로부터 비교적 독립되어 휘하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요나고조와 구라요시조가 영내의 어떤 루트를 관할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도 많으나 대체로 요나고조에서는 영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아라오 가문의 가신이 현장으로 가서 조사를 하거나 필요하면 체포를 하여 연후에 담당자에게 돌렸다. 한편 구라요시조에서는 일이 생기면 구라요시정(町)의 목부(目附)나 하봉행(下奉行)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행했다. 이처럼 영내의 관할 방법에서 서로 약간씩 달랐으나, 1855년 10월 4일에 아라오 고타로(荒尾小太郎)에게 내려진 하달문을 보면 요나고조가 취해 온 방식으로 통일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번에 개혁을 행함에, 중서삼군 구라요시구의 활동을 이후로는 서삼군 요나고구와 같이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음”⁹⁾이라는 문언을 보면, 안세이 연간의 변정 개혁에서 자분정치에서의 통치 행위를 요나고조에 맞추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가신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

7) 『鳥取藩史』 第二卷 297頁

8) 『鳥取藩史』 第二卷 297~298頁

9) 『鳥取藩史』 第二卷 298頁

고 연후에 관계 각처에 일을 할당하는 체제인 것이다.

요나고구와 구라요시구의 통치 업무는 아라오 가문의 가신들에 의해 이뤄졌고 이들은 닷토리번의 중앙 행정 조직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행정 체제와 직책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내역을 『닷토리번사(鳥取藩史)』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¹⁰⁾

- 필두역(筆頭役): 요나고와 구라요시 각각에 두 명씩이 근무했다. 조에 관계된 일은 공사 구분 없이 이들 필두역이 관리했다. 500석.
- 어목부(御目附): 요나고와 구라요시 각각에 한 명씩이 근무했다(단, 요나고는 1865년에 한 명이 추가됨). 정목부(町目附)를 휘하에 두고 사법 사무를 관장했다.
- 어보청봉행(御普請奉行), 어보청음미역(御普請吟味役), 어보청목부(御普請目附): 어보청봉행은 요나고, 구라요시 공히 각 한 명씩이 있었고, 재방의 건설사업까지도 관장했다. 어보청음미역과 어보청목부는 요나고에만 있는 직책이었다.

3. 아라오 가문의 '자분수 정치'

착좌(着座) 격식에 들어가 있는 몇 개 가문에 대해, 닷토리번은 토지와 인민을 위임하여 이들에 대한 직접 통치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 가문에 위임된 토지와 영민은 각각의 가문들이 통치한바, 이를 자분정치(自分政治)라고 부른다(自分手政治, 自分政事라고도 함). 자분정치를 행한 가문으로는 요나고와 구라요시의 아라오 가문, 마쓰자키(松崎)의 와다(和田) 가문, 야하시(八橋)의 쓰다(津田) 가문, 우라토메(浦留)의 우도노(鵜殿) 가문 등이 있었다. 1869년에 메이지 정부에

10) 『鳥取藩史』第二卷 299~303頁

서 폐지할 때까지 이런 유형의 통치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 자분정치는 원칙적으로 정방에 국한된 것으로, 각 정을 아라오 등의 가신이 정봉행으로써 관리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들이 관리하는 정이 에도시대 도시부의 통례대로 지자 등 세금을 면제받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방에 국한해서 dotsori 번주의 가신들이 지배를 행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농촌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신들의 독자적인 통치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otsori 번의 자분정치는 완전한 치외법권이 허락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설령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치외법권이 허락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가신의 실력 정도에 따라서는 번주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표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막부 순견사예의 회답에서는, 요나고 거주 무사들의 처분에 대해서 대체로 아라오 가문 스스로가 이를 결정하며 그중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는 dotsori 번주의 의향을 묻는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런데 요나고에 근무하는 무사 55명은 본디 번에서 파견한 가신으로, 원칙적으로는 아라오 가문과 같은 다이묘의 가신이다. 하지만 실태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치가 아라오 가문에 위임되어 있어 흡사 아라오의 가신과 같은 양태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에도시대 초기에는 이런 경향이 현저해서, 아라오 나리토시의 경우 이들 무사의 알현을 받고 그들에게 하사품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다. 이런 의식은 주인과 가신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실질상 이들 무사와 아라오 가문 사이에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요나고 거주 무사들의 최고위인 필두역(筆頭役)의 임면을 사실상 아라오 가문이 행했다는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단지 요나고 거주 무사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라, 1773년의 기록에서는 요

나고 정봉행의 임면마저도 아라오 가문이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사료를 보면 그간의 경과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요나고 정봉행은, 옛날에는 구라요시와 마찬가지로 가래(家來)가 맡았으나 이즈모국의 역인에게 문서를 내는 등의 사무가 번잡하기도 해서 [무사들의] 조(組) 안에서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앞서 말한 문서 사무 등도 없어져서 이전처럼 가래들이 근무했으면 한다고 상신하여, 오미[近江]에 이를 전하여 뜻대로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¹¹⁾

가래란 가신과 같은 뜻이지만 여기서는 아라오 가문의 가신을 가리킨다. 즉 dotsori 번주 측에서 보면 가신의 가신 곧 배신(陪臣)이 된다. 처음에는 요나고 정봉행을 이런 배신들이 맡았지만 그래서서는 다른 행정 단위와 교신할 때 상대방과 격이 맞지 않게 되고, 결국 번주 직할의 무사들로 하여금 정봉행을 맡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번주 직할의 무사라 할 지라도 앞서 말했듯이 아라오 가문과 주종관계를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 즉 정봉행을 이들이 맡더라도 요나고의 통치가 사실상 아라오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요나고 정방에 대한 아라오 가문의 지배는 그 통치 체제상 dotsori번의 중앙 행정체제에 대해 독립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11) 自寶曆2年至文政10年「米子・倉吉・松崎・八橋御定」

12) 河手龍海(1970, 12), 「鳥取藩における荒尾手政治の研究」, 『鳥取大學教養部紀要』第四卷, 100~103쪽

IV. 오키의 행정체제

근세 오키는 세키가하라 전투(1600)의 결과 위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투에서 패한 외양 다이묘 모리씨[毛利氏]가 지금의 아마구치현에 해당되는 스오[周防]와 나가토[長門] 지역으로 세력권이 축소되어 조슈번[長州藩]을 형성함에 따라, 그 구 영지가 공백으로 남았다. 지금의 시마네현에 해당되는 이즈모[出雲]와 오키 또한 그 공백에 해당되었는데, 이 자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에 섰던 호리오 요시하루[堀尾吉晴]가 영주로서 다스리게 됨으로써 근세의 마쓰에번[松江藩]이 성립된다. 이 마쓰에 번주 호리오씨의 지배하에서 오키의 근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호리오씨가 오키를 다스린 시기는 1600년부터 1633년까지, 불과 30년이지만 이 동안에 오키 전체에 태합검지가 실시되었고 이로써 에도시대 전체를 통해 지속되는 오키국의 공조체계가 자리잡았다. ‘고검(古檢)’이라 불리는 이 검지를 통해 파악된 석고는 1만 1천 석 정도였다.

호리오 요시하루가 도토미[遠江] 하마마쓰[浜松]에서 오키로 이전한 것은 1600년 11월의 일로, 세키가하라 전투의 논공행상에 따른 결과였다. 1601년에 그는 은퇴하고 제2대 다다우지[德氏]가 뒤를 이었으나 그는 얼마 안 가 1604년에 병사했고 어린 그 아들 다다하루를 대신하여 요시하루가 다시 정무를 맡게 되었다.

이 기간에 호리오씨는 이즈모국의 검지에 전력을 기울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1607년부터는 오키국의 검지를 시작했다. 이 해에는 또 마쓰에 지도리성[松江千鳥城]의 축조도 시작했는데, 혹은 그 때문인지 이때의 검지는 오키 도고에 국한되었고 도젠 지역에는 검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요시하루가 병사한 뒤인 1611년은 마쓰에성이 거의 완성되고 있었지만 다다하루는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상태였다. 이윽고 1613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도젠 전체에 걸친 검지가 시작되었고, 호리오씨의 오키국 지배 체제가 점점 꼴을 갖추었다.

검지란 말 그대로 땅을 검사한다는 의미인데, 에도시대에는 땅의 크기와 질을 측정하여 거기서 산출 가능한 생산량을 쌀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연공을 정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연공 납입의 주체로 촌(村)을 세우고 그것이 결국 근세의 행정 촌으로 정립되었다는 점이다. 오키에서 1607년부터 1613년까지 행해진 검지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하여 약 60개의 행정 촌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 행정 체제를 보면 한 명의 봉행이 도젠과 도고 두 섬을 아울러 관할하고 도젠, 도고 각각에 한 명씩의 대관이 있어서 각 지역을 관할 하는 꼴을 갖추고 있었다. 각 대관 밑에 각각의 행정 촌들이 자리잡게 되는 것인데, 촌 안에서는 다시 공문(公文)과 역인(役人)이 행정 사무를 총괄했고, 이른바 '초기 본백성'이 촌 안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초기 본백성'이란 전국시대에 토호적 존재로 있다가 근세 촌의 형성기에 백성으로 신분 편성되어 촌의 중심적 존재로 자리잡은 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전국시대에는 무사적인 존재 양식을 보이다가 근세에 들어서서 농민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촌 안의 의사결정을 적어도 에도시대 초기에는 독점하고 있었다.

호리오씨 제3대 번주인 호리오 다다하루가 1633년에 후사를 남기지 않은 채 35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호리오씨 지배도 종결되었고, 그 뒤 당분간은 교고쿠씨(京極氏)가 3년 정도 다스리기도 하고 막부가 직접 통치하기도 하는 등, 오키국의 지배 체제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시기가 이어졌다. 물론, 이는 오키의 최고 행정기관에 국한된 이야기이고 지방 차원에서는 대관-공문, 역인-초기 본백성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과 행

정 루트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오키국의 지배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은 마쓰에번의 지배 체제가 정착되는 것과 궤를 같이했다. 1638년에 신슈(信州) 즉 현재의 나가노현 마쓰모토(松本)를 본거지로 삼고 있던 마쓰다이라 나오마사(松平直政)가 옮겨 왔다. 그는 도쿠가와 직계에 속하는 대(大) 다이묘로, 이때 산인지방으로 온 이래 막부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마쓰에에 정착한 마쓰에 마쓰다이라 가문의 번조(藩祖)가 되었다.

오키국은 이 당시 막부 직할령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마쓰다이라 나오마사가 마쓰에번을 열게 됨에 따라 그 지배하에 의탁되었다. 의탁이라고 했는데 이는 일본어 ‘아즈케치(預け地)’를 번역한 것으로, 원래의 점유권은 막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통치만이 마쓰에번에 위임된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168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지배자가 자주 바뀌어 정착되지 못했던 근세적 지배체제가 오키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다. 마쓰에번은 이때 사치역(仕置役) 단 아이치에몬(團彌市右衛門), 도고 대관 야마세 구로에몬(山瀬九郎右衛門), 도젠 대관 미야지마 겐타에몬(宮島源太右衛門)을 파견하여 오키국을 지배하게 했다.

오키국의 지배가 마쓰에번에 의탁되었다 할지라도 마쓰에번이 오키국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마쓰에번은 군대와 대관을 파견하여 오키국의 행정을 보게 했는데 군대는 두 섬을 아울러 다스리고 대관은 도고와 도젠 각각에 한 명씩이 배치되었다. 호리오씨 당시와 같은 체제인 것이다. 이들은 보통 2~3년 임기로 오키를 다스렸다. 그런데 군대와 대관은 본디 마쓰에번에 있던 직제는 아니었고 따지고 보자면 막부 직할령에 피쳐 있던 직제였다. 따라서 오키국 행정은 마쓰에 번정뿐만 아니라 직접 막부 직할령에 대한 지방행정지침에 준거할 때도 많았다. 말하자면, 오키국은 마쓰에번과 막부의 이중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막부가 직할령의 일부를 다이묘에게 위탁할 경우 최대의 관심사는 물론 연공 수취였다. 다만 연공 수취를 막부 스스로의 손으로 행하기보다는 직할령을 위탁한 다이묘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1661년에 막부는 오키의 연공을 에도 아사쿠사로 운송할 것을 명했다.¹³⁾ 이에 대해 오키에서는 공문 두 명을 대표로 삼아 ① 마쓰에번에 원서(願書)를 내고 ② 마쓰에번의 오서(奧書) 즉 원서의 내용을 검토했다는 서명을 받아 ③ 에도의 감정봉행에게 갔다. 즉 오키국의 행정은 마쓰에번을 경유하여 에도의 감정봉행의 재가를 받았던 것이며, 이 때문에 마쓰에번에서는 오키섬에 재주하는 군대와 대관 이외에도 마쓰에와 에도 양 지역에 오키국의 행정을 담당하는 부문을 마련해 두었다.

앞서 오키국의 촌에서는 공문과 역인이 행정사무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마쓰에번이 행정을 위임받은 이 시기에는 촌 안에서 연기(年寄)가 새로이 생겨났다. 역인은 촌의 규모가 클 경우 세 명에서 네 명 정도가 있으면서 공문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곤 했다. 초기의 양상은 이와 같았으나 1663년의 문서에서는 공문, 연기 5명, 역인 2명, 백성 1명이 연서로 서명하고 있다. 즉, 이 즈음에는 촌의 행정직 중에 연기역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¹⁴⁾ 이렇게 생긴 연기역은, 후대의 사료에 따르면 작은 촌에는 촌 전체에 걸쳐 한 명, 큰 촌에서는 리(里)마다 한 명씩이 두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것이 이 시기 오키국 행정체제의 개요가 될 터인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존재 특히 안용복 사건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무라카미 가문을 잊어버릴 수는 없다. 이 가문은 적어도 에도시대에는 무사 신분은 아니었으므로 공문, 역인, 연기 혹은 일반 본백성 중 어딘가에 위치했을 것이라 추측

13) 大石慎三郎(1950), 「享保改革における地方支配機構の整備と農民對策」, 『歴史評論』 5~7月號

14) 永海一正(1972), 『近世隱岐島史の研究』, 報光社, 62~63쪽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재는 달랐다. 오키국에는 다양한 규모의 촌에 있는 공문들 중에서도 공문두(頭)라는 클래스가 따로이 도고에 다섯 명, 도젠에 세 명이 있었다. 무라카미 가문이야말로 바로 그 공문두의 일원이자 공문두 중에서도 최고위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관한 사료를 직접 보기로 하자.

그대가 도젠 아마군[海士郡] 중 세 군데의 공문직을 대대로 맡아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에, 이번에도 가로들이 증문[證文]을 내린다. 요즘 도고에 다섯 명, 도젠에 세 명의 공문두가 있지만, 이는 임시로 지시한 것이다(時之器量を以被仰付候). 도고에서는 다카나시 진쿠로[高梨甚九郎], 도젠에서는 그대, 이렇게 두 명은 옛날부터 동량(棟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증문을 내린다. 이상.

간분 12년(1672) 쥐띠해 8월 11일

사루키 후에몬[猿木夫右衛門]

사이토 간스케[齊藤勘助]

반스케 다유[伴助大夫]

이모오 세이자에몬[妹尾清左衛門]

무라카미 스케쿠로[村上助九郎] 귀하¹⁵⁾

이 사료에 근거해서 무라카미 가문의 위치를 정리해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공문 중 우위에 있는 공문두 클래스 속에서도 도고의 다카나시 가문과 더불어 가장 주되고 유서 있는 공문의 '동량'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동량'과 대관, 군대가 일상적인 행정 사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나, 적어도 안용복 사건 때의 기록 즉 이른바 『원록 각서』가 어째서 무라카미 가문에 남아 있었는지는 그 가문의 공문의 동량으로서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될 것이다.

15) 『隱岐島志』 348쪽

이야기를 다시 오키국의 지배체제 변천으로 돌려 보자.

앞서 말했듯이 1780년대까지 오키국은 마쓰에번에 행정이 일임되어 있었다. 그러나 1688년에 그 행정은 이와미대관[岩見代官] 관할하에 놓이게 된다. 이로부터 1720년까지 33년간 오키국은 막부의 직접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동향은 이른바 '겐로쿠의 지방 재편[元祿の地方直し]'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추측된다. 겐로쿠의 지방 재편이란 그간 불철저하게 이뤄져 왔던 검지를 막부의 직신(直臣)이 동원되어 다시금 철저히 행하고 일부 영지의 점유권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막부의 지방 장악력이 강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이것이 주로 겐로쿠 시대(1688~1703)에 이뤄짐으로써 겐로쿠의 지방 재편이라 불리게 된다. 오키국이 이와미대관 즉 막부 직신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는 1688년은 실로 겐로쿠 원년에 해당한다.

막부 대관 지배하에 놓였다고는 하지만, 대관은 임기 중에 단 한 번 오키국 전체를 순견한 이외에는 직접 행정에 그다지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실제 행정은 도고에 두 명, 도젠에 한 명을 둔 재번(在番) 무사가 담당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는 오키국 행정상에 몇 가지 변화상이 보인다.

첫째는 1691년(겐로쿠 3)에 공문이라는 호칭을 장옥(庄屋)로 바꾼 것이다. 장옥이란 서일본에서 촌장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동일본의 명주(名主)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뀐 것은 호칭뿐만은 아니었다. 그때까지 공문에게는 공문급(給)이라 불리는 일정한 보수가 주어졌는데, 호칭 변화와 더불어 이것이 폐지되었고 대신에 일반 백성이 장옥에게 더 많은 부역을 부담하게끔 했다. 이와 더불어 백성에 대한 조직화, 통제가 더 치밀해졌다. 그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에도시대 주민 조직의 일반적 형태인 오인조(五人組) 체제를 오키국에 도입, 정착시킨 것이다. 한 사료에 따르면 “교호 원년(1716) 원승이해 겨울, 이와미국 오키국 대관 다케다 기자에몬[竹田喜左衛門]께서 [오키에] 오셔서, 다음 해에

오인조 어사치장(御仕置帳面)을 만들라 지시하셨다. 이에 막부 앞으로 두 섬에서 서면으로 상신했다”고 되어 있다.¹⁶⁾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호 연간(1716~1735)에 접어들게 되는데, 1716년에 막부 제8대 쇼군이 된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막부 권력을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교호 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때 막부 직할지 정리도 그 일환으로 행해졌는데, 주안점은 ‘공이 없는 대관’의 정리에 있었다. 그 결과 오키국은 재차 마쓰에번에 행정이 의탁 되기에 이르렀다. 그 정확한 이유는 1722년 노중에 대한 막부 하달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이 없는 대관, 즉 일을 하지 않는 대관이 있는 직할지의 민중이 곤궁해지고 풍속도 문란해졌기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바, “적절한 자를 [대관으로] 임명할 때까지는 모두 가래(家來)를 보내어 연공을 수납케 하라”라는 것이 이유였다. 가래란 가신과도 같은 의미이나 배신(陪臣)을 가리킬 때가 많으며 오키국의 경우는 곧 마쓰에번의 가신을 의미했다. 이로써, 이보다 앞선 1721년 6월 19일에 오키국은 재차 마쓰에번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¹⁷⁾

다시금 마쓰에번 관할하에 들어간 오키국은, 그 행정체계에서 재차 약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 명의 군대와 두 명의 대관(도젠, 도고 각각 한 명)을 놓은 것은 예전과 동일했지만, 해방(海防)을 위한 원견변(遠見番)이 새로이 설치되어 도젠과 도고에 각각 두 명씩이 배치되었다. 더 큰 변화는 1722년에 대장옥제(大

16) 『隱岐諸色年代略記』. 단, 오키국 오인조의 기원은 이보다 앞선 겐로쿠 연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永海一正(1972), 앞의 책, 128쪽

17) 위의 책, 129~130쪽. 또한 당시 빈번히 이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국선 방비를 위해 정비 강화 목적으로 마쓰에번에 지배를 위임했다는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永海一正(1972), 위의 책, 131~132쪽

庄屋制)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대장옥제란 각각의 촌을 대변하는 장옥=명주보다 상위에 복수의 촌으로 구성된 일정 지역을 통괄하는 백성 측의 행정역인인 대장옥이 존재하여 광역을 관할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원래 막부는 이 시기에 직할지 내의 대장옥제를 폐지하고 있었다. 막부 권력과 개별 촌과의 직접적인 지배-피지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오키국에서는 반대로 대장옥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는 변방인데다가 섬인 오키국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었다. 즉, 막부의 직접 지시, 지배가 관철되기 어려운 지역인 오키에서 개별 촌의 장옥과 번 혹은 막부의 대관소 사이를 절충할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1720년대 이후 오키국의 행정체제는 마쓰에번 대관소-대장옥-장옥이란 식으로 체계화되어갔고, 이것이 큰 변동 없이 막부 시대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로써 100여 년에 이르는 오키국 지배체제의 변동이 일 단락된 것이다. 덧붙이자면 도젠의 경우 무라카미, 와타나베 등 소수의 주유가문이 번갈아가며 대장옥을 맡은 것으로 나와 있다.¹⁸⁾

V. 동해의 고도(孤島)와 17세기 일본

1. 전후 혼란과 동해의 고도

이상 제1장부터 제3장에 걸쳐 17세기를 중심으로 울릉도·독도에 연관된 일본 내 정치 단위들 즉 닛토리번, 개중에서도 요나고, 오키의 현상을 살펴보

18) 永海一正(1972), 위의 책, 134~136쪽

았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 하나하나가 17세기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교섭 과정의 일단을 분명히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들 세 정치 단위들 그리고 덧붙이자면 당시 일본 국가를 구성한 에도막부 스스로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형성 과정의 권력이었다는 점이다. 안용복이 정치외교적 문제를 초래했을 때 울릉도를 둘러싸고 이들 서로 다른 정치 단위가 보인 혼란상은 바로 그러한 형성 과정의 권력의 성격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성격은 임진왜란이 종결된 16세기 말 이후의 일정한 시기에는 더더욱 강하게 일본 정치를 규정지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중앙 권력이 미정립 상태였던 시기에 일본의 외연은 권력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이것이 '경계'라는 점에서는 조선의 경계와 충돌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 문제가 바로 이러한 미정립 상태의 권력이 초래한 외연의 유동성으로 인한 것임을 시사하는 사료도 파악된다. 즉 임진왜란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주위 해역에서 어업을 행한 것이다. 말하자면 전쟁 과정에서 강점한 것인데 이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돛토리번의 어업세력은 울릉도를 자기네 어장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연히 조선 부속의 섬이었던 울릉도에 비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어업을 행한 조선 어민들과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이본 조선 이야기(異本朝鮮物語)』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 一. 1716년(향보 18) 아니면 1717년(향보 19)인지, 예전 일입니다만(생각건대, 이 문장에 따르면 이는 원록 연간의 일을 착각한 것이다), 죽도에 관

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죽도는 호키국 앞바다에 있으며 물에서 이를 혹은 사흘이나 걸려서 가야 하는 섬인데, 호키국에서 매년 엽선을 내어 갖가지 해협을 행했습니다. 호키국 부속의 섬이라 생각하고 있었던바, 조선에서도 매년 엽선이 와서 여러 가지로 해협을 행하고 조선의 섬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조선인과 일본인이 끝내 한자리에 와서 마주치는 일은 없었기에 그 이전에는 아무 다툼도 없었습니다만, 어느 때인가 호키국의 엽선이 죽도로 배를 대어 곧장 大筒을 쏘고 배에서 내려 상륙했습니다. 상륙한 뒤에도 대통을 쏘자 섬 안쪽에서도 대통을 쏘아 왔습니다. 이는 죽도를 조선에서는 울릉도라고 하여 원래부터 조선 땅이며 따라서 조선의 獵師들이 때때로 말하기를, 어떤 자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울릉도에 와서 어렵은 한다. 온다면 혼을 내 줄 것이라고 하며 무리를 지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때에 마침 위와 같이 일본에서 鐵砲를 쏘니 이에 맞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측이 맞부딪혀 일본 섬이니 조선 섬이니 논쟁을 벌여도 결론이 나지 않자 호키국에서 에도에 상소한 것입니다.(하략)¹⁹⁾

안용복의 제1차 도일과 제2차 도일이 애매하게 뒤섞여 기술되어 있는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사료적 엄정성보다는 오히려 조선과 일본 어민들이 서로 총까지 쏘아댈 정도로 대립했다는 부분이다. 흔히 일본의 다른 사료에서는 그냥 ‘테려왔다’라고만 기술되어 있고 한국 측의 갖가지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 발로 ‘갔다’라고만 언급되어 있는 안용복의 도일에 대한 특이한 서술로 받아들일 만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용복과 그가 속한 어민 집단이 실제로 대통을 쏘면서 일본 어민들을 공격했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구전(口傳)에 대해 사료 문언상의 엄밀성을 논하는 것이 항상 유효하지는 않으며 비록 왜곡되고

19) 『異本朝獵物語』

모호해졌을지라도 그것이 포함하는 일말의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대목에 포함되어 있는 일말의 사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울릉도를 배경으로 조선 어민과 일본 어민이 무장한 채로 대립했다는 것, 둘째, 형식적으로는 민간에 금지되어 있던 총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총의 사용은 최근 학계에서는 민간에 공식적으로 총기 소지가 허용된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으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고,²⁰⁾ 따지고 보면 굳이 울릉도 같은 섬이 아닐지라도 촌락과 촌락이 물길 하나를 두고 사상자를 낼 정도로 격한 대립을 보였던 사례도 찾기 어렵지는 않다.

다만 울릉도를 둘러싼 이러한 상황이 임진왜란이 극적으로 확대시킨 폭력 갈등의 연장선 속에서, 아울러 중심 권력의 미정립에 따른 주변부의 갈등 고조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 17세기의 일본과 오야, 무라카와 가문

그런데 안용복 사건과 관련해서 상대측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본고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주요 정치 단위의 행정체제와 그 역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장 주요한 상대방은 바로 오야, 무라카와 가문일 것이다. 본고와 관련하여 그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바, 지금까지는 주로 그들이 받았다는 죽도도해

20) 총포 소지가 금지된 근세 일본에서 그 소지가 허락되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수렵용, 즉 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와 사슴을 잡거나 사냥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야 가문이 총포를 소지한 이유도 다음 사료에서 보듯이 동일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一. 죽도로 도해할 때, 예전에는 배 두 척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철포 8, 9정을 [소지시켜] 보냈습니다. 죽도로 철포를 가지고 가는 것은 강치를 잡을 때 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활이나 여타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상(『竹島之書附』)

면허의 내용과 생성 경위, 그 현대적 유효성에 관해 논의가 이뤄져 왔다. 이른바 죽도도해면허에 대한 언급은 막부 순견사에 대해 오야 가문이 스스로 제시한 것이 최초의 근거가 된다.

그 본문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굳이 여기서 지면을 할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안용복 제2차 도일 당시 돛토리번이 노중에게 제출한 문서를 인용하여 그 전체적 맥락을 되짚어 본다.

비망록[覽]

호키국 요나고의 초년 무라카와 이치베에 및 오오야 쿠에몬이 죽도로 도해하기 시작한 것은 1618년(원화 4)에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郎五郎]의 주선으로 도해 면허를 받아 그때부터 이들 두 사람이 쇼군의 배알을 명받은 데 연유합니다.

- 一. 죽도로 도해함에 주인장(御朱印)은 없습니다.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호키국을 다스릴 때 도해에 관해 봉서를 주셨습니다(被成御奉書候). 이에 사본을 보여 드립니다.
- 一. 죽도로 도해하는 배 중에 쇼군의 문장으로 표지를 삼도록 허락받아 그리하는지는 분명치는 않으나, 이 두 사람의 선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표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죽도로 간 배가 조선국에 표착했을 때 쇼군의 문장을 배의 표지로 삼았기에 일본 배임이 알려져 쓰시마로 보내져서 요나고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一. 이들 초년이 에도로 가는 것은 4, 5년에 한 번씩, 한 명씩 번갈아가며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사봉행(寺社御奉行)에게 증계를 청하고[案内申], 배알의 명이 떨어진 뒤에 시복(時服)을 하사받는다고 합니다.

이상.²¹⁾

죽도도해면허에만 관심을 쏟지 않고 이 모든 소란의 근본이 되는 오야와

21) 『竹島之書附』

무라카와 가문에 눈길을 돌리면, 이들이 단순한 어민이 아니라 돛토리번을 넘어서서 막부라는 중앙 권력과도 부정하기 힘든 모종의 연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마지막 항목이 눈길을 끈다. 다른 사료를 인용해 보자.

오오야와 무라카와 양씨는 둘 다 요나고에 사는 자로, 대대로 이름 있는 초닌이었다. 자손은 지금 정년기(町年寄) 역을 맡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죽도 도해 면허를 받은 경위를 보자. 호키국[當國]의 이전 태수 나가무라 호키노카미[中村伯耆守] 가즈타다[一忠]가 1609년(게이쵸 14)에 사거하고 후사가 없었던 까닭에 대가 끊어지고 이후 1616년(겐나 2)까지 국주(國主)가 없이 막부 지배령(御領)이 되었다. 그러했기에 상대(上代)에는 매년 에도에서 내번(來番)하여 돛토리성[當城]에 있으면서 호키주를 진호(鎮護)했다. 1616년에는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郎五郎]가 재번했다. 이때 오오야와 무라카와가 죽도 도해를 희망했다. 그런데 다음 해 마쓰다이이라 신타로 미쓰마사[松平新太郎光政] 공이 호키국을 관령(管領)하여 입국하면서부터 이들 두 사람이 재차 청원했다. 이에 미쓰마사 공이 이윽고 에도에 알려 이를 허락했다. 이후 죽도로 건너가서 해렵(海獵)을 행했다. 그 뒤 매년 도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데 1692년(겐로쿠 5) 원숭이 해에 도해한바, 외국인[唐人]이 무리를 지어 있으면서 해렵을 행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이를 제지했음에도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이미 위난에 처할 낌새가 있었기에, 두 사람은 분했거나 귀항했다. 다시 다음 해 닭띠 해에 도해했는데, 외국인이 많이 건너와 있어서 가옥을 설치하고 해렵을 제멋대로 행하고 있었다. 이때에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 두 명을 데리고 요나고로 돌아왔다.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2~3시경, 나다쵸[灘町]의 오오야 쿠에몬네 집에 들어가 여기서 두 사람이 섬에 관한 이야기, 외국인을 데려와 귀향한 것을 태수에게 보고했다. 마침내 에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한다.

1691년(겐로쿠 4) 양띠 해까지는 두 사람이 건너가 해렵을 했다. 다음 해인 원숭이 해, 닭띠 해 두 해는 도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해렵은 멈췄다.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쇠락하여 그 섬에 가는 일이 없다. 죽도는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륙[漢土]에 가깝고 그 내부가 매우 광활한 섬이다. 산과

계곡이 있고 왕대와 교목이 무성하다. 여러 들짐승과 날짐승이 매우 많고 어패류가 원래부터 갯가에 가득해서 산물이 넘치는 섬이라고 한다. [...] 도해하는 자들은 성년(盛年)까지의 자들로 제한하는데 이는 서른을 넘은 자들은 해상의 풍파를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오키국으로 건너가 강한 남풍을 기다려서 닻줄을 풀고 배를 낸다. 섬은 오키 서북쪽에 해당되며 조선국에 매우 가깝다. 내부가 세 섬으로 나뉘어 서 있다. 또한 이 섬에서 조선으로 건너가는데는 부산포 항구까지 18리이고, 밤에 닿으면 그 나라에 밝혀진 민가의 등불이 또렷이 보인다고, 도해한 적이 있는 뱃사람 등이 취중에 말하고는 한다.

1693년(겐로쿠 6) 오오야와 무라카와가 데려온 저들 두 명의 외국인인 요나고에서 돗토리 성하[國府城下]에 이를 때, 가노 고에몬[加納郷右衛門]과 오제키 츠베에[尾關忠兵衛], 이 두 무사가 영주의 명령에 응하여 (외국인을) 데리고 돗토리로 들어갔다.

「(죽도 도해의) 변천[進退之事]」이라는 사료인데, 여기서도 첫머리에서 “오오야와 무라카와는 둘 다 요나고에 사는 자로, 대대로 이름 있는 초닌이었다. 자손은 지금 정년기(町年寄) 역을 맡고 있다”라고 하여 이들이 단순한 어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돗토리 번주가 부재하던 시기에 막부 직할 관리로 돗토리에 온 아베 시로고로를 통해 노중에게서 봉서를 획득한 것도 재차 언급되고 있다.

생각해 보면 막부의 배신(陪臣)의 중개로 노중에게서 봉서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일반적인 어민이라 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앞서 언급한 에도성 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즉 비록 에도시대도 중기를 접어들면 신분적으로는 하강하게 될지 몰라도 적어도 17세기 동안 이 두 가문은 무사적인 존재였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제1장에서 설명한 돗토리 번의 영지 교체 이전의 사실이다. 오키국도 그렇고 마쓰에번도 그렇지만, 돗

토리번 역시 17세기 초에는 지배영주조차 명확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른바 ‘도해면허’라는 것은 그러한 지배의 공백기에 막신의 알선을 통해 발급된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해 두 가문 중 나중에는 쇠락하게 되는 무라카와 가문의 초기 양상을 통해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무라카와 이치베는 오야 구에몬과 더불어 독도 관련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일본인일 것이다. 독도에 관한 전근대의 최중요 사건인 안용복의 도일만 하더라도 이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정작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탐구는 그간 그리 충실하게 이뤄졌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들이 소장한 문서가 자주 언급되지만 문서의 소장자에 대해 알지 못할 경우 문서의 성격 또한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감안하면, 이들 두 가문의 정체에 대한 파악은 한낱 지적 사치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사료 두 가지를 들어본다.²²⁾

①

교호 9년(1724) 6월 2일에 돗토리에서 질의가 와서 무라카와 이치베가 돗토리 성으로 갔다. 오야 구에몬과 (무라카와) 두 사람의 답변 내용.

- 저희 요나고에 성이 들어설 때 무라카와 이치베는 이 정(町)의 관련자로 서 성을 지을 때의 역소(役所)와 작업자들의 숙소 등 곳곳의 건물을 하사받아 그대로 거택(居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거택이 옛날부터 야쿠라[矢倉]의 건축이 허용되었음을 나타낸 옛날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쓰다이라 신타로님이 이나바와 호키를 다스리시던 때에 막부로부터 죽도 도해를 명받았으며, 이에 격년으로 에도로 가서 예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 형편이 좋지 않게 되어 이를 탄원한바, 마쓰다이라 이즈노카

22) 『米子市史』 제8권 자료편 근세 1, 570~571쪽

미님이 내밀히 신타로님과 이야기한 끝에 격년으로 예를 올리는 것은 연기시켰습니다. 그때 신타로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사카로 이전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도(=올릉도)로 가는 길이 불편해지기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원조하기 위해 쌀 천 표(表)를 빌려 주시고 1년 뒤에 갚도록 하셨습니다.

②

각서

- 무라카와 이치베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시골로 가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때에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 중개상이 지금은 두 명이 있지만 이치베에게 앞으로 홀로 맡도록 할 터이니 이를 알려 주십시오.
- 도다야 고베는 생선 중개상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생선 중개상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근에 이 중개상이 되었으니 그만두게 하고, 대신에 고베에로 하여금 맡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덴나 임술년(1682) 2월 11일

아올러, 이 소식을 비각(飛脚)을 써서 알려 주십시오. 이상.

①번 사료는 원문에 나와 있듯이 1724년에 돛토리번이 실시한 조사에 대한 답변서이다. 사료 안에 나오는 마쓰다이라 신타로는 이케다 미쓰마사(池田光政)이다. 이 사료를 보면 요나고 성이 건축되고 성하정(城下町)으로서 본격적인 행정 중심지로 자리잡을 때에 무라카와 가문이 그 조영(造營)에 가담하고 야쿠라 즉 성곽에 쓰일 법한, 바뀔 말하자면 무사의 특권으로 간주되는 건축물의 조성까지도 허락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단순한 어부나 민간 어업자라고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문서를 보면 무라카와씨는 오와리(尾張) 지역 출신으로 덴쇼 연간 즉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세를 올리던 시절에 “봉공(奉公)했으며 모종의 연유로 할복했다고 되어 있다(『村川氏來

歷). 정확한 지위는 알 수 없어도 무사의 일종으로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죽도도해면허’로 무라카와와 오야 가문이 울릉도 도항을 허가받은 것은 막부나 번의 입장보다는 위와 같은 내력에 따른 개인적 인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가문이 울릉도에 집착한 것은 ①번 사료의 두 번째 조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경제적 이유에서이다. 사정이 나빠져서 번주가 오사카 이주를 통해 아마도 상업 이윤을 얻도록 배려했음에도 울릉도로 도항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므로 이를 거절했다는 대목에서 울릉도가 이들에게 가져다주었던 막대한 이득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거절한 뒤에 쌀 1천 표를 번주가 대여했다는 것도 이들과 주요 다이묘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용복 사건 이전에 이미 이들이 울릉도 어업만으로는 지탱하기 힘든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음은 앞서 언급한 ①번 사료의 두 번째 조목과 ②번 사료에서 엿볼 수 있다. ②번 사료는 1682년 당시 무라카와 가문이 요나고의 소금 중개상 2인 중 1인이었으며,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번에서 소금 중개상을 무라카와 1인으로 축소 지정했음을 알려준다. 이 소금 중개상은 번 내의 소금 유통을 장악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취하는 위치였다. 여기에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안용복 사건 이전에 이미 시작된 이와 같은 중개상 수수료에 기반한 가계 영위는 쟁계 이후 더욱 본격화되어 18세기 이래 무라카와씨는 소금과 생선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존재로 존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왜 돛토리번이나 요나고 측에서 이들을 이토록 배려했는지는, 초기의 무사적 존재로서의 무라카와 가문에 대한 배려의 지속이란 측면이 아닐까 추측도 되지만 명확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17세기 말에는 이들이 근세 초기에 누렸던 지위는 그 기원과

실체가 흐릿해져 있었음을 알게 해 주는 기록도 보인다. 일례로 안용복 제2차 도일 당시에 돗토리번에서 1693년 5월 23일자로 작성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一. 무라카와 이치베에와 오오야 쿠에몬이 에도로 가서 알현을 청할 때 누구 지배하에서 행하는지(何れ之御支配ニ而御座候哉), 여기서는 알지 못합니다.
- 一. 무라카와 이치베에와 오오야 쿠에몬이 에도로 가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씩 가는 것인지, 그것은 여기서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²³⁾

이미 17세기 말에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에 대해 그리고 에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 누리고 있던 자격은 그 기원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실체 또한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전개되고 있었음을 이 사료는 알려준다. 즉 모든 것은 오야 가문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상태가 이미 전개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근세 초기의 혼란된 권력 상태 속에서 이를 입증하거나 반증할 근거를 오야, 무라카와 가문 외에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즉 근세 유서서(由緒書)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모호성이 이 상황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죽도도해면허에 까지 파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3) 『竹島之書附』

VI. 맺음말

이상 돛토리번, 요나고정, 오키국의 연혁과 행정체제를 개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안용복 사건 당시의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문 말미에 서는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의 도해면허 발급을 17세기 초 막부 및 돛토리번의 상황 속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안용복 사건 및 그 이전의 이른바 도해면허가 발생한 시기는 마침 일본 내의 카운터파트인 산인 지방의 주요 지역들의 정치지배체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였다는 점이다. 돛토리번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17세기 초에 일어난 도해면허 발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7세기 말 안용복이 일본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막부조차 그 권력을 온전히 지방에 뺏치지 못한 상태, 이제 막 뺏치려 하던 상태였으며 하물며 오키국은 지배영주조차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 혹은 정치적 공백 속에서 벌어진 것이 안용복 사건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용복과 오야·무라카와의 대립이었다는 것은 음미해볼 만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음미는 종국적으로는 일본 내 일각에서 주창되고 있는 한일 양국 독도 영유권의 전면 부정이라는 움직임과 관련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꿔 말하자면, 현대와 같은 영해의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던 17세기 동해에서 일어난 일련의 분쟁을 한일 양국사, 해상 교류사의 관점에서 재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의 추구는 금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隱岐島志』

『隱岐諸色年代略記』

『池田家履歷略記』

『異本朝鮮物語』

『因府錄』

『鳥取縣史』

『竹島之書附』

『米子市史』

「米子・倉吉・松崎・八橋御定」自寶曆2年至文政10年

河手龍海(1970), 「鳥取藩における荒尾手政治の研究」, 『鳥取大學教養部紀要』第四卷

大石慎三郎(1950), 「享保改革における地方支配機構の整備と農民對策」, 『歴史評論』

5~7月號

永海一正(1972), 『近世隱岐島史の研究』, 報光社





조선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사 검토 소고

동북아역사재단 윤유숙



- I. 머리말
- II. 조선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사
- III. 조선 문헌 비판에 대한 재검토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윤유숙

일본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17세기 朝日間 日本製 武器類의 교역과 밀매」(2008, 『사충』 67), 「전국시대 일본적 세계관과 신국사상」(2009,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 사상』), 「'雀弊節目'을 통해 본 19세기 朝日통교와 왜관」(2010, 제이앤씨,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 등이 있다.

조선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사 검토 소고

동북아역사재단 윤희숙

I. 머리말

현재 한일 양국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논점 중의 하나는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의 문헌 속에 ‘울릉도’와 함께 기재된 ‘우산도’를 독도에 비정하는 문제다.

한국은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의 기술을 근거로 하여, 한국이 예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독도이다’라는 입장에서 있다. 또한 여기에는 단순한 ‘인지’의 문제를 넘어 우산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¹⁾

1) 한국 문헌에 기재된 ‘울릉, 우산’ 기사를 다룬 비교적 최근의 한국 측 논문으로는 유미림(2009), 「한국 문헌의 ‘울릉·우산’ 기술에 관한 고찰- ‘신경준 개찬’론에 대한 비판」, 『동양정치사상사』 8-1; 배성준(2005), 「독도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선을 위하여」, 『문화과학』 42; 오상학(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 독도인식의 변화」,

여기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중 두 번째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 측은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에 인용된 『여지지』(1656)를 근거로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현재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지지』의 원래 기술은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하고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정확하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안용복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아무런 비판 없이 인용한 다른 문헌(『강계고(疆界考)』(『강계지(疆界誌)』, 1756)을 원본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²⁾

『문화역사지리』 28; 김호동(2010), 「한일 양국에서 누가 먼저 ‘독도’를 인지하였는가—일본 외무성의 竹島 홍보 팜플렛의 포인트 1,2 비판」,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II』, 경인문화사 등이 있다. 종래 독도 연구는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키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나, 배성준은 한국에서의 독도 명칭 변화와 독도 인식을 연계시켜서 우산도, 석도, 독도 등의 명칭 이전을 일종의 독도 인식의 단절로 파악했다. 오상학은 고지도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독도 인식을 재구성하여 기존의 목적의식적인 고지도 독해 성향을 수정하는 데 일조했다. 유미림은 한국의 지리지에 나오는 울릉도·우산도의 기재 사례를 일람하여 편자의 역사인식 변화와 지리지 기술형식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재 내용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下條正男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2) 일본 외무성의 HP에 게재된 두 번째 항목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韓國が古くから竹島を認識していたという根拠はありません。

① 韓國が古くから竹島を認識していたという根拠はありません。例えば、韓國側は、朝鮮の古文獻『三國史記』(1145年)、『世宗實錄地理誌』(1454年)や『新增東國輿地勝覽』(1531年)、『東國文獻備考』(1770年)、『萬機要覽』(1808年)、『增補文獻備考』(1908年)などの記述をもとに、「鬱陵島」と「于山島」という二つの島を古くから認知していたのであり、その「于山島」こそ、現在の竹島であると主張しています。

② しかし、『三國史記』には、于山國であった鬱陵島が512年に新羅に歸屬したとの記述はありますが、「于山島」に関する記述はありません。また、朝鮮の他の古文獻中にある「于山島」の記述には、その島には多數の人々が住み、大きな竹を産する等、竹島の實状に見合わないものがあり、むしろ、鬱陵島を想起させるものとなっています。

본고에서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주요한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조선 문헌의 기사에 관해 일본 측에서 무엇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제기가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 문헌의 ‘울릉도 · 우산도’ 기사

한국의 역사서에 ‘우산도(于山島)’, 혹은 ‘우산(섬으로서의 于山)’이라는 지명 및 그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1451) 울진현조(蔚珍縣條)이다.³⁾ 여기에는 울릉도를 소개하면서 우산도와 무릉도(武陵)라는 두 개의 섬을 기술하고 있다.

③ また、韓國側は、『東國文獻備考』(1770年)、『萬機要覽』に引用された『輿地志』(1656年)を根據に、「于山島は日本のいう松島(現在の竹島)である」と主張しています。これに對し、『輿地志』の本來の記述は、于山島と鬱陵島は同一の島としており、『東國文獻備考』等の記述は『輿地志』から直接、正しく引用されたものではないと批判する。その研究は、『東國文獻備考』等の記述は安龍福の信憑性の低い供述(5. 參照)を無批判に取り入れた別の文獻(『疆界考』(『疆界誌』)、1756年)を底本に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ます。

④なお、『新增東國輿地勝覽』に添付された地圖には、鬱陵島と「于山島」が別個の2つの島として記述されています。もし、韓國側が主張するように「于山島」が竹島を示すのであれば、この島は、鬱陵島の東方に、鬱陵島よりもはるかに小さな島として描かれるはずですが、この地圖における「于山島」は、鬱陵島とほぼ同じ大きさで描かれ、さらには朝鮮半島と鬱陵島の間(鬱陵島の西側)に位置している等、全く在しない島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pmp_10issues.pdf)

- 3) 한편 한국 역사서에 ‘于山國’이라는 지명은 ‘우산도’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등장한다. 이를테면 『고려사절요』 제3권 무오 9년(1018)조에는 “于山國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농업을 폐하였으므로 농기구를 내려 주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1】『고려사지리지』

高麗史 卷58 志 卷第12 地理3 東界 蔚珍縣

울진현은 본래 고구려의 于珍이라는 縣이었다(예전에는 丐伊郡이라고도 하였다). 신라 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郡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縣으로 격하시키고 丞을 두었다. 鬱陵島가 있다(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 于山國이라 칭하고 武陵 또는 羽陵이라고도 하였다. 넓이가 100리이며 智證王 12년에 항복하여 왔다. 太祖 13년에 그 섬 사람 白吉士豆로 하여금 方物을 바치게 하였다. 毅宗 11년에 왕이 울릉도는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여 옛적에 州縣을 두었으며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溟州道監 倉 金柔立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니 김유립이 돌아와 아뢰기를, “섬 가운데 큰 산이 있어 山頂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해 가면 바다에까지 10,000여 步가 되고 서쪽으로 향해 가면 13,000여 보가 되고 남쪽으로 향해 가면 15,000여 보가 되며 북쪽으로 향해 가면 8,000여 보가 되며 村落의 基址가 7개소 있으며 石佛·鐵鐘·石塔이 있으며 柴胡·蒿本·石南草가 많이 나 있으나 바위가 많아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니 드디어 그 의론을 중지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于山島와 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⁴⁾

『고려사지리지』는 1451년에 편찬된 지리지로서 편찬 시에 자료가 된 고려 시대의 지리지가 있었으리라 추측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에서 인용한 『고려사지리지』 기사에 따르면 고려왕조는 의종(毅宗) 11년(1157)에 명주도감창(溟州道監倉) 김유립(金柔立)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실지 답사를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蔚珍縣。本高句麗于珍也縣。一云古丐伊郡。新羅景德王。改今名。爲郡。高麗。降爲縣。置令。有鬱陵島。在縣正東海中。新羅時。稱于山國。一云武陵。一云羽陵。地方百里。智證王十二年。來降。太祖十三年。其島人。使白吉士豆。獻方物。毅宗十一年。王聞鬱陵地廣土肥。舊有州縣。可以居民。遣溟州道監倉金柔立往視。柔立回奏云。島中有大山。從山頂。向東行至海一萬余〔餘〕步。向西行一萬三千余〔餘〕步。向南行一萬五千余〔餘〕步。向北行八千余〔餘〕步。有村落基址七所。有石佛鐵鍾石塔。多生柴胡蒿本石南草。然多岩石。民不可居。遂寢其議。一云。于山。武陵。本二島。相距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산도와 무릉도를 별개의 두 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고려사지리지』 이후에 편찬된 지리서에서 보이는 울릉도, 우산도에 관한 기술이 『고려사지리지』의 기술을 답습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사지리지』는 한국 측 문헌 특히 지리지의 울릉도 관련 기록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후에도 울릉도·우산도 기술은 『세종실록지리지』(1454),⁵⁾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1656?), 『춘관지』(1745), 『강계지』,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와 같은 관찬서(官撰書)에 등장하며, 『지봉유설』,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와 같은 사찬서(私撰書)에도 나온다.

위의 문헌에 기록된 울릉도·우산도 기술은 해당지역에 대한 편자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구성과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문지리 정보가 증가하여 기술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울릉도·우산도 기술에 관한 문헌별 기술의 특성은 이미 선학의 논고를 통해 검토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한편 앞서 열거한 문헌 중 현재 우산도와 독도를 동일시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문헌은 『조선왕조실록』, 『강계지』,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이다. 이들 문헌에 기재된 울릉도·우산도 기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 1425년에 발간된 『경상도지리지』를 비롯한 8도지리지를 모아 편찬한 『新撰八道地理志』를 수정하고 정리하여 1454년(단종 2)에 만들었다. 『세종실록』이 찬진된 해가 1454년이다.

[1] 『조선왕조실록』 숙종 22년(1696) 9월 25일 戊寅條

[기사]: 備邊司에서 安龍福 등을 推問하였는데, 안용복이 말하기를, “저는 본디 東萊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蔚山에 갔다가 마침 중[僧] 雷憲 등을 만나서 근년에 鬱陵島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섬에 海物이 많다는 것을 말하였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寧海 사는 뱃사공 劉日夫 등과 함께 떠나 그 섬에 이르렀는데, 主山인 三峯은 三角山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하였습니다. 산에는 雜木·매[鷹]·까마귀·고양이가 많았고, 倭船도 많이 와서 정박하여 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하러 나왔다. 이제 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송도는 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

[문헌소개]: 이 기사는 1696년 안용복이 두 번째 渡日에서 귀국한 후 비변사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본에 도해하게 된 연유를 진술한 내용 중의 한 구절이다.

[2] 『강계지(疆界誌)』(1756)

[기사]: 내가 살피건대 『輿地志』에 이르기를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했으나 여러 圖志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그중 하나는 왜가 말하는 松島이니 대체로 두 섬은 모두 다 우산국이다.

[문헌소개]: 『강계지』는 申景濬⁶⁾이 편찬했다. 한국 역사 속에서 명명한 역

6) 조선 후기의 문신·실학자. 同副承旨·兵曹參知가 되어 『팔도지도』와 『동국여지도』를

一萬五千餘步北距海一萬餘步有村落墟七所破礎尙存或有石佛石塔鐵鍾地多巖石人不可居遂寢其議後崔忠獻以本島土壤膏沃多珍木海錯遺使移本郡民以實之後屢爲風濤所盪舟覆人多誤死故因遷其民高元之際本國叛臣李樞等告于元以鬱陵島多珍佐之材元遣使入島欲伐木以納上表陳乞得止本朝 太宗大王聞流民多逃入其島再命三陟金麟雨爲按撫使刷出 世宗戊午遣縣人萬戶南顯率數百人往搜通民盡俘金丸等七十餘人而來其地遂空 成宗辛卯有告別三峯島者乃遣朴宗元往見之因風濤不得到而還同行一船泊鬱陵島只取大竹大鯢魚而同啓曰島中無民居矣

按輿地志云一說于山鬱陵本一島而考諸圖志二島也一則其所謂松島而蓋二島俱是于山國也

光海甲寅其差船二艘謂將探礮竹島形止且曰島在慶尙江原兩道之間朝廷惡其猥越不許接待只令東萊府使朴慶業書曰足下非不知

그림 1 『강계지』(『旅菴全書』卷七)

대 국가들의 영역을 중심으로 엮은 역사지리서이다. 여기에 인용된 『여지지』는 1656년 柳馨遠이 편술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강계지』 권1에는 서문과 조선의 별호에 대한 해설에 이어 전조선(단군조선)의 國都와 疆界, 후조선(기자조선)의 國都·강계·箕田圖에 대해서 논하였다. 권3에서는 조선시대의 역사지리를 논하면서 이를 북변지역에 집중하여 鍾城·慶興·慶源·會寧·富寧·穩城 등 북도 七府와 四郡에 관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백두산·甲山·가도·울릉도·海浪島 등 북변의 산지와 해도에 이르기까지 논하였다.

완성하였다. 실학을 바탕으로 한 고증학적 방법으로 한국의 지리학을 개척했다. 대표적인 저술로 『訓民正音韻解』가 있다. 1770년 『文獻備考』 편찬에서 「輿地考」를 맡아 한 공으로 同副承旨·兵曹參知가 되어 『八道地圖』와 『東國輿地圖』를 완성하였다.

[3]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輿地考』(1770)

[기사]: [...] 輿地志에, 鬱陵·于山은 다 于山國 땅이며, 이 우산을 왜인들은 松島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다. 光海君 7년(1615)에 왜인이 배 두 척을 보내서, '礮竹島의 상황을 탐지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섬이 경상도와 강원도의 사이에 있다' 하였다. 조정에서는 그 건방지고 주제넘음을 미워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않고, 東萊存使 朴慶業을 시켜 답서하기를, '귀하가 이 섬을 점령함은 가로채는 것이 됨을 모르는 것이 아닐 터인데 남의 땅을 넘보는 것은 무슨 마음이나? 아마도 이것은 善隣友好的의 도리가 아닌 성싶다. 이른바 礮竹島란 실로 우리나라의 울릉도로서, 경상도와 강원도 바다 사이에 있음은 輿地書에 실렸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는가? 신라·고려 때부터 토산물을 받아들였고, 본조에 와서도 여러 번 도피한 백성을 붙잡아들였다. 지금 비록 폐기하였을 망정 다른 나라 사람이 불법으로 거주함을 어찌 용납하겠는가?' [...]

[문헌소개]: 『동국문헌비고』는 1770년 신경준 등이 편찬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46년(1770) 윤5월 16일 辛酉條에 따르면 영조가 『문헌비고』가 이루어진 것은 신경준의 『疆域志』(『疆界誌』)에 의거한 것'이라 하여 특별히 加資하라고 명하였다고 한다. 이것으로 볼 때 신경준은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편찬한 『疆界誌』도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四, 海防 東海 (1808)

[기사]: 文獻備考에 이르기를, 鬱陵島는 蔚珍에서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고, 일본의 隱岐州와 가까우며 세 봉우리가 허공에 높이 솟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조금 낮다. 날씨가 맑을 때는 봉우리 위에 있는 수목과 산 밑 모래톱까지도 역력히 보인다. 바람이 순풍이면 이틀이면 갈 수 있다. [...] 輿地志에 이르기를 鬱陵·于山은 다 于山國 땅이며, 이 우산을 왜인들은 松島라고 부른다. [...]

[문헌소개]: 『만기요람』은 국왕의 정사(萬機)에 참고하도록 정부 재정과 군정의 내역을 모아 놓은 책. 재정·군정기록. 1808년(순조 8)에 편찬되었으며, 사본에 따라 권수는 일정하지 않다. 가장 정확한 것으로 뽑히는 규

이다. 최초의 편찬은 1770년(영조 46)에 洪鳳漢 등이 왕명을 받아 象緯·輿地·禮·樂·兵·刑·田賦·財用·戶口·市糴·選舉·學校·職官의 13考로 분류하여 100권으로 만들어 『동국문헌비고』라 하였다. 그러나 史實에 어긋난 점과 누락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法令과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李萬運 등에게 이를 바로잡아 補編토록 하였다. 이것이 제2차의 편찬이며, 9년여에 걸쳐 『동국문헌비고』의 13考에 대해 오류를 바로잡고 누락된 것을 채우는 한편, 새로이 物異·宮室·王系·氏族·朝聘·諡號·藝文의 7考를 증보하여 146권을 편성하고 이를 『增補東國文獻備考』라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하고 100여 년 뒤인 고종 광무 연간에 이르러 제3차 보편을 하였다.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백과사전으로서 제도·문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III. 조선 문헌 비판에 대한 재검토

이들 문헌의 기사에서 ‘우산도=독도(松島)’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동국문헌비고』이다. 『동국문헌비고』가 ‘울릉도와 우산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지지』를 인용하여 ‘우산도=송도(松島)’라고 기재한 이래 이 기사는 그 이후에 편찬된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의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재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지지』는 1656년에 편찬된 문헌이지만 유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한편 일본의 일부 연구자는 몇 가지 점에서 위의 한국 문헌이 지니는 사료적인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후세에 날조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가 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요점은 “첫째, 유형원의 『여지지』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지지』의 기사가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둘째, 『동국문헌비고』의 편찬기간이 겨우 5개월이고 『여지지』가 바르게 인용되었는지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럽다”⁷⁾는 것이다. 그의 논리전개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경준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편찬에서 原典인 『여지지』를 직접 인용 하지 않고 한 차례 다른 문헌(강계지)에 인용된 『여지지』를 底本으로 하여 재인용하였으며 그 인용 시에 개변한 흔적이 보인다.
- ② 신경준이 『강계지』에서 『여지지』를 인용한 부분은 “여지지에 이르기를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라는 구절뿐이다. 그 이하는 신경준의 私見이다.
- ③ 이것이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우산은 다 우산국 땅이다. 이 우산을 왜인들은 松島라고 부른다”로 바뀌어 원형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동국문헌비고』가 신경준의 『강계지』를 底本으로 하였지만 편찬과정에서 홍계희라는 인물이 문장을 윤색했기 때문이다.
- ④ 우산도가 松島라는 것, 우산도가 울릉도의 屬島라는 것도 유형원의 여지지에는 쓰여 있지 않고 신경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 ⑤ 신경준이 ‘우산도가 松島’라고 愼斷하게 된 근거는 그가 안용복의 ‘松島는 우산도’라는 증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용복의 증언은 허위 供述이자 僞證이다. 또한 신경준의 『강계지』에 실린 「安龍福事」는 이맹휴의 「鬱陵島爭界」(『春官志』所收)와 문장이 거의 동일하므로 『강계지』는 「울릉도쟁계」를 표절한 것이다.
- ⑥ 따라서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거로 삼고 있는 『동국문헌비고』의 分註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이 分註는 신경준이 17세기 말의 안용복의 증언을 근거로 하여 『여지지』를 개찬한 것이기 때문이다.

7) 下條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芸春愁, 100~105쪽. 본고에서 소개하는 下條正男의 주장은 모두 이 저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즉 시모조 마사오는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동국문헌비고』의 『여지지』 인용문장이 그보다 앞서 편찬된 『강계지』의 『여지지』 인용문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동국문헌비고』의 분주(分註)는 신경준이 개찬(改竄)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 분주의 사료로서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두 문헌의 기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강계지』의 『여지지』 인용 구절과 『동국문헌비고』의 『여지지』 인용 구절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동국문헌비고』의 분주가 『여지지』를 개찬했다'는 결론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모조 마사오 본인이 지적했듯이 『여지지』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지지』의 기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지지』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설명하는 항목의 전체 기사 내용이 무엇인지, 기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현재로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동국문헌비고』보다 훨씬 앞서서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도 우산도와 울릉도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울릉도의 위치, 섬의 크기, 각종 산물, 지배의 역사 등 매우 다양한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지리지의 일반적인 편제로 미루어 볼 때 『여지지』도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유사한 구성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준은 『강계지』를 편찬할 때 『여지지』를 인용하였고, 후일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는 과정에서는 『강계지』를 참조했다고 전해진다. 신경준은 『강계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여지지』에 기록된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는 구절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다른 도지(圖誌)를 참고한 결과, ① 우산과 울릉은 두 개의 섬이고, ② 그중 하나는 왜가 말하는 송도이며, ③ 두 섬

이 모두 우산국이다라는 정보를 추가로 기록하였다. 신경준은 『강계지』를 편찬하면서 『여지지』의 기사와 반대되는 기록, 즉 우산과 울릉이 두 개의 섬이라는 기록을 보기는 했지만 이 단계에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아직 확정짓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동국문헌비고』에 이르러서는 “① 우산과 울릉이 다 우산국 땅이다. ② 왜인들이 우산도를 송도라고 부른다”라는 형태로 정리된다. 『강계지』의 관계 기사에 비해 문장이 훨씬 간략해지기는 했지만 『강계지』 편찬 시에는 불명확했던 우산·울릉도의 동일 섬 여부와 송도 비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즉 『강계지』 편찬단계에서 불명확했던 점들이 이후 우산도와 울릉도에 관한 지리적인 지식이나 정보 등이 심화되면서 지리지의 편찬에 반영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시모조는 『강계지』에 보이는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는 구절만이 『여지지』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한 『여지지』의 구절이 이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동국문헌비고』 편찬에서 신경준이 『여지지』를 개찬(改纂)했으므로 ‘울릉도=松島[독도]’라는 기사는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동국문헌비고』에서 『여지지』의 원형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동국문헌비고』가 신경준의 『강계지』를 저본(底本)으로 하였지만 편찬과정에서 홍계희라는 인물이 문장을 윤색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문제의 소재를 신경준의 개찬에 두는 것인지 홍계희의 윤색으로 보는 것인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시모조의 주장대로라면 『동국문헌비고』는 편찬자의 저본 개찬과 윤색으로 얼룩진 문제투성이의 문헌인 셈이다.

또한 신경준이 ‘우산도가 송도’라고 억단(憶斷)하게 된 근거는 그가 안용복의 ‘송도는 우산도’라는 증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는 신경준이 안용복의 증언에 의거했다는 사료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무엇을 근거로 신경준이 안용복의 증언을 준거로 삼았다고 단언하는 것일까.

IV. 맺음말

이상으로 ‘우산도=독도(松島)’ 주장의 근거가 되는 조선 문헌의 주요 기사에 관한 비판을 살펴보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과거 한국의 지리지의 상당수는 국가사업으로 편찬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견해보다는 선대(先代)의 기술을 주요한 전범으로 삼아 그것을 답습하는 기술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설(說)이 많아 단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편찬자가 여러 설을 고증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후대 학자의 질정을 기다리고는 했다.⁸⁾ 그리고 비록 동일 저자의 편찬물이라 할지라도 지리정보와 지식의 심화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판단된다.

지리서란 문헌의 성격상 객관적인 사실이 중시되므로 심화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앞서 편찬된 지리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이야말로 지리서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일 것이다. 실제로 17세기 이전에 편찬된 지리지의 울릉도 항목과 그 이후에 편찬된 지리지의 울릉도 항목을 비교해 보면, 기술의 분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 말에 발생한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정보가 풍부해진 결과이다. 따라서 신경준이 편찬한 『강계지』와 『동국문헌비고』에 나오는 울릉도·우산도 관련 기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지리서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

8) 유미림(2009), 앞의 논문, 188쪽

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시모조 마사오는 전근대 한국의 지리서가 지니는 문헌자료적인 특성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은 채 조선 문헌기록의 사료적인 신빙성과 가치 자체를 의문시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사료로서의 가치 그 자체를 부정하고, 나아가 해당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된 논리 역시 '편파적인 자료 위에 구축된 편파적인 주장'으로 결론짓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 필자는 일본 외무성이 내건 속칭 '10포인트' 중 두 번째 항목을 인용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본고에서 다룬 시모조의 견해를 그대로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강계지(疆界誌)』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만기요람(萬機要覽)』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김호동(2010), 「한일 양국에서 누가 먼저 '독도'를 인지하였는가-일본 외무성의 竹島 홍보 팜플렛의 포인트 1,2 비판」,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II』, 경인문화사

배성준(2005), 「독도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선을 위하여」, 『문화과학』 42

오상학(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 독도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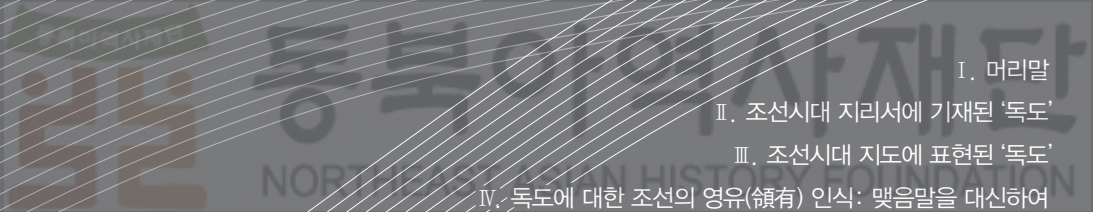
유미림(2009), 「한국 문헌의 '울릉·우산' 기술에 관한 고찰- '신경준 개찬'론에 대한 비판」, 『동양정치사상사』 8-1

下條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芸春秋



조선시대 지리서·지도에 내재된 ‘독도’ 영유 인식

인하대학교 임학성



I. 머리말

II. 조선시대 지리서에 기재된 ‘독도’

III.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독도’

IV.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領有) 인식: 맺음말을 대신하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학성

조선후기사 전공,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교수

대표논저로는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공저, 2006, 역사비평사),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朝鮮人の 거주 양태」(2009, 『한국학연구』 21), 『범월과 이산-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공저, 2010, 인하대학교출판부) 등이 있다.

조선시대 지리서·지도에 내재된 ‘독도’ 영유 인식

인하대학교 임학성

I. 머리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독도(獨島) ‘문제’¹⁾ 해법은 한국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領有)해 온 사실 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되겠다. 독도의 역사적 영유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정부)에서 간행·제작한 각종 문헌 증빙자료, 예를 들어 사서(史書)라든가 고문서·지리서(地理書)·지도 등에서 정합(整合)한 내용들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독도의 역사적 영유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다.²⁾ 1900년(광무 4)에 반포한 ‘칙령(勅令) 제41호’(10월

-
- 1) 간혹 독도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혹은 목적의식적으로 ‘분쟁’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필자는 독도는 대한민국이 역사적·실효적 지배를 하는 고유영토이므로 그 어떠한 국가(정부)나 집단과의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도에 관한 한 ‘분쟁’이라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문제’ 정도로 표현하고자 한다.
 - 2) 李丙燾(1963), 「獨島의名稱에 대한 史的考察—于山·竹島名稱考」, 『趙明基博士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申奭鎬(1965), 「獨島의 來歷」, 『獨島』, 대한공론사

25일자)에서 처음 ‘석도(石島)’라는 명칭이 등장하기까지, 모든 문헌자료에 등장하는 ‘우산도’³⁾를 현재의 독도로 비정하는 것이 그 입증과정의 전제이자 결론이었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입증과정에 대하여 일본 측의 일부 학자는 한국 측 문헌자료에 등장하는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로 비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비판적 논리를 펴 오고 있다.⁴⁾ 그 비판의 주요 논점은 한국 측의 사서나 지리서에 우산도가 독도라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일부 지도에서 우산도가 울릉도의 좌측이나 상단에 그려지거나 그 크기가 너무 크게 그려져 있다는 점 등이다.

일본 측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한국인 학자는 물론 일본인 학자까지 반론을 제시하였고,⁵⁾ 최근에는 새로운 시각과 정치한 자료 분석⁶⁾으로 ‘우산도=

- 3) 우산도는 문헌자료 상에 ‘于山’·‘芋山’·‘牛山’과 같이 同音異字로 표기되거나, ‘子山’·‘干山’, ‘写山’, ‘方山’ 등과 같이 오기한 것도 보인다.
- 4)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塚本孝(1994),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 244, 國立國會圖書館; 竹島問題研究會(2007),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下條正男(2008), 「獨島呼稱考」, 『人文·自然·人間科學研究』 19, 拓殖大學
- 5) 林英正(1985), 「朝鮮初期 鬱陵島와 獨島의 經營」, 『玄岩中國柱博士華甲紀念 韓國學論叢』, 동국대학교 출판부; 宋炳基(1989), 「朝鮮初期 地理志의 于山·鬱陵[武陵]島 記事檢討」, 『龍巖車文燮教授 華甲紀念 論叢 朝鮮時代史研究』, 신서원; 慎鏞廈(2003), 『韓國과 日本의 獨島領有權 論爭』, 한양대학교출판부; 김경숙(2005), 「독도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 『獨島研究』 창간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김호동(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內藤正中·金柄烈(2007), 『史的檢證 竹島·獨島』, 岩波書店; 內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獨島論爭』, 新韓社; 호사카 유지[坂祐二](2009), 『우리 역사 독도』, BM성안당; 송병기(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등
- 6) 이러한 연구 성과로는 裴城浚(2002), 「울릉도·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震檀學報』 94; 오상학(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통권 28호); 오상학(2008), 『나케시마문제연

독도' 설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이 독도의 역사적 영유 사실에 대한 한·일 간의 자료 해석, 인식 차이의 정리이다. 그런데 양측 간에 전거(典據)로 삼은 주요 자료는 조선시대 때 편찬·제작된 각종 지리서와 지도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들 자료(지리서와 지도)에 기록·표현된 우산도(즉, 독도)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고구(考究)함으로써 조선 국가(정부)와 지식인들의 독도 영유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지리서에 기재된 '독도'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가 중요하다. 국가의 영토 영유 인식은 사서(史書)나 지리서, 지도 등의 자료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는 해당 영토에 대한 오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도도 예외가 아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처음으로 우산국(于山國)을 신라가 정벌하여 영속(領屬)한 사실⁷⁾이 입증된 이후, 『고려사(高麗史)』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관찬 사서와 각종 지리서·지도 등에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영토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구회'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지증마립간 13년조; 같은 책 권44 열전 4, 이사부전

1. 조선 전기 편찬 지리서의 ‘독도’ 기재

조선왕조는 통치체제가 완성되는 15세기 세종~성종대에 들어와 전국 각 군현(郡縣)의 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리서 편찬에 주력하였다. 지리서는 국가 통치운영상의 절대적인 기초 자료였기 때문이다.⁸⁾

이 시기에 편찬된 지리서(관찬) 중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을 편찬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1451년(문종 1)의 『고려사』 지리지(地理志), 1454년(단종 2)의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1481년(성종 12)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이들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서에 기재된 ‘독도’⁹⁾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려사』 지리지

⑦ 鬱陵島라는 섬이 고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신라 때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 일설에 이르기를 武陵 또는 羽陵이라고도 한다. 섬의 둘레는 100리이다. 지증왕 12년(512, 인용자 註)에 항복하여 왔다. (고려) 태조 13년(930, 인용자 註)에 그 섬 사람들이 白吉 土豆를 보내 그 고장의 산물을 바쳤다. [...] ④ 일설에 이르기를 于山과 武陵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8) 서인원(2002), 『조선초기 지리지 연구』, 혜안, 13쪽

9)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인 학자의 경우, 조선시대 지리지는 물론 여러 문헌에서 독도라는 지칭이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 측에서는 여러 문헌에서 울릉(무릉, 우릉 등)도와 함께 기재되고 있는 우산도가 바로 독도의 원래 이름으로 전제·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 ‘독도’라 함은 자료에서 그 명칭이 어떻게 기재되든 간에 현재의 독도와 일치함을 의미하는 표기가 되겠다.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¹⁰⁾

『고려사』 지리지는 비록 조선 건국 이후 60년이 지난 1451년에 편찬되었으나, 그에 담긴 내용은 고려시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 기사(㉔ 부분)를 통해 고려시대에는 우산국은 울릉도(무릉도=우릉도) 한 섬만을 말하며, 결국 우산도(독도)의 존재에 대한 정보나 인식은 없었고 ‘우산’은 바로 울릉도라는 인식만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¹¹⁾

그런데 위 기사에서 독도, 즉 우산도를 울릉도와 별개의 섬으로 언급하고 있는 “혹은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는 부분(㉕)은 고려시대의 인식이 아닌 『고려사』 지리지를 편찬할 당시인 15세기 중엽 조선 국가 및 지식인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고려사』 지리지의 편찬 당시 울릉도와 별개의 섬인 우산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태종·세종대에 이르러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로 표류해 와 도내 상황을 보고하고, 그로 인해 울릉도에 대한 조사와 주민 쇠회를 위해 세 차례나 안무사(按撫使)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인식이었다.¹²⁾

10) 『고려사』 권58 지리지 3, 동계 울진현조

11) 배성준(2002), 앞의 논문, 31~32쪽

12) 태종·세종대의 울릉도 등지의 안무사 파견 사실에 대해서는 송병기(1989), 앞의 논문; 朴炳涉(2007), 「朝鮮史書における竹島=獨島, 于山島, 内藤正中・朴炳涉, 『竹島=獨島論争』, 新韓社, 109~117쪽; 호사카 유지(2010), 「고종과 이규원의 우산도 인식 분석」, 『독도·울릉도 연구: 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84~95쪽 등 참조.

2)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는 왕명(1424. 세종 6년)에 의하여 1432년(세종 14)에 찬진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의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그 부록으로 편입한 전국 지리지이다.¹³⁾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는 1454년에 완성되었으나 그에 담긴 내용은 1424~1432년 당시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독도’, 즉 우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于山과 武陵 두 섬이 고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이라 칭하였으며, (무릉도는) 일설에 이르기를 울릉도라 부르기도 한다. 둘레가 100리이다. [...] 우리 太祖 때, 流離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 함을 듣고, 다시 명령을 내려 三陟 사람 金麟雨를 安撫(使)로 삼아서 사람들을 刷出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다.¹⁴⁾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에는 육지로 표류해 온 울릉도 주민들과의 접촉, 그리고 3차에 걸친 안무사 파견의 결과로 얻어진 인식이 반영되어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무릉도)는 별개의 섬이라고 명확하게 기술(㊤ 부분)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서 ‘혹은 말하기를’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우산도와 울릉도의 ‘2도(島)설’을 언급했던 인식이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
- 13) 김전배(1972), 『조선조의 읍지연구－현존 읍지를 중심으로』, 2~7쪽; 양보경(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지리학논총』 별호 3),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6~7쪽.
14)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옮긴현조

3) 『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승람』은 1477년(성종 8)에 양성지(梁誠之) 등이 완성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에 우리나라 문사(文士)들의 동국시문(東國詩文)을 첨가하여 1481년(성종 12)에 완성된 전국 지리지다. 따라서 이 지리서에는 세종대 이후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동국여지승람』은 1485년(성종 16) 김종직(金宗直) 등이, 또 1499년(연산군 5) 임사홍(任士洪)·성현(成愼) 등이 2차에 걸쳐 교정과 보충을 하였으며, 1531년(중종 26)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새로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였다.¹⁵⁾ 현재 『동국여지승람』은 전하지 않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신증’이라 적혀 있지 않은 기사는 바로 『동국여지승람』 당시의 내용으로 짐작된다.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독도 내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우산도, 울릉도는 일설에 이르기를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도 한다. ㉞ (우산과 울릉) 두 섬은 고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울릉도는) 세 봉우리가 높고 험하여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데, 남쪽 봉우리가 조금 낮다. 날씨가 청명하면 산꼭대기의 나무와 산 아래의 모래톱 등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순풍을 타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다. ㉞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 ……¹⁶⁾

그런데 15세기 후반의 국토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우산·울릉 ‘2도설’을 확정 기술(㉞ 부분)하는 한편, ‘일설에’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우산·울릉 ‘1도설’을 부연하고 있다(㉞ 부분).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불

15) 김전배(1972), 앞의 책, 7~16쪽; 양보경(1987), 앞의 논문, 7쪽

16) 『동국여지승람』 권45, 강원도 울진현 山川조

과 반세기만에 우산도(즉, 독도)의 존재에 대해 인식의 혼란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혼란, 즉 우산·울릉 '2도설'의 후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우선 공도(空島)정책 때문이었다. 15세기 초부터 시행된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의 결과 동해안 어민들의 왕래가 끊기면서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울릉도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으며,¹⁷⁾ 그 결과 울릉도와 그 부속 섬인 우산도는 점차 인식에서 지워지는 섬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원인으로 신도(新島) 탐색 실패를 들 수 있다.¹⁸⁾ 15세기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으로 울릉도와 우산도의 존재가 사라지는 동시에 강원도 동해에서 '요도(蓼島)' 또는 '삼봉도(三峰島)'를 보았거나 직접 다녀왔다는 함경도 연해민(沿海民)들의 주장이 조정에 보고되었다. 이른바 울릉·우산도를 대신하는 '신도설'의 등장이었다. 이에 세종(世宗)대에는 요도를, 성종(成宗)대에는 삼봉도를 탐문 탐색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그 실제 확인에는 실패하였다.¹⁹⁾ 이러한 신도설의 등장과 그 탐색·확인 실패가 결과적으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울릉도와 우산도의 2도 인식을 혼란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동국여지승람』의 기사 ㉞는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이 종합 반영되어 나타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17) 『성종실록』 권19, 3년 6월 정축조. 강원도관찰사李克墩이 “삼봉도경차관 朴宗元 일행이 3일 동안 무릉도(울릉도)를 수색했으나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옛 집터만 있었”음을 아뢰고 있다.

18) 배성준(2002), 앞의 논문, 37~39쪽; 송병기(2008),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38~47쪽

19) 세종~성종 연간의 요도와 삼봉도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면, 요도는 우산도(즉, 독도)를, 그리고 삼봉도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선 후기 편찬 지리서의 ‘독도’ 기재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과 신도 탐색이 실패로 귀결된 15세기 후반 이후 독도(우산도)는 문헌기록에서 사라진다. 그러다가 안용복(安龍福)의 도일(渡日)사건으로 불거진 조·일 간의 울릉도 쟁계(爭界)가 매듭지어지고, 울릉도 수토(搜討) 제도가 실시되는 17세기 말엽 이후부터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편찬된 지리서에서는 독도(우산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겠다. 이에서는 18세기 중엽에 편찬한 『여지도서(輿地圖書)』, 『지승(地乘)』, 1756년(영조 32) 신경준(申景濬)이 저술한 『강계고(疆界考)』, 그리고 1770년(영조 46)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여지고(輿地考) 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여지도서』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전국 지리지는 1757년(영조 33)~1760년(영조 36) 사이에 전국 각 군현에서 편찬한 313개의 읍지(邑誌)와 영지(營誌)·진지(鎭誌) 등을 모은 자료로 18세기 중엽 전국 각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서도 중요하다.

『여지도서』에 보이는 독도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울릉도는 일설에 이르기를 狹陵島라고도 한다. 고을의 동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세 봉우리가 높고 험하여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데, 남쪽 봉우리가 조금 낮다. 날씨가 청명하면 산꼭대기의 나무와 산 아래의 모래톱 등

을 또렷이 볼 수 있다. 순풍을 타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다. ㉮ 혹은 이르기를 于山島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라고도 한다. 둘레가 100리이며, 蔚珍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 肅宗 때 營將 張漢相을 보내어 섬 안을 살살이 조사하도록 했고, 뒤에는 이를 관례로 삼아 3년에 한 차례 가도록 했다.²⁰⁾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간행 이후 무려 270년 뒤인 18세기 중엽 영조 연간에 편찬된 전국지리서이다. 따라서 15세기 후반 이후 조선 정부의 독도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가 되겠다.

그런데 『여지도서』는 ‘혹은’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쓰면서 우산·울릉 ‘1도설’을 부연하고 있어(㉮ 부분),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인식을 그대로 옮겼음을 본다. 다만, 본문에는 우산도에 대한 기술은 없고 울릉도만이 보인다.

2) 『지승』

『지승』은 전국 각 군현의 지도에다가 그 고을의 형세를 간략하게 기록한 지리서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奎 15423)되어 있으며, 그 편찬 시기는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지승』이 기록하고 있는 독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울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 鬱陵과 于山이 있다.²¹⁾

즉, 울진의 동쪽 바다 한가운데 우산도와 울릉도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어(㉮ 부분), 명확하게 우산·울릉 ‘2도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0) 『여지도서』 강원도 삼척부 古跡조 島嶼

21) 『지승』 6책 관동각읍, 강원도 총론

3) 『강계고』

『강계고』는 1756년(영조 32)에 신경준(1712~1781)이 고증학적 방법에 의하여 저술한 지리서로 울릉도의 연혁과 안용복 사건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²²⁾ 독도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輿地志』에 이르기를, “일설에 于山島와 鬱陵島는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 그러나 ㉠ 여러 지도와 지리지를 살펴보면 두 섬이다. 하나는 소위 松島인데 대개 두 섬 모두 于山國이다.²³⁾

즉,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저술한 『輿地志』의 실린 울릉·우산 ‘1도설’을 부인하고, ‘2도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울릉과 우산 중 어느 한 섬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으나 두 섬 중 하나가 일본 측에서 당시 독도를 칭하던 송도(松島)였다는(㉠ 부분)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4)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동국문헌비고』는 영조(英祖)의 명으로 1769년(영조 45) 편찬에 착수, 이듬해(1770)에 완성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문물에 관한 기록을 상위(象緯)·여지(輿地)·예(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재용(財用)·호구(戶口)·시려(市閭)·선거(選舉)·학교(學校)·직관(職官)의 13고(考)로 나누어 수록하였다.²⁴⁾ 이 가운데 「여지고」는 지리학자인 신경준(申景濬)이 담당하였는데, 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도(우산도)의 영유 인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

22) 오상학(2006), 앞의 논문, 90쪽

23) 신경준, 『旅菴全書』 권7, 강계고 4, 울릉도

24) 『동국문헌비고』는 1790년(정조 14)에 『增訂文獻備考』로, 그리고 1908년에 『增補文獻備考』로 수정 보충하여 편찬되었다.

이라 하겠다. 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다.

于山島, 鬱陵島는 동쪽 3백 50리에 있다. 鬱은 또 蔚이라고도 하고, 芋라고도 하고, 羽라고도 하고, 武라고도 한다. ④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芋山島이다. 【속】 지금은 鬱島郡으로 되었다. 울릉도는 蔚珍縣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 ④ 『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우산국의 땅이다”하였는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이다. …… 25)

앞에서 살핀 『강계고』와 마찬가지로 울릉·우산 ‘2도설’ (④ 부분)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강계고』에서는 울릉·우산 중의 하나라고만 했던 송도가 바로 우산도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④ 부분). 결국,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선 국가(정부)와 조선인은 우산도가 독도라는 분명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서 자료에 기록된 독도(우산도)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지리서에 기술된 독도

자료	시기	내용	비고
『고려사』 지리지	14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鬱陵島가 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음. • 울릉도는 武陵·羽陵이라고도 함. • 일설에 于山과 무릉은 본래 두개 섬인데 그 거리가 가까워서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음. 	1도설(?) * 2도설 附言
『세종실록』 지리지	14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산과 무릉 두 섬은 현(울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음. •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음. 	2도설

25) 『증보문헌비고』 권31 여지고 19, 관방 7 강원도, 울진

『동국여지승람』	14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산도 • 울릉도는 혹은 무릉·우릉이라고도 함. • 두 섬은 현(울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음. •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한 섬이라고도 함. 	2도설 * 1도설 부언
『여지도서』	18세기 중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릉도는 羽陵島라고도 한다. 관아의 동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음. • 혹은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라고도 함. 	2도설(?) * 1도설 부언
『지승』	조선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진 동쪽 바다 가운데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음. 	2도설
『강계고』	17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릉도와 우산도는 두 개의 섬임. • 울릉과 우산 두 섬 중 하나는 송도(독도)임. 	2도설 독도의 조선 영유 명시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1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릉도와 우산도는 두 개의 섬임. • 우산도가 송도(독도)임. 	2도설 우산도가 독도임을 명시

III.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독도’

지도에는 당시의 국토 인식과 표현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²⁶⁾ 특정 장소나 공간에 대한 인식은 지도와 같은 시각 자료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²⁷⁾ 따라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영유를 증빙하는 데 지도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도 제작의 발달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1413년(태종 13)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에 따라 그 실정에 부합되는 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1436년(세종 18)에 정척(鄭陟, 1390~1475)

26) 양보경(2002), 「서울에서 만나는 하늘, 땅, 사람: 지도와 지리지」, 『서울, 하늘·땅·사람』, 서울역사박물관·고려대학교 박물관, 202쪽

27) 오상학(2006), 앞의 논문, 79쪽

이 『팔도도(八道圖)』를, 그리고 1463년(세조 9)에는 정척과 양성지(梁誠之, 1414~1482)가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제작함으로써 조선 전기 전국 지도의 종합 완성본을 보게 되었다. 이 『동국지도』는 18세기 중엽 정상기(鄭尙驥, 1678~1752)가 백리척(百里尺) 방식의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를 제작할 때까지 조선 지도의 표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⁸⁾

한편, 『동국지도』는 15세기 후반 『동국여지승람』의 부도(附圖)로 수록된 ‘동람도(東覽圖)’, 즉 「팔도총도(八道總圖)」의 제작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팔도총도」는 조선 후기까지 ‘동람도’식 지도 제작 방식의 정형이 되어왔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 가운데 독도가 표현된 지도 일부를 전국 지도와 강원도 지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²⁹⁾

이들 지도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산도(독도)의 위치와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 비교 대상(기준)은 울릉도가 된다. 비교 결과 그 유형은 크게 우산도가 울릉도의 좌측 또는 우측에 그려진 경우, 우산도가 울릉도의 상단 또는 하단에 그려진 경우로 구분되며, 이를 좀 더 유형화해 보면 ① 우산도가 울릉도의 좌측에 표현된 경우(‘A유형’으로 칭함), ② 우산도가 울릉도의 우측에 표현된 경우(‘B유형’), ③ 우산도가 울릉도의 상단에 표현된 경우(‘C유형’), ④ 우산도가 울릉도의 하단에 표현된 경우(‘D유형’) 등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28) 이상태(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6~7쪽

29) <표 2>에서 제시한 ‘독도’ 표현 조선시대 지도 자료는 전국 지도가 8점, 강원도 지도가 5점으로 총 13점이다. 이들 자료 선정의 기준은 圖錄 형태로 발간된 책에 수록되어 이용에 용이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제시하지 못한 자료 가운데 본 글의 목적에 더 적합한 것이 적지 않겠으나, 그 대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에 다루지 않았다. 선정된 지도가 수록된 책은 『수원의 옛 지도』(수원시, 2000), 『서울, 하늘·땅·사람』(서울역사박물관·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이찬 기증 우리 옛지도』(서울역사박물관, 2006) 등이다.

〈표 2〉 독도가 그려진 조선시대 지도 현황

형식	지도 번호	제작(간행) 시기	명칭	유형	소장처
전국 지도	전-1	1530년	『팔도총도(八道總圖)』-『신증동국여지승람』	A	서역박
	전-2	17세기 초	『조선총람도(朝鮮總覽圖)』	C	서역박
	전-3	1673년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覽圖)』	C	서역박
	전-4	17세기 말~18세기 초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之圖)』	A	고려도
	전-5	18세기 중엽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B	국박
	전-6	18세기 중엽	『조선전도(朝鮮全圖)』	B	고려박
	전-7	1850년대	『해좌전도(海左全圖)』	B	서역박
	전-8	19세기 말	『대조선국전도(大朝鮮國全圖)』	B	대성암
강원도 지도	강-1	1530년	『강원도도(江原道圖)』-『신증동국여지승람』	A	서역박
	강-2	17세기	『강원도이십육관도(江原道二十六官圖)』	A	서역박
	강-3	17세기 후반	『강원도도(江原道圖)』-『천하지도(天下地圖)』	D	서역박
	강-4	18세기 전반	『강원도도(江原道圖)』-『감여도(堪輿圖)』	D	서역박
	강-5	1900년경	『강원도도(江原道圖)』-『대한전도(大韓全圖)』	B	서역박

비고: ① 각 지도의 유형 분류로 표기한 약호(略號)의 설명은 아래와 같음.

- A유형: '좌측-우산도, 우측-울릉도' 표현
- B유형: '좌측-울릉도, 우측-우산도' 표현
- C유형: '상단-우산도, 하단-울릉도' 표현
- D유형: '상단-울릉도, 하단-우산도' 표현

② 소장처의 약호는 아래와 같음.

- 서역박: 서울역사박물관(이찬 기증)
- 고려도: 고려대학교 도서관
- 고려박: 고려대학교 박물관
- 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대성암: 양산시 대성암

물론 B유형과 D유형이 혼합된, 즉 우산도가 울릉도의 '우측 하단'에 표현된 것이 가장 실재와 가까운 형상이다.

그러면 유형별로 나누어 각 지도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A 유형: 좌측-우산도, 우측-울릉도

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八道總圖)」와 「강원도도(江原道圖)」

「팔도총도」와 「강원도도」는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지도들로서 그 형식에서 이후 '동람도' 식의 원형이 된다. 이들 지도는 지리지를 보완하는 부도로 제작되었기에 그 표현 내용이 전국과 각 도(道)의 개략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더군다나 지도의 제작 목적이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악독(嶽瀆)과 명산대천, 그리고 각 군현의 진산(鎭山)만을 표기하는 일종의 주제도(主題圖) 제작에 있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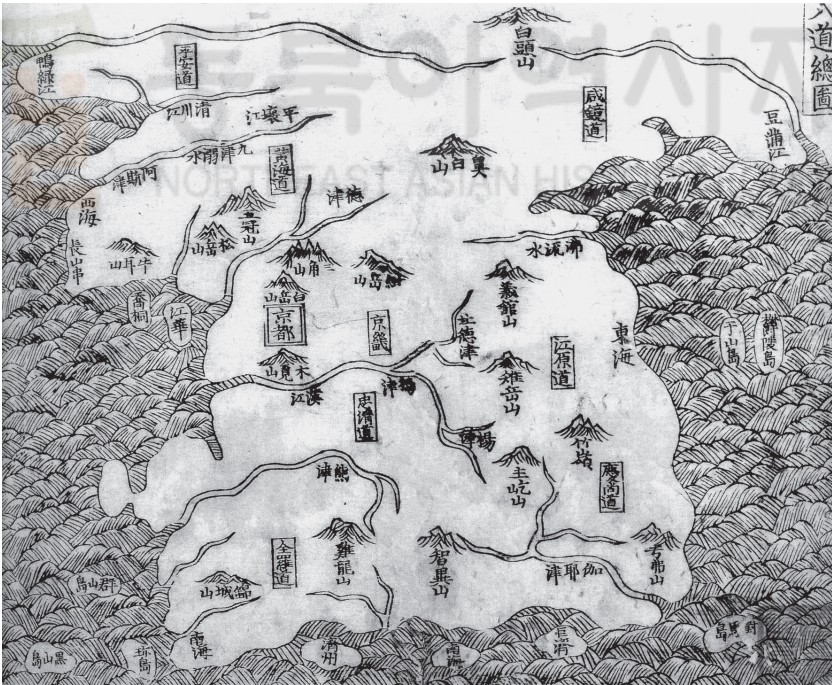


그림 1 「팔도총도」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좌측에 그려져 울릉도보다 오히려 강원도 연안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그 크기를 보더라도 울릉도보다 약간 작게 표현되어 있다(그림 1: 전-1³¹⁾ 참조).



그림 2_ 「강원도도」 중 우산도·울릉도 부분

이러한 표현은 「강원도도」에서 우산·울릉도가 모두 가로로 긴 것과, 두 섬의 크기가 거의 동일한 것이 차이를 보일 뿐 역시 우산도가 울릉도의 좌측에 그려져 있다(그림 2: 강-1 참조).

그렇지만 조선 전기에 제작된 「팔도총도」와 「강원도도」에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표현되었다(더군다나 과장되게)는 사실은 독도 영유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해야 할 부문이다. 서해와 남해에 그려진 여러 주요 섬들(강화도, 교동도, 군산도, 흑산도, 진도, 제주도, 남해도, 거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동해상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진 것은 국가(정부)에서 두 섬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³²⁾

2) 『강원도이십육관도(江原道二十六官圖)』

『강원도이십육관도』는 17세기에 제작된 지도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강원도도」(앞의 그림 2)와 거의 유사한 '동람도'식 도별 지도이다. 이 지도

30) 이상태(1999), 앞의 책, 43~46쪽; 방동인(2002), 『한국지도의 역사』, 신구문화사, 100~101쪽; 양보경(2002), 앞의 논문, 202쪽

31) '그림'의 일련번호에 부기한 지도 번호는 표 2에서의 '지도 번호'를 표기한 것이다. '전'은 전국 지도, '강'은 강원도 지도를 약칭한 것임.

32) 오상학(2006), 앞의 논문, 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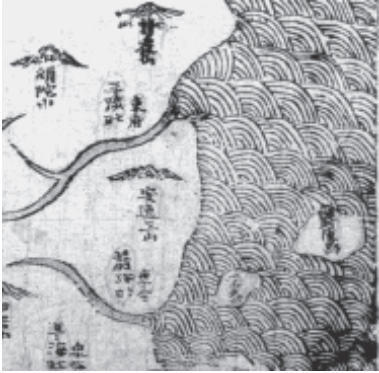


그림 3 『강원도 이십육관도』 중 우산도·울릉도 부분

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좌측에 그려진 것은 「강원도도」와 동일하나 좌측 하단에 표현된 점과 크기가 울릉도의 절반 정도로 작게 그려진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그림 3: 강-2 참조)

3)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之圖)』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는 봉수대(烽燧臺)의 위치를 표시한 군사적 목적의 채색지도로 제작 시기는 17세기 말~18세기 초로 추정된다.³³⁾ 그런데 산악에 위치한 전국의 봉수대를 표시하기 위한 지도를 제작하면서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산도와 울릉도를 그려 넣은 점은 주목된다. 독도 영유 인식의 일면을 보여 준다 하겠다.

이 지도에 그려진 우산도와 울릉도의 관계는 「팔도총도」와 거의 유사하나, 해안의 굴곡을 표시한 점과 우산도의 크기가 좀 더 작게 표현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림 4: 전-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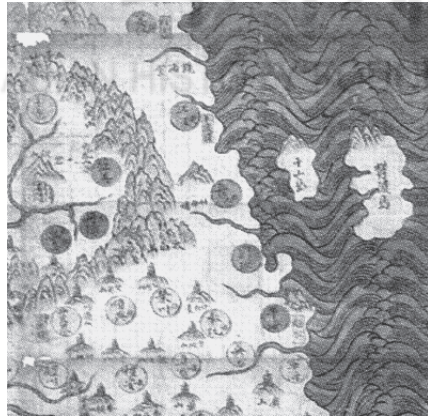


그림 4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중 우산도·울릉도 부분

33) 양보경(2002), 앞의 논문, 247쪽

2. B유형: 좌측-울릉도, 우측-우산도

1)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동국대지도』는 18세기 중엽 정상기가 전통적인 방안기법을 발전시켜 백리척이란 축척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이다. 따라서 『동국대지도』는 조선 후기 지도사(史)에서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5_ 『동국대지도』 중 우산도·울릉도 부분

우산도와 울릉도의 표현에서도 그 이전 지도와는 다른 인식이 최초로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인식의 반영은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독도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³⁴⁾

지도를 보면, 우산도가 울릉도의 우측에 그려져 있을 뿐 아니라, 우산도의 크기도 이전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울릉도보다 훨씬 작게(거의 10분의 1 수준) 표현되어 있다(그림 5: 전-5 참조). 이러한 표현은 정상기의 『동국대지도』가 거의 최초가 아닌가 여겨진다. 다만, 우산도와 울릉도 간의 거리가 가깝게 그려진 점을 보면, 아직 독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보다는 오래전부터 영유 인식이 형성되었던 우산도(독도)를 굳이 울릉도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그려 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34) 오상학(2006), 앞의 논문, 91쪽

2) 『조선전도(朝鮮全圖)』

정상기가 『동국대지도』를 제작하면서 반영한 독도 인식은 이후 제작되는 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지는데,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전도』에서 그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지도 역시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와 같은 채색지도이나 그 크기는 『동국대지도』의 절반 정도이다. 따라서 『동국대지도』를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산도를 울릉도의 우측에 그려 넣었는데, 그 크기가 다소 과장되어 울릉도의 약 4분의 1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6: 전-6 참조).



그림 6_ 『조선전도』 중 우산도·울릉도 부분

3) 『해좌전도(海左全圖)』

『해좌전도』는 1850년대 제작된 대표적인 목판본 조선 전도(全圖)로 정상기의 『동국대지도』 이래로 축적된 성과가 잘 반영된 지도이다. 특히 울릉도와

제주도로 가는 해로(海路)와 함께, 대마도(對馬島)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해로도 표현되어 있다.

울릉도 뱃길은 강원도 울진과 연결시켰으며, 우산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작게(울릉도의 10분의 1 크기) 그려 넣었다(그림 7: 전-6 참조).



그림 7_ 『해좌전도』 중 우산도·울릉도 부분

4) 『대조선국전도(大朝鮮國全圖)』

『대조선국전도』는 경상도 양산시에 위치한 대성암(大成庵)에 소장되어 있는 동판본 조선 전도로 그 제작 시기는 19세기 말로 추정된다. 지도의 기법을 보면 해안지방의 섬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되었다.

동해 먼바다의 섬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를 그려 넣었는데, 우산도를 울릉도의 우측에 위치시켰으나 상대적으로 우산도를 크게 표현하였다. 울릉도의 좌측에는 내륙 연안(울진으로 추정)으로부터의 거리가 '水路八百里(뱃길 800리)'임을 표기해 놓고 있어 나름 정확한 지리 정보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그림 8: 전-7 참조).

5) 『대한전도(大韓全圖)』의 「강원도도(江原道圖)」

『대한전도』는 1900년경에 제작된 철판 인쇄본 지도로 전통적 기법과 서양식 근대 기법이 혼재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각 도별 지도 중 「강원도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우측에 그려져 있으며, 울릉도와 대비하여 그 크기도 실재와 흡사하게 작게 표현되었다. 물론 우산도(독도)를 울릉도에 근접시켜 그려 넣고 있는 것은 이전에 제작된 지도들과 동일하다(그림 9: 강-5 참조).



그림 8_ 『대조선국전도』



그림 9_ 「강원도도」 중 우산도·울릉도 부분

3. C유형: 상단-우산도, 하단-울릉도

1) 『조선총람도(朝鮮總覽圖)』

『조선총람도』는 채색지도로 그 제작 시기는 17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도가 거의 그러하듯이 이 지도 또한 해안과 섬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지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우산도가 울릉도의 상단에 그려진 점이다. 뿐만 아니라 우산도의 크기를 울릉도와 거의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그림 10: 전-2 참조).

2)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覽圖)』

『조선팔도고금총람도』는 김수홍(金壽弘, 1601~1681)이 제작한 목판본 지도로 지도 좌측에 기재된 발문(跋文)을 통해 제작 시기가 1673년임을 알 수 있다. 지도 상단에 쓰여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역의 '고금(古今)', 즉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해 넣었다.

지도 전체적으로는 군현의 위치가 부정확한데, 우산도 역시 울릉도의 상단에 표현하고 있다(그림 11: 전-3 참조).



그림 11_ 『조선팔도고금총람도』

4. D유형: 상단-울릉도, 하단-우산도

1) 『천하지도(天下地圖)』의 「강원도도(江原道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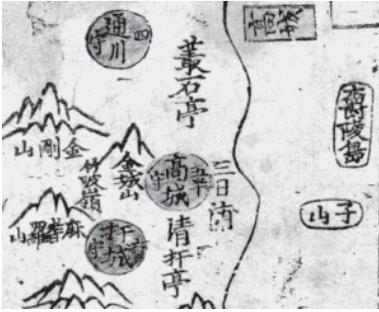


그림 12_ 「강원도도」 중 우산도 · 울릉도 부분

『천하지도』는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목판본 지도로 그 표현 기법이 '동람도' 식을 따르고 있으나, 「강원도도」를 보면 우산도를 좌측이 아닌 하단에 그려 넣고 있다. '于山(우산)'을 '子山(자산)'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 확인된다.(그림 12: 강-3 참조)

그림 12: 강-3 참조)

2) 『감여도(堪輿圖)』의 「강원도도(江原道圖)」

『감여도』는 18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채색지도이다. 회화적인 기법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산도가 울릉도의 하단에 절반 크기로 그려져 있다(그림 13: 강-4 참조).



그림 13_ 「강원도도」 중 우산도 · 울릉도 부분

이상, '독도'가 그려진 조선시대 지도 13점을 살펴보았다. 지도에 표현된 우산도의 위치라든가 크기에 국한하여 본다면, 당시 조선 국가와 지식인의 독도 · 울릉도 인식이 불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상기의 『동국대지도』가 제작된 18세기 중엽 이후, 독도의 지도상의 표현이 점차 실제와 가까운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전통시대의 회화적 지도의 대개가 실제와 일치하는 지리 정보를 담으려는 것보다, 지도 제작의 목적에 맞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담아내려는 것이기에 다소 거칠거나 과장, 엉뚱하게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도에 표현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실제성을 논하는 것보다 그 내면에 깔린 인식을 제대로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서 A유형부터 D유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불확실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면서도 우산도를 울릉도 주위에 그려 넣고자 했던 조선 정부와 지식인의 노력을 주목해야 하겠다. 그 노력은 독도에 대한 강한 영유 인식이 없었으면 발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IV.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 인식: 맺음말을 대신하여

조선시대 국가(정부)와 조선인의 독도 영유 인식은 15세기에 편찬된 『고려사』와 『세종실록』 두 관찬 자료의 지리지에서 처음 확인해 볼 수 있다. 바로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기사이다. 이러한 내용(정보)을 관찬 지리서에 남겼다는 것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정보와 영유 인식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데, 울릉도 주변의 섬들 가운데 ‘날씨가 청명해야만 볼 수 있는’ 조건의 우산도는 독도밖에 없기 때문이다.³⁵⁾

35) 울릉도 주변의 섬 중 죽도와 관음도는 그 거리가 울릉도에서 각각 2km와 수십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의 청명 여부와 상관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지리서에서 언급한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울릉도에서의 독도 관측 사실은 17세기 말 자료에서 확인된다. 삼척 첨사 장한상(張漢相) 일행이 13일 동안 울릉도에 체류하는 도중에 ‘비 개고 안개 거친(즉, 날씨가 청명한) 날 중봉(中峰)에 올라가 ‘동남쪽으로 300여 리 거리의 바다 가운데 울릉도의 3분의 1 미만 크기’의 섬을 보았다는 것이다.³⁶⁾

이렇듯 조선시대 정부는 독도가 아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상시 지니고 있었다고 본다. 비록 공도정책으로 섬을 비워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유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리적 정보를 부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것이 역사적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영유 인식을 나타내는 증빙이 된다 하겠다.

한·일 간 독도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데에는 정치적·경제적 여러 이유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종 역사적 증빙자료를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하지 않으려는 식견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제국 시기 1900년에 반포된 ‘칙령 제41호’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지배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주요 자료가 된다.

한말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과 벌목, 울릉도 주민에 대한 폭력행사 등이 극심해지자 이에 조선 정부(즉,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를 지방행정 구역상의 독립된 군(郡)으로 승격시키는 적극적 대책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1900년(광무 4) 10월 25일자 전문(全文) 6조의 ‘칙령 제41호’ 반포이다.³⁷⁾ 칙령 제2조에서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

36) 장한상, 『鬱陵島事蹟』[배성준(2002), 앞의 논문, 45쪽에서 재인용].

37) 『高宗實錄』 37년 10월 25일조; 『舊韓國官報』 제1716호, 광무 4년 10월 27일자

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고 밝히고 있다. 석도는 바로 ‘돌섬’의 뜻을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며, ‘돌[石]’은 방언으로 ‘독’이라고 하였기에 그 음을 취한 한자 표기 독도(獨島) 역시 석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世宗實錄』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조선왕조실록』

『增補文獻備考』

『수원의 옛 지도』, 수원시, 2000

『서울, 하늘·땅·사람』, 서울역사박물관·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이찬 기증 우리 옛지도』, 서울역사박물관, 2006

김전배(1972), 『조선조의 읍지연구-현존 읍지를 중심으로』

김호동(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 『독도와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편(2010), 『독도·울릉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方東仁(2000), 『韓國地圖의 歷史』, 신구문화사

배진수 외(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徐仁源(2002),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혜안

송병기(2008),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송병기(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慎鏞廈(2003), 『韓國과 日本의 獨島領有權 論爭』, 한양대학교출판부

양보경(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3,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오상학(2008),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이상태(2001),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 최장근(2008), 『독도의 영토학』, 대구대학교출판부
- 內藤正中·金柄烈(2007), 『史的檢證 竹島·獨島』, 岩波書店
- 內藤正中·林丙步(2007), 『竹島=獨島論爭』, 新幹社
- 호사카 유지[保坂祐二](2009), 『우리 역사 독도』, BM성안당
- 김경숙(2005), 「독도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 『獨島研究』 창간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裴城俊(2002), 「울릉도·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震檀學報』 94
- 宋炳基(1989), 「朝鮮初期 地理志의 于山·鬱陵[武陵]島 記事檢討」, 『龍巖車文變敎受 華甲紀念 論叢 朝鮮時代史研究』, 신서원
- 申奭鎬(1965), 「獨島の 來歷」, 『獨島』, 대한공문사
- 양보경(2002), 「서울에서 만나는 하늘, 땅, 사람: 지도와 지리지」, 『서울, 하늘· 땅· 사람』, 서울역사박물관·고려대학교 박물관
- 오상학(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통권 28호
- 李丙燾(1963), 「獨島の 名稱에 대한 史的考察—于山·竹島 名稱考」, 『趙明基博士華甲紀念 佛敎史學論叢』, [獨島學會 編(2003), 『韓國의 獨島領有權 研究史』, 독도연구보존협회 재수록]
- 李成茂(1982), 「韓國의 官撰地理志」, 『奎章閣』 6, 서울대 규장각
- 李泰鎭(1979), 「『東國輿地勝覽』 편찬의 歷史의 性格」, 『震檀學報』 46·47합, 진단학회
- 林英正(1985), 「朝鮮初期 鬱陵島와 獨島の 經營」, 『玄岩中國柱博士華甲紀念 韓國學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 鄭杜熙(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I·II)」, 『歷史學報』 69·70, 역사학회
- 崔南善(1953), 「鬱陵島와 獨島—韓·日 交涉史의 一側面」, 『서울신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編(2008), 『六堂崔南善全集 2: 韓國史 II』, 동방문화사 재수록]

• 찾아보기

<ㄱ>

가노 고에몬[加納卿右衛門] 85

가로 63

가쓰고로[勝五郎] 59

가와무라 67

가지도 31

가지도구미 29

감여도(堪輿圖) 138

감을계 49

강계고(疆界考) 96, 121

강계지(疆界誌) 96

강원도이십육관도(江原道二十六官圖) 129

강원도지도 17

개척령 반포 52

거북바위 49

검찰일기 32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 97

고지명 52

곡포 35

공간 표상 16

공도(空島)정책 120

공문(公文) 73

공문두(頭) 76

관음도 51, 139

관찬서(官撰書) 99

교토 60

구니카에[國替] 58

구라요시[倉吉] 61

구베 67

구미진 31

구미진(丘尾津) 20

구산포 34, 35

구암 마을 50

군대 61

군봉행 61

군역인(郡役人) 62

김수홍(金壽弘) 135

김종직(金宗直) 119

김창윤 20

<ㄴ>

나리동 34

나리토시[成利] 64

남양 포구 50

노인봉[倡優巖], 축대암(燭台巖), 천년포(千年浦), 추봉[錐山], 문암(門巖) 48

<ㄷ>

다카나리[嵩就] 64
 다카나시 가문 76
 단 아이치에몬[團彌市右衛門] 74
 대관 61
 대동여지도 21
 대섬 51
 대장옥(大庄屋) 62
 대조선국전도(大朝鮮國全圖) 133
 대추암 · 소추암 · 석초 · 저전 29
 대풍소 30, 44
 대풍포 34
 대한전도(大韓全圖) 133
 도동 43, 49
 도사(徒士) 63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78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59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59
 도쿠히메[督姫] 65
 독도 28
 독섬 53
 돌섬 53, 141
 돛토리 57
 돛토리번 58
 돛토리번사[鳥取藩史] 69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126
 동국문헌비고 95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여지고(輿地考)

121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16
 동람도(東覽圖) 126

<ㄹ>

마쓰다이라 나오마사[松平直政] 74
 마쓰다이라 다다카쓰[松平忠雄] 59
 마쓰다이라 테루오키[松平輝興] 66
 마쓰다이라 테루즈미[松平輝登] 66
 마쓰다이라 신타로 83
 마쓰에번 78
 마쓰에 지도리성[松江千鳥城] 72
 마쓰자키[松崎] 61, 69
 만기요람 95
 모리씨[毛利氏] 72
 목부 63
 무라카미 가문 75
 무릉도 97, 117
 미야자마 겐타에몬[宮島源太右衛門] 74

<ㅂ>

박종원(朴宗元) 120
 방패도 30, 43
 방패도, 죽도, 용도 31
 병풍석, 향목정 45
 비젠 오카야마[備前岡山] 58

<ㅅ>

사동 45
 사치중(仕置衆) 62
 산막동 50
 산봉 35
 산봉행 61
 삼국사기 95
 삼국사기(三國史記) 115
 삼대령 34
 삼류천 34
 삼막동 35
 삼봉도(三峰島) 120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 20
 석도(石島) 114
 선판구미 35
 성인봉 48
 성현(成愼) 119
 성호사설 99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116
 세종실록지리지 95
 소물성봉행 61
 소황토구미 34
 소황토구미포 34
 송도(松島) 123
 시마네현 72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亂] 60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104

신경준 105
 신경준(申景濬) 121
 신도(新島) 120
 신증동국여지승람 9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19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118
 쓰다[津田] 가문 69
 쓰시마 57

<ㅇ>

아라오 60
 아라오 고타로[荒尾小太郎] 68
 아라오 나리토시 66
 아라오 다카나리 66
 아라오 다쿠미[荒尾内匠] 66
 아라오 시마[荒尾志摩] 67
 아라오 요시쓰구[荒尾善次] 64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郎五郎] 84
 아세이리 67
 아이미[會見] 67
 안용복 57
 안용복(安龍福) 121
 알봉 48
 아마세 구로에몬[山瀬九郎右衛門] 74
 야하시 67
 야하시[八橋] 61, 69
 양성지(梁誠之) 119

여지도서(輿地圖書) 121
 여지지 96
 여지지(輿地志) 123
 역인(役人) 73
 연기(年寄) 61
 오다 노부나가 64
 오대령 34
 오사카 60
 오와리[尾張] 87
 오인조(五人組) 체제 77
 오제키 츠베에[尾關忠兵衛] 85
 오카야마번 59
 오기섬 57
 옹도 51
 와다[和田] 가문 69
 와달리 43
 와달웅통구미 35
 왜강창 30
 왜선창 34
 요나고 58
 요나고조[米子組] 67
 요도(蓼島) 120
 우도노[鵜殿] 가문 69
 우라토메[浦留] 69
 우릉도 117
 우산도 51, 95, 114
 于山島 23

울릉도 117
 울릉도내도 25
 울릉도도형(국립중앙도서관) 23
 울릉도도형(규장각) 22
 울릉도사적 28
 鬱陵島事蹟 140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 20
 울릉도 수토(搜討) 121
 울릉도외도 25
 울릉도 쟁계(爭界) 121
 원견변(遠見番) 78
 유형원 104
 유형원(柳馨遠, 1622~1673) 123
 이규원 21
 이극돈(李克墩) 120
 이누이 나오키쿠[乾直幾] 66
 2도(島)설 118
 이도설(二島說) 16
 이와미국 57
 이즈모[出雲] 72
 이케다 다다쓰구[池田忠繼] 65
 이케다 테루마사 65
 이케다 미쓰나카[池田光仲] 58
 이케다 미쓰마사[池田光政] 58
 이케다 쓰네키 65
 1도설 119
 일선암, 삼선암, 관음암 43

임사홍(任士洪) 119

<ㅈ>

자분정치(自分政治) 60

장오리 30

장옥(庄屋) 61

장작지소 35

장작지포 31

장한상(張漢相) 122, 140

장한상(張漢相, 1656~1724) 16

재방(在方) 61

저동 43, 45

저전동 29, 31

정목부(町目付) 63

정방(町方) 61

정봉행(町奉行) 61

정상기(鄭恰躋) 126

정척(鄭陟) 125

조두(組頭) 61

조두장옥(組頭庄屋) 62

조선전도(朝鮮全圖) 132

조선지도 26

조선지형도 20

조선총람도(朝鮮總覽圖) 135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覽圖)

135

종지장옥(宗旨庄屋) 62

주상절리 40

죽도 43, 80, 139

죽도도해금지령 57

죽도도해면허 82

죽도지사부 58

죽암 35

죽암마을 43

죽암·후포암·공암·추산 31

중봉 26, 30

중보문헌비고 95

지리지(地理志) 116

지봉유설 99

지승(地乘) 121

<ㅊ>

창우암 34

천년포 34

천마구미 30

천부 49

천하지도(天下地圖) 138

초기 본백성 73

축대암 34, 35

촌역인(村役人) 61

추산 46

춘관지 99

춘관지 105

칙령(勅令) 제41호 113

<ㄱ>

코끼리바위 44

<ㄷ>

태하동 43

통구미진 31

<ㅍ>

팔도도(八道圖) 126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119

팔도총도(八道總圖) 126

<ㅎ>

학포 50

학포리 47

한창국 21

해동지도 26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之圖) 130

해좌전도(海左全圖) 132

향목정 30, 44

현작지, 추산, 죽암, 공암, 황토구미 30

현포 35

호리오 다다하루 73

호리오 요시하루[堀尾吉晴] 72

홍문가 34

후죽암 30

흑작지 34

히노 67

히메지성 65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4

역사와 지리로 본 울릉도·독도

초판 1쇄 인쇄 2011년 12월 13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12월 20일

지은이 김기혁·최은석·윤유숙·임학성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1

ISBN 978-89-6187-268-3 93910

- * 이 책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